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金 容 載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中等 漢文 教科에서의 교수·학습지도법 연구  
- 四書를 중심으로 -

2016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許 道 恩

# 中等 漢文 教科에서의 교수·학습지도법 연구

- 四書를 중심으로 -

金 容 載 教授 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許 道 恩

# 認 准 書

許道恩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15年 11月

審査委員長 柳 浚 景 (印)

審査委員 辛 泳 周 (印)

審査委員 金 容 載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 論文概要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四書 경문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뒤, 교과서에 선정된 四書 경문의 다양한 학습요소를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사서경문 교수학습지도법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동양의 정신적 가치와 문화가 집약되어 있는 사서 경문은 한문과 교육과정이 정립한 교육목표를 모두 달성할만한 학습요소가 존재하고, 다양한 학습모형으로 인간의 정의적인 영역을 발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문 교과서에서 늘 후반부를 차지하는 경서 단원은 학기 내에 다루어지기도 벅차며, 학생과 교사가 모두 경서수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효율적인 경서의 교수학습법을 고찰해 볼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리하여 II장에서는 먼저 2009 개정 교육과정 內 경서교육에 관한 지침을 살펴봄으로써, 경서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은 경서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신장과 문화교육의 달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수학습 자료인 교과서를 분석해보며 현 사서 단위 교수학습 현황을 확인하였다. 현행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경문들을 ‘출전 빈도’, ‘학습목표’, ‘글감’, ‘교수·학습활동’의 네 가지 층위로 나누어 세밀히 분석하였다. 각 층위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출전 빈도’ 층위에서는 『大學』과 『中庸』 문장의 교과서 인용횟수가 현저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四書의 경문을 골고루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교수자료 선별에 대한 집필진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학습목표’ 분석을 통해 추상적인 행동명사를 사용한 ‘포괄식 표현’으로 진술된 학습목표가 빈번하였으며,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목표를 그대로 진술하는 경우 또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무엇보다 경문에 내포된 학습요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학습목표 진술이 필요하다.

‘글감’ 층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긴 길이, 어려운 내용, 궁벽한 한자 등을 피하여 적절한 난이도의 글감을 선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복된 인용문장의 경우에는 교과서 間 현토를 어느 정도는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교수·학습활동’의 분석에 있어서는 ‘자기 주도적인 독해 유도의 여부’, ‘경문과의 적절성’, ‘이해장치의 충분한 제공’의 세 가지를 기준점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의 독해력 신장을 위해 산발적으로 빈칸을 제시한다거나 주요 어구에만 풀이를 제시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독해활동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 경문에 담긴 학습요소를 적절히 살린 교수·학

습활동 및 경문과 관련 깊은 읽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관건이 되는 Ⅲ장과 Ⅳ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담아 효율적인 사서경문 교수학습지도법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사서교육이 가진 정의적 특성과 실용성을 살려 全人的 文化人을 양성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 i) 타 교과와의 연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서의 학습은 그 문장들이 가진 주제와 특성들을 고려해볼 때, 국어, 진로, 도덕, 미술교육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기에 적절하다. 먼저, 국어교육과의 연계는 사서에서 유래한 성어의 학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오히려 언어생활 속 한문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공부, 노력, 배움의 즐거움을 주제로 한 경문을 놓고 장래희망 탐색하기, 학업계획 세우기, ‘인생 시계’ 그려보기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토대로 진로교육과의 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사서경문을 통한 인성교육으로는 인성적 요소가 담긴 경문을 수업한 뒤 이루어질 수 학습활동인 자기반성 또는 앞으로의 다짐을 논술해보기, ‘좌우명 만들기’, ‘잠(箴) 짓기’ 활동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사서 속 주된 개념 “仁義禮智信” 다섯 글자를 이용한 문자도 그리기, 『五倫行實圖』를 참고하여 현대적인 행실도 그리기 활동을 소개하여 미술교육과의 융합을 추구하였다. ii) 사서경문 학습을 통해 문화교육의 성취를 지향할 수 있다. 경서는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내포하고 있어 문화교육 성취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상과 문화가 담긴 글감이라도 학생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란 실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서 수업 안에서 주변사례를 풍부히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공감대와 실천동기를 일으켜야 한다. 또한 직접적인 문화교육의 방편으로 사서경문과 연결하여 유교사상에 뿌리를 둔 전통문화재와 선비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두 번째, 사서와 같은 思想類 산문의 특징을 살려 主知主義 교육을 탈피한 비판적 성찰, 창의력 신장, 바람직한 인성과 소통의 배양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i) 비판·논리 및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교수법이 있다. 학생들은 사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이해하며 논리력과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데, 이 때 가치토론 활동과 논술 활동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토론은 타인과 논리를 교류하며 사람을 움직이는 설득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논술은 타당한 논거들을 탐색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쳐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사고 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 ii) 사서경문의 학습을 통해 현 교육이 추구하는 창의·인성 및 소통이 가능한 교육을 달성하는 것이다. 한문과도 얼마든지 틀에 박힌 수업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수업모형으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소통능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창의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석을 제시하고 창의적 해석을 유도하는 교수학습법을 통해 학생들

이 여러 관점으로 경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경문을 공익광고의 카피로 제작해보며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학습과정 안에서 교사와 학생이 상호적으로 ICT를 활용함으로써 문제해결력을 신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윤리적인 내용과 주제를 다룬 경문을 학습한 뒤에 대한 실천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천학습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하여 교실을 벗어난, 텍스트를 넘어선 인성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경문에서 볼 수 있는 바람직한 행실을 토대로 실천점검표를 만들어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직접 실천을 유도할 수도 있다. 소통교육으로 말하자면, 본고는 여러 가지 소통 유형가운데에서도 또래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서 수업 안에서 학생들 간의 소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역할극, 놀이, 게임의 활용을 제언하였다.

사서는 선인들의 아름다운 사상과 인성이 담겨 있어 수 천 년이 넘도록 萬人에게 사랑받는 寶庫이다. 그러나 정작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배우기 어려운 것’으로, 혹은 ‘가르치기 까다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문제 삼아 사서경문에 대한 효율적인 교수법을 제언한 본 연구가 한문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目次

## □ 論文概要

I. 序論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5
3. 연구 내용 및 방법 .....	7
II. 교과서 內 ‘經書’ 단원 분석 .....	11
1. 교육과정에 나타난 ‘經書教育’의 방향성 .....	11
2.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 內 四書 經文 수록 현황 .....	13
3. 수록된 四書 經文에 대한 분석 .....	20
III. 全人的 文化人을 지향하는 실용적 교수학습법 .....	43
1. 他교과와의 연계 가능한 교수법 .....	43
1) 국어·진로교육과의 연계 .....	44
2) 국어·진로교육과의 연계를 적용한 수업지도 .....	49
3) 도덕·미술교육과의 연계 .....	50
4) 도덕·미술교육과의 연계를 적용한 수업지도 .....	56
2. 문화교육 성취 지향의 교수법 .....	58
1) 주변 사례 떠올리기 .....	58
2) 사례를 활용한 수업지도 .....	61
3) 전통문화의 활용 .....	62
4) 전통문화를 활용한 수업지도 .....	68

IV. 비판적 사고력 및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법 .....	70
1. 비판·논리 및 사고력 증진의 교수법 .....	70
1) 토론 활동 .....	71
2) 논술 활동 .....	74
3) 가치토론과 논술·구술을 적용한 수업지도 .....	75
2. 창의·인성 및 소통능력 배양의 교수학습 .....	77
1) 창의교육 및 이를 적용한 수업지도 .....	77
2) 인성교육 및 이를 적용한 수업지도 .....	85
3) 소통교육 및 이를 적용한 수업지도 .....	90
 V. 結論 .....	 95

□ 參考文獻

□ Abstract

## 〈表〉 目 次

〈표 I-01〉 2007 개정 교육과정 한문영역 내용체계(단문·산문) .....	8
〈표 I-02〉 2009 개정 교육과정 독해·문화영역 내용체계 .....	8
〈표 I-03〉 2007 개정 교육과정 한문지식영역 내용체계(어휘) .....	9
〈표 I-04〉 2009 개정 교육과정 한문지식영역 내용체계(어휘) .....	9
〈표 II-01〉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해〉영역에 기술된 경서 관련 내용 .....	11
〈표 II-02〉 2009 개정 교육과정 〈문화〉영역에 기술된 내용 .....	12
〈표 II-03〉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 교과서』 목록과 약호 .....	14
〈표 II-04〉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목록과 약호 .....	14
〈표 II-05〉 중학교 한문교과서(14종) 內 사서경문 수록 현황 .....	15
〈표 II-06〉 고등학교 한문교과서(10종) 內 사서경문 수록 현황 .....	17
〈표 II-07〉 중학교 한문교과서(14종) 內 사서경문 出典別 출현 빈도 .....	20
〈표 II-08〉 고등학교 한문교과서(10종) 內 사서경문 出典別 출현 빈도 .....	20
〈표 II-09〉 교과서에 수록해볼만한 四書 經文 소개 .....	22
〈표 II-10〉 교육과정 영역에 따른 중학교 사서경문 단위 학습목표 통계 (14종) .....	25
〈표 II-11〉 교육과정 영역에 따른 고등학교 사서경문 단위 학습목표 통계 (10종) .....	25
〈표 II-12〉 중·고등학교 학습목표 진술형태 통계 .....	27
〈표 II-13〉 중학교 한문교과서 內 중복 수록된 사서경문 (14종) .....	34
〈표 II-14〉 고등학교 한문교과서內 중복 수록된 사서경문 (10종) .....	35
〈표 III-01〉 2015 개정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쓰기〉영역 성취기준 .....	45

〈표 Ⅲ-02〉	四書에서 유래한 成語	45
〈표 Ⅲ-03〉	2015 개정 중학교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일과 직업세계 이해’ 영역 성취기준	46
〈표 Ⅲ-04〉	국어·진로교육과의 연계를 적용한 사서경문 수업 지도안	49
〈표 Ⅲ-05〉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총괄목표’	50
〈표 Ⅲ-06〉	2015 개정 고등학교 ‘古典과 倫理’ 교육과정의 목표	51
〈표 Ⅲ-07〉	2015 개정 고등학교 美術科 교육과정 ‘표현’영역 성취기준	54
〈표 Ⅲ-08〉	도덕·미술교육과의 연계를 적용한 사서경문 수업 지도안	57
〈표 Ⅲ-09〉	2009 개정 공통 교육과정 〈한자문화〉영역에 기술된 내용	59
〈표 Ⅲ-10〉	2009 개정 교육과정 “漢文 I” 〈한자문화〉영역에 기술된 내용	59
〈표 Ⅲ-11〉	사례를 활용한 사서경문 수업 지도안	61
〈표 Ⅲ-12〉	‘전통문화’를 활용한 사서경문 수업 지도안	68
〈표 Ⅳ-01〉	가치토론과 논술·구술을 적용한 사서경문 수업 지도안	76
〈표 Ⅳ-02〉	창의교육을 적용한 사서경문 수업 지도안	84
〈표 Ⅳ-03〉	「실천 점검표」의 例示	87
〈표 Ⅳ-04〉	인성교육을 적용한 사서경문 수업 지도안	88
〈표 Ⅳ-05〉	소통교육을 적용한 사서경문 수업 지도안	94

# I. 序論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예로부터 ‘教育’이라는 말을 거론할 때, “教育은 百年之計”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이 말은 우리 국민의 교육에 대한 굳은 믿음과 특유의 教育熱을 표방하는 말임과 동시에, 식민지 지배와 민족전쟁의 폐허로부터 우리나라를 이만한 나라로 이끌 수 있었던 자부심과 자긍심이 이러한 교육열에 기인하고 있었던 것만큼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은 백년지계”라는 말을 믿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학교가 무너지고 스승에 대한 존경심마저 찾기 힘든 요즘, 公教育이 흔들리게 된 현실을 누구나 몸소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의 공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人性啓發”과 “創意教育”, 나아가 “全人的 人格形成”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학생과 학부모의 입맛에 따라 ‘입시위주’ 내지 혹은, 취업위주의 교육에만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태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는 국·영·수 및 사회·과학을 ‘주요과목’으로 잠정 설정하고, 그 외의 과목들을 ‘非주류과목’으로 구분하며 학교 현장에서 임의대로 교과외의 가치를 판단하고 가르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현재의 교육 실태를 곱씹어 보자면, 명목상으로는 학생들의 “全人的 人格體”로의 성장을 교육이념으로 정립해놓고 있으면서도, 정작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과목들을 외면하고 경시해버리는 矛盾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羊頭狗肉이라 치부되는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이며 현실이다.

특히나 “漢文” 교과목이 대면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큰 틀에서의 위기를 넘어, 교육과정과 교육현실을 뒤엎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漢文’ 교과를 3학년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1학기에만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진행하고, 2학기부터는 대학입학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한 ‘자율학습’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과목이 바로 한문이라는 이유에서이다. 한문교과를 아예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학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교편을 잡고 한문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 “한문을 왜 배워야합니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게 되었고, 그러한 질문에 교사는 “어떻게 답을 해야 가장 현명한 것인가” 라는 고민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한문교과에 속한 여러 장르 가운데에서도 특히 ‘經書’ 영역의 수업실태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현재 제도권 내에서의 중·고등학교 한문수업 중, ‘경서’ 단원은 거의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혹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경서의 교수학습활동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많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經書’교육은 ‘漢詩’나 ‘散文’과 같은 한문교

과의 다른 장르에 비해 한정된 주제, 예를 들면 ‘勸善懲惡’이라든지 ‘孝道’ 또는 ‘正義의 실천’과 같은 고리타분하고 진부한 사상만을 다루며, 이른바 당위성 성격이 강한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선입견이 강하게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경서라는 장르는 학습자들에게 수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따분하고 지루한 장르로 치부되기 쉽다. 또한 그 내용과 주제의 난이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아 교사조차도 가르치기 꺼려하는 영역으로 인지되곤 한다. 이러한 이유로 도외시되는 경서 단원은 중고교 한문 교과서에서도 거의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기 내에 수업계획에 따라 온전히 다루어지기도 벅찬 현실이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서교육은 한문교과에서 절대 경시되어질 수 없으며, 또 경시되어서도 안 되는 가치 있는 영역임에 분명하다. 경서교육의 범위에는 四書五經과 같은 儒家思想에 뿌리를 둔 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학교현장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유가의 경전은 『論語』, 『孟子』, 『大學』, 『中庸』의 四書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예로부터 경전의 공부에 ‘四書’로부터 시작되었을 정도로 유가경전의 기본 바탕이 되는 책이기 때문이다. 오래도록 만인에게 회자되며 칭송받아온 四書의 無窮無盡한 가치 중에서도 ‘교육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서는 五常과 五倫을 강조하는 윤리사상에 根底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서교육은 아직 윤리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을 疾風怒濤의 청소년들에게 先賢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人性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sup>2)</sup> 현 시대는 ‘밥상머리 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와 자식 間의 세대 공감의 형성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회에서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이 깊어져 敬老孝親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또한 철저한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기 심이 팽배해진 현실 속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부가가치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은 곧 한문교육 내에서의 經書(四書)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서’는 개인의 우월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타인을 지배하는 등, 愚劣의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共存의 生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추구한 휴머니티의 유교사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바이블이기 때문이다.<sup>3)</sup>

---

1)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II장 말미에서 살펴볼 수 있다.  
 2) 사서의 학습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건전한 가치관’ 및 ‘바람직한 인성’의 범위는 사실 매우 넓다. ‘仁義, 忠信, 孝, 禮’ 등이 물론 사서의 핵심이 되는 가치이긴 하나, 그동안 경서교육이 오직 저러한 가치관만을 강조하였기에 따분하고 현실성 없는 학습영역이라는 선입견이 생긴 것이다. 사실 사서경문 속에서 ‘利他的인 마음, 배려, 양심, 정직성, 인간관계의 조화 추구, 가족에 대한 사랑, 약자에 대한 보호’와 같이 현실에서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관 또한 얼마든지 추출할 수 있다. 진부함을 탈피하고, 경문 안에서 ‘새로운’, ‘현실과 맞닿은’ 가치관과 인성을 뽑아내는 것이 현재 한문교육에서의 중요한 과제이다.  
 3) 김용재, 「유교 경전교육의 필요성과 새로운 교육방법론 모색」, 『유교사상연구』 22집, 한국유교학회, 2005, 345면.

둘째, 동아시아 인문주의의 원형이 된 공자의 사상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는 사서는 문화교육의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세계는 문명의 강대국으로부터 문화의 선진국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이 가져온 현실에서 인간의 정서와 정감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기업과 국가로부터 고조되고 있는 형국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약 500여 년 동안 세계를 제패하였던 서구 과학문명群의 여러 선진국들은 “휴머니티의 인간愛” 정신의 最古이자 最高의 문명群으로 동아시아 유교(한자)문화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양사상과 동양문화는 유례없는 관심과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급부상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 가운데 동양의 정신 문화유산의 가치가 집약되어 있는 유가사상의 寶庫 四書敎育은 동아시아 전체가 공유하여 온 바이블로서 오랜 기간 漢字文化圈의 중심 코드 역할을 해왔다.<sup>4)</sup> 전통문화 측면에 있어서는 또 어떤가?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四書는 과거 시험의 기본 과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文·史·哲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四書를 도외시하고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였다.<sup>5)</sup>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문敎育에서의 경서(사서) 敎育은 동아시아의 문화를 넘어 세계 문화유산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성과 독창성, 그리고 아름다운 가치를 선도해낼 수 있는 인문敎育의 밑바탕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끝으로, 미시적으로 볼 때 四書를 가르친다는 것은 한문敎育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주춧돌 공사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견할 수 있다. 근대敎育의 출발점 상에 섰을 때에도, 한문을 처음으로 敎育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經書’로부터 시작해오곤 하였다. 그 아무리 珠玉과 같은 ‘漢詩’와 名文과 같은 ‘散文’類가 있다하더라도, 이보다 儒家의 經書인 四書를 첫 敎育과정으로 일임해 놓았던 이유는 아마도 인간으로서의 올곧은 ‘人性’이 제대로 다져진 이후에야 비로소 ‘知識’을 향유해야 한다는 믿음이 전제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연구자는 이와 같이 귀중한 經書(四書)敎育의 가치를 전제하고, 現 한문敎育의 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로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하드웨어를 토대로 한 소프트웨어의 변화, 곧 교수자료를 토대로 하여 사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수학습지도법을 제시함으로써,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한문수업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시도를 꾀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러면 본 논고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의식을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제기하기로 한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四書經文은 ‘진부하다’, ‘구식이다’, ‘어렵다’는 선입견이 몹시 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고교 한문敎과서에서도 경서(사서)는 거의 후반부에 배치되어 수업

4) 신덕수, 「경전敎育의 지향성 탐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3, 37면.

5) 임동석, 『四書講讀』, 동서문화사, 2009.

에서 다루어지지도 못하는 경우가 不知其數이다. 한문 문장은 대개 그 풀이와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 가르치기 쉬운 법인데, 경서와 같은 思想類 散文은 단순 직역과 풀이만으로는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곧 학습자들에게 한문에서의 다른 장르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사고력과 이해력을 요한다는 의식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사서경문은 현대적 공감이가 떨어지는 구시대적이며 진부한 문장이라고 여겨지기 쉽다. 따라서 독해가 수월하고 주제가 명확한 문장들을 뽑아 교과서에 수록하고, 이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가르쳐야만 사서의 선입견 및 교과서 내에서의 배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중고교 한문교과서 내에 수록되어 있는 경서(사서)의 글감들에 대하여 다양한 프리즘을 통해 분석 작업을 선행할 것이다.

둘째, 四書를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즉 이 방면에서의 교수학습 지도법의 개발이 관건이다. 漢文科 교육과정 내에서 교수·학습방법이 내용 체계의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서술된 내용들이 과연 다양한 한문 장르를 소화해 내기에 완벽할 정도로 매치되어 있느냐는 점이다. 따라서 「漢文科 教育課程」의 교수·학습방법 가운데 “四書 經文”을 가르치기에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 무엇인지를 미리 선별하여 본 후,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교수법을 본고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현재 「漢文科 教育課程」에서 밝혀놓은 다양한 교수법 가운데, 四書를 가르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는 ‘토론학습법’, ‘역할놀이 학습법’, ‘웹기반 중심 학습법’, ‘문제 중심 학습법’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수·학습법을 중심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더욱더 구체적인 교수법을 궁리하여 밝히는 것이 본고의 연구결과가 될 것이다. 또 굳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법이 아닐지라도, 진로에 대한 정보와 결단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있어 한문교육을 통해 자기의 비전과 직업관, 또는 직업윤리로서의 관계론적 패러다임을 열어주고자 하는 방안들을 교수·학습법으로 제시할 것이다.

물질만능, 경쟁위주의 풍조가 오래도록 지속됨에 따라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사회’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집단’이 아니라, 그저 ‘치열한 경쟁에서 내가 남을 이겨야만 생존할 수 있으며 또 살아남기 위해 성공을 쟁취해야만 전쟁터’가 바로 사회라는 인식으로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냉소적인 삶의 태도와 획일화된 사고가 사회를 더 각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들에게 디지털시대가 주는 역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통신매체가 끊임없이 발전되고 보급되면서 현대인이 아침에 눈을 떠 하루의 시작을 함께하는 것이 다름 아닌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미디어와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유해정보와 반인륜적인 성향의 사이트가 활개를 치며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에 한문교육, 경전교육은 그것의 가치와 교육의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그러나 한문과의 여러 영역 중 경전에 관한 교수·학습법에 대한 연구는 현저히 적으므로, 효과적인 경전 교수·학습법이란 무엇인지에 관하여 연구자들의 진지한 성찰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볼 때, 과연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경서교육”을 통하여 무엇을 성취해내고자 함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四書 經文을 조사하고, 교과서 내의 경서 단원의 현황을 여러 층위로 나누어 분석하며, 漢文科 교수자료의 실재를 보여주하고자 한다. 셋째, 사서 학습을 통해 전인적 문화인을 지향하는 한문교육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학습자들에게 비판적 성찰을 유도하며 창의·인성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이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의 효과적이며 실용적인 漢文科 교수학습법을 다양하게 제시해보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검토

경서의 교수학습지도법을 놓고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조사해보면 漢文教育界가 현 교육상황에 대해 얼마나 깊게 고민하며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자 연구하고 있는지를 절감할 수 있다.

김용재의 「儒教 經典教育의 필요성과 새로운 교육방법론 모색」<sup>6)</sup>에서는 유교사상과 경전교육 관련 내용들을 C-(Cyber)세대들에게 좀 더 쉽고 흥미롭게 다가가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그는 21세기 미래 인류사회의 코드[code]가 서로의 조화와 공존을 약속하는 儒家의 相補相成 철학이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活語인 한자를 통하여 전통 문화와 사상을 접근하는 경전교육은 그 효과적 측면에서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마인드를 잉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C-세대들에게 이미 친숙해 있는 매체들을 활용한 경전교육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재미있는 화보나 애니메이션, 옴니버스식의 수업 구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미래학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전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부분<sup>7)</sup>에 깊이 동조할 수 있었으며, 매체를 활용한 수업 구성을 제시한 점 또한 참신하고 의미 있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의 개발은 교육 콘텐츠 개발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언제쯤 개발되어 보편적인 활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그의 또 다른 논의인 「중·고교 한문교과서에서의 ‘經書’ 교육에 관한 발전적 제언」<sup>8)</sup>은 보다

6) 김용재, 앞의 논문.

7) 김용재, 위의 논문, 346-350면 참조.

교재론적인 관점에서 경서교육에서의 문제점과 지향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간행된 중·고교 한문교과서 內 수록된 글감들을 여러 층위로 분석한 후 그 타당성을 진단하였다. 아울러 경서교육을 위한 제언으로 단원의 딱딱한 구성과 체제의 변화, 時宜性和 융통성 있는 주제의 글감 선정, 글감의 난이도 조절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생들에게 훈고·훈석의 다양성을 보여줌으로써 창의적인 발상과 흥미로운 해석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의<sup>9)</sup>는 주목해볼만 하다.

원윤숙의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보이는 四書 經文의 내용과 효율적 지도방안」<sup>10)</sup>에서는 유학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이해를 바탕으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간행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10종과 『漢文古典』 교과서 1종을 분석하고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해냈다.<sup>11)</sup> 또한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경전교육의 기준을 설정<sup>12)</sup>하고 효율적인 경전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과서와 지도서에 본문이해자료가 풍부해야 한다는 논의와 경문을 수록한 단원의 주제가 명확해야 한다는 논의<sup>13)</sup>는 교과서를 개발할 때 보완해야 하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사료된다.

최일순의 「토론과 논술을 활용한 한문과 교육방법 연구: 『孟子』 출전 본문을 중심으로」<sup>14)</sup>에서는 『孟子』가 토론과 논술이 활용되기에 적절한 교재임을 규명하고,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孟子』 출전 원문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王道’와 ‘霸道’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토론과 논술을 활용한 수업 모형을 설계한 후, 실제 교실 수업에 적용시켜 질적 연구를 수행하며 토론과 논술을 활용한 수업의 의의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다.<sup>15)</sup> 설계한 수업모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보는 연구를 통하여 토론과 논술 수업이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출해낸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학습자들이 작성한 논술문을 관찰하는 것이 큰 교육적 의미가 있다는 분석 또한 주목할 만하다.

신덕수의 「경전교육의 지향성 탐구」<sup>16)</sup>는 경전교육의 가치를 ‘文化教育 可能性’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이다. 한문과 내의 문화교육의 위상과 교과서에 문화교육이 구현되고 있는 양상을 분석하여 현행 문화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문화교육 제재로서 적절한 경전의 내용을

8) 김용재, 「중·고교 한문교과서에서의 ‘經書’ 교육에 관한 발전적 제언」, 『한문고전연구』 제27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9) 김용재, 앞의 논문, 300-301면 참조.

10) 원윤숙,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보이는 사서경문의 내용과 효율적 지도방안」,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04.

11) 원윤숙, 위의 논문, 57-58면 참조.

12) 원윤숙, 위의 논문, 58면 참조.

13) 원윤숙, 위의 논문, 54-56면 참조.

14) 최일순, 「토론과 논술을 활용한 한문과 교육방법 연구: 『孟子』 출전 본문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5) 최일순, 위의 논문, 85-86면 참조.

16) 신덕수, 「경전교육의 지향성 탐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3.

모색하고, 이로써 도출된 경전의 제재를 활용하여 하나의 대단원을 구성하였다. 그는 단원 구성의 방식으로 ‘주제 중심 통합’ 단원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대단원과 소단원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소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전을 통한 문화교육 가능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문화교육의 제재를 경서별로 도출해낸 점은 가치 있는 작업이나, 그가 구성한 대단원을 기존의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거나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문화영역 교수학습법’을 찾기 어려워 아쉬움이 남는다.

김은주의 「고등학교 『漢文 I』 교과서 內 ‘經書’·‘諸子書’ 영역 분석: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sup>17)</sup>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간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5종에 실린 ‘경서’와 ‘제자서’ 단원이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격을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는가를 여러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어서 ‘경서’와 ‘제자서’ 단원에서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독해’, ‘논리논술’, ‘문화읽기자료’, ‘자기주도학습 평가’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에 따라 교과서가 바람직한 교수방향을 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제 수업에서 활용되는 교수법을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교과서가 구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이므로 교육자료 개발자나 교과서 분석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참고해 볼만한 연구이다.

이상의 연구들은 경전 교육의 방향성과 지향성을 모색함으로써 한문교과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키고 활발한 논의의 場을 마련하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경전 교육에 대하여 교재론적 접근이 많은 것에 비해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수업 현장에서 교사가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사용할만한 교수학습법을 제시한 연구는 현저하게 적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고는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sup>18)</sup>과 이에 따라 출간된 교과서의 사서 단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문과 교수자료의 실태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수업 현장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모색하는 것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분석하고 교수학습활동을 제안하기에 앞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17) 김은주, 「고등학교 『漢文 I』 교과서 內 ‘經書’·‘諸子書’ 영역 분석: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8) 교육과학기술부는 2014년 9월 24일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 9월에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을 고시한 상태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제적인 적용은 중·고등학교에서 2018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본고가 다룬 교과서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간된 것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행중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다루었음을 밝히둔다.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고는 현행교과서의 경서 교수·학습영역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침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의 고찰을 일차적인 연구문제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경서교육이 어느 정도의 필요성과 비중을 선점하게 되었는지를 체감하려면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함께 제시하고 변화된 부분에 주목하여 비교해본다.

아래의 표를 보면 2007 교육과정에서는 ‘한문’이라는 대영역을 <읽기>, <이해>, <문화>로 삼분하였고, 단문, 산문으로 한문 텍스트를 구분하여 읽고 풀이하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확연히 바꾸어 ‘독해’라는 대영역을 <읽기>, <이해>로 양분하였고 단문, 산문이라는 텍스트 구별을 없앴으며, 이전에는 중영역에 포함되어 있던 ‘문화’를 대영역으로 분리하였다. 이는 교육과정 자체가 漢文科 교육에 있어서 ‘문화교육’의 측면을 매우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전의 텍스트가 한문 독해를 학습할 때 기본이 되는 모범적인 글감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과, 유가의 경문은 한자문화권의 공통된 사상이 깃든 문장으로서 이를 통해 다방면의 문화 교육을 이룩해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변화는 경서교육이 중시되어야 하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표> 1-1 2007 개정 교육과정 한문영역 내용체계(단문·산문)<sup>19)</sup>

영역	내용	
한문	읽기	단문의 읽기와 풀이 산문의 읽기와 풀이
	이해	단문의 이해와 감상 산문의 이해와 감상
	문화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표> 1-2 2009 개정 교육과정 독해·문화영역 내용체계

영역	내용	
독해	읽기	소리 내어 읽기
		뚫어 읽기
	이해	풀이하기
		이해하기
문화	한자 문화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언어생활과 한자문화	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

19) <읽기>와 <이해>의 소영역에는 각각 ‘한시의 읽기와 풀이’, ‘한시의 이해와 감상’이 존재하나, 본고는 경서를 다루므로, 경서와 관련된 소영역인 ‘단문’, ‘산문’의 내용만을 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영역에 <언어생활과 한자문화>라는 영역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역시 경서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 가운데는 경서의 哲理的 思想 또는 文化를 배경으로 생성된 言語와 語彙가 不知其數이다.<sup>20)</sup> 이러한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학습하고, 어휘에 담긴 의미와 사상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경서교육이 효과적일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교육과정의 ‘한문지식’ 영역 중 <어휘>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3 2007 개정 교육과정 한문지식영역 내용체계(어휘)

영역	내용	
한문지식	어휘	단어의 형성
		단어의 갈래
		어휘와 의미

<표> 1-4 2009 개정 교육과정 한문지식영역 내용체계(어휘)

영역	내용	
한문지식	어휘	단어의 짜임
		단어의 갈래
		성어의 의미

위에 제시된 내용에서 유의할 점은 2007 교육과정의 ‘어휘와 의미’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어의 의미’로 바뀌었다는 점이다.<sup>21)</sup> ‘어휘’라는 용어가 ‘성어’로 바뀌었다는 것은 경서교육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어는 고전의 故事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는데, 『史記』와 같은 역사산문類에 가장 많지만, 四書와 같은 철리산문類에도 적지 않은 典據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22)</sup> 특히 四書에 根底를 두고 있는 성어는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춘 매우 고차원적·고급 어휘이며, 그 내면에 實事나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가 내재

20) 예를 들어, ‘이단(異端)’은 기독교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이지만, 원래 『論語』 「爲政-16」 “子曰 攻乎異端 斯害也已”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교 이외의 다른 학문’을 뜻하는 단어였다. 근대화 시절 기독교의 ‘Heresy’를 번역할 때 ‘이단’을 가져다 붙인 것이다. 또한 ‘고독(孤獨)’은 원래 『孟子』 「梁惠王下」에서 ‘천하에 곤궁하여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환과고독(鰥寡孤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 환(鰥)은 홀아비, 과(寡)는 과부, 고(孤)는 고아, 독(獨)은 독거노인을 뜻한다. 여기서 ‘고(孤)’와 ‘독(獨)’을 따와 ‘고독(孤獨)’이 만들어진 것이다.

21) 2007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어휘와 의미’의 영역별 내용에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성어의 의미’가 직접 내용체계에 삽입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에 주목하여, 漢文科에서 成語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바라보았다.

22) 김용재, 「四書에서 유래하는 成語에 대한 중·고교 ‘漢文科’에서의 효율적인 교수법」, 『교육연구』 제 60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4, 57면.

되어 있고, 그 역사성과 대중성 그리고 인지도 차원에서 볼 때에도 높은 수준의 의사 전달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sup>23)</sup> 따라서 성어 학습은 경서교육과 긴밀히 연결시킬 수 있다. 이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와 그 특징을 경서교육 측면과 결부시켜 알아보았다.

이제 각 장별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장 1절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경서 영역 관련 지침을 살펴보고, 현행 교육과정이 추구하고 있는 경서교육의 방향을 알아본다. 2절에서는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라 출간된 중학교 한문교과서 14종과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10종에 수록된 四書 경문을 모두 조사하여 어떠한 글감이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본다. 3절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경문들을 ‘출전 빈도’, ‘학습목표’, ‘글감’, ‘교수·학습활동’의 네 가지 층위로 나누어 세밀히 분석하는데, 특히 ‘교수·학습활동’ 층위를 가장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교과서에 나타나는 사서 단원 교수학습의 형태와 현황을 분석하여 한문과 교수자료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Ⅲ장과 Ⅳ장에서는 본고의 핵심이 되는 효과적인 사서경문 교수학습법을 제언하기로 한다. Ⅲ장의 1절과 2절에서는 ‘他교과와의 연계 가능한 교수법’, ‘문화교육 성취 지향의 교수법’을 바탕으로 四書가 가진 정의적 특성과 실용성을 살려 全人的 文化人을 양성하는 교수학습법을 제시한다. Ⅳ장의 1절과 2절에서는 ‘비판·논리 및 사고력 증진의 교수법’, ‘창의·인성 및 소통능력 배양의 교수학습’을 토대로 사서와 같은 사상류 산문의 특징을 살려 학생들의 비판적 성찰을 유도하고, 한문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창의·인성교육의 형태를 제시해 본다. 이 때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법을 도출함과 동시에 그 예시를 교과서의 ‘교수·학습활동’에서 찾아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본고에서 제언하는 교수법이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영역별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특히 四書를 중심으로 漢文科에서의 효과적인 교수·학습지도법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論語』, 『孟子』, 『大學』, 『中庸』의 문장을 다루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

23) 김용재, 앞의 논문, 61면.

## Ⅱ. 교과서 內 ‘經書’ 단위 분석

본고가 설정한 궁극적인 연구목적은 교사가 수업 안에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서경문을 학습시킬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수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수·학습 자료인 교과서를 분석해보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라 출간하여 채택된 중학교 한문교과서 14종과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10종에 수록된 사서경문의 수록 현황을 제시하고, 그 구성단위를 여러 층위에 근거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교육과정에 나타난 ‘經書教育’의 방향성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서의 四書 영역을 분석하기에 앞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9 개정 漢文科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경서교육과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sup>1)</sup>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토대로 만들어져야 하므로 교과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침이 바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서교육 관련 지침을 분석해보며, 경서교육이 한문교과 안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해보는 작업은 근본 과정이 된다.

먼저 살펴볼 것은 교육과정 內에서 ‘경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다. 이전 2007 교육과정의 내용에서는 ‘단문’의 이해영역에 경전을 뭉뚱그려 서술하고, 산문의 문체를 설명할 때 說理文에 속하는 ‘유가의 경전’을 잠깐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sup>2)</sup> 이에 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에서는 경전의 정의와 그 학습방법, 성취내용을 명확하게 언급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다.

#### <표> II-1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해>영역에 기술된 경서 관련 내용<sup>3)</sup>

(2) 유가 경전과 제자백가의 글을 읽고 사상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장편의 저서(著書)를 통하여 자신의 철학이나 사상을 천명하는 유가(儒家)의 경전(經典)이나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저술들은 한문 학습에서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한자문화권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기본이 되는 글들이다. 이 저술들을 읽을 때에는, 그 중에서도 비교적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저명한 글들을 골라서 읽어보되, 글에 담긴 사상이나 통찰의 특징이 사상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고,

- 1) 본고는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內에서도 중학교 『漢文』과 고등학교 『漢文 I』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 2)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3 한문』, 교육과학기술부, 26-27면 참조.
- 3) 교육과학기술부(2011)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24면.

자신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가치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리를 밝히거나 시비를 가리는 글을 읽고 주장의 근거를 판단할 수 있다.

사리를 밝히거나 시비를 가리는 글은 설리문(說理文)을 말한다. 설리문에는 각종 사상류 산문을 비롯하여 논(論), 변(辨), 설(說), 원(原) 등이 있다. ‘사상류 산문’은 유가(儒家)의 경전(經典)이나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철학적 저술 등과 같이 장편의 저서를 통하여 자신의 철학이나 사상을 천명하는 글을 말한다. … 이들 사리를 밝히거나 시비를 가리는 글을 읽을 때에는, 글에 담긴 주장과 근거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해 보고, 자신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가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기술된 (2)의 내용 중 유가 경전에 대해 “한문 학습에서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한자문화권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기본이 되는 글”이라고 명시한 것은, 경서교육을 학습효과 측면에서 정의내린 것이다. 이 정의를 통해 보면, 경서의 문장이 한자의 음과 뜻, 한자의 쓰임, 한문 문법, 문장의 구조·수사와 같은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및 한문독해 학습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모범이 되는 문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서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사상과 문화가 깃든 글이므로, 경서학습을 통해 한자문화권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틀을 제공함으로써 문화교육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저명한 글들을 골라 읽어보되”라고 서술함으로써 글감선정에 대한 지향점까지 제시하고 있다.

또한 (2)와 (3)에서 글에 담긴 사상이나 특징이 사상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고, 글에 담긴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지를 판단해 보며, “자신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가치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통된 방향성을 기술하였다. 이는 기존에 경서교육을 통해 강조되던 ‘선인들의 지혜 이해’, ‘바람직한 인성의 함양’ 차원을 뛰어넘어 경서를 통하여 수업 안에서 가치토론 기회의 제공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의 증진을 이룩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대목이므로 큰 의의가 있다.

다음은 교육과정 내 문화영역에 기술된 내용이다.

#### <표> II-2 2009 개정 교육과정 <문화>영역에 기술된 내용

##### <한자 문화>

(1) 선인들의 지혜를 내면화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파악하여, 긍지와 주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한문 기록 속에는 현대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간 소외, 물질 만능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환경 문제 등)에서 초래된 가치관의 혼란 및 인간성의 상실을 치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한문을 학습할 때에는 학습자의 감각에 맞으면서도 실천 가능한 내용을 정선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문 학습을 통하여 전통문화의 가치를 바르게 파악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주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

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1) 한자 문화에서 유래한 한자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언어생활에서 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  
한자 어휘 가운데는 역사 속의 특수한 사건, 인물, 이야기나 한문 전적에서 유래한 어휘가 많다. 이러한 한자 어휘는 한자의 음, 뜻과 함께 그 내력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건, 이야기, 경전, 고문헌 등 한자 문화에서 유래한 한자 어휘의 뜻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개인적 차원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언어생활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한자문화’에 기술된 내용 중 “현대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초래된 가치관의 혼란 및 인간성의 상실을 치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문 자료가 바로 경전이다. 경전의 문장 안에는 현실의 심각한 사회문제와 맞닥뜨려 학생들에게 반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 『論語』의 “德不孤, 必有隣.”, “寬則得衆”과 같은 문장을 ‘인간소외’ 문제와 연결시켜 비판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孟子』 「梁惠王 上」 1장에서 ‘利’보다 ‘仁義’를 추구하는 맹자의 가치관을 통해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세태를 반성할 수 있으며, 『논어』의 “殺身成仁”을 통해 ‘이기주의’에 물든 인간성을 치유하고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서교육은 선인들의 인성과 지혜가 담긴 명언을 통해 현 세태와 자신 스스로를 되돌아보아 반성하게끔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생활과 한자문화’의 내용에서는 “사건, 이야기, 경전, 고문헌 등 한자 문화에서 유래한 한자 어휘”라고 언급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경전에서 유래한 한자 어휘는 참으로 많다. 一 例로 , 우리 문화에서 나이 40세를 ‘不惑’이라고 부르는데, ‘不惑’은 어린 학생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해본 단어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논어』에서 유래한 것이며, 40세 이외에도 여러 나이를 지칭하는 어휘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자 어휘들을 수업에서 다양하게 접한다면, 학생들은 익숙하게 접해왔으나 잘 알지 못했던 어휘의 뜻과 유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한층 더 고차원적인 언어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경서교육의 방향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비판적 이해와 수용’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면 경서가 가진 여러 교육적 가치와 지향점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해 놓은 부분을 찾기 어렵다. 결국 교육과정 내에서만 경전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찾으려는 것은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경서교육을 통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고찰이 필요하다.

## 2.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 내 四書 經文 수록 현황

앞서 분석한 교육과정 內 경서관련 지침을 토대로 하여, 본 절에서는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 표는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게 될 한문교과서의 목록을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누어 출판사의 ‘가나다’ 순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후부터 출판사의 명칭은 편의상 略號를 사용하도록 한다.

〈표〉 II-3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 교과서』 목록과 약호

기호	출판사	저자
㉠	교학사	김언종, 조영호, 김혜진, 김주화, 임재범
㉡	다락원	송재소, 조병덕, 배기표, 김호기, 변유경
㉢	대교	심경호, 송혁기, 송태명, 송성립
㉣	대학서림	이병주, 박영숙, 윤미정
㉤	동화사	김혈조, 송병렬, 임완혁, 정은진, 김봉남, 김경자, 서원진, 김인서
㉥	두산동아	박성규, 윤재민, 정동운, 장진아
㉦	디딤돌	이상진, 최상근, 이지곤
㉧	미래엔	안재철, 원용석, 김은경, 김동규, 임동현, 홍은정, 이우경
㉨	비상교육	이동재, 김병철, 최종찬, 허연구, 정효영
㉩	성림출판사	송영일, 엄선용, 심재경, 이규원
㉪	와이비엠	김용재, 류준필, 류준경, 권오순
㉫	장원교육	진재교, 신영주, 최돈욱, 최호영
㉬	천재교과서	김영주, 주석준, 이도학, 최중형, 이용훈, 라미애, 박희은
㉭	천재교육	안대회, 안기봉, 황성하, 이한신, 장현곤, 서문기, 주성민

〈표〉 II-4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목록과 약호

기호	출판사	저자
㉮	교학사	임완혁, 조영호, 박영숙, 임재범
㉯	금성출판사	신태영, 김태주, 장운혁, 김성수
㉺	다락원	송재소, 조병덕, 배기표, 김호기, 변유경
㉻	대학서림	신표섭, 이윤찬, 성진우, 김준영, 홍인기
㉼	동아출판	박성규, 윤재민, 백광호, 이승현, 이현주
㉽	동화사	이상진, 최상근, 이지곤, 원주용, 김인서
㉾	미래엔	심경호, 송혁기, 송태명, 이우경, 정미선
㊀	와이비엠	김용재, 류준경, 이덕호, 유지현, 김성호, 신가해
㊁	장원교육	진재교, 신영주, 최돈욱, 김명수
㊂	천재교육	안대회, 안기봉, 황성하, 이한신, 장현곤, 서문기, 주성민

각 출판사 別 중학교 한문교과서 內 사서경문의 수록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5〉 중학교 한문교과서(14종) 內 사서경문 수록 현황

書名	四書 經文	교과서
論語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 IV-12과
	知之者는 不如好之者하고 好之者는 不如樂之者니라.	㉠: IV-12과
	里仁爲美.	㉠: X-32과
	君子는 求諸己하고 小人은 求諸人이니라.	㉠: XII-36과
	君子는 周而不比요 小人은 比而不周니라.	㉠: XII-36과
	君子는 成人之美하고 不成人之惡이나 小人은 反是니라.	㉠: XII-36과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	㉡: IV-12과
	見利思義하고 見危授命이라.	㉡: IX-31과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 IX-31과
	知者는 樂水하고 仁者는 樂山이라.	㉢: III-12과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 IV-15과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	㉢: IV-17과
	吾는 日三省吾身이라.	㉢: V-18과
	不義而富且貴는 於我에 如浮雲이니라.	㉢: V-19과
	見利思義하고 見危授命이니라.	㉢: V-20과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 VI-21과
	知之者는 不如好之者요 好之者는 不如樂之者니라.	㉣: VI-21과
	食無求飽하고 居無求安하니라.	㉣: VI-22과
	士志於道而恥惡衣惡食者는 未足與議也니라.	㉣: VI-22과
	三人行에 必有我師焉이라.	㉣: VII-27과
	知者는 樂水하고 仁者는 樂山하니라.	㉣: VIII-29과
	知者는 樂水하고 仁者는 樂山이니라.	㉤: II-5과
	溫故而知新이면 可以謂師矣니라.	㉤: IV-10과
	志士仁人은 無求生以害仁이요 有殺身以成仁이니라.	㉤: IV-10과
	三人行이면 必有我師焉이니라.	㉤: VI-19과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	㉤: III-9과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 V-14과
	父母在 어시든 不遠遊하며 遊必有方이니라.	㉤: V-15과
	仲弓이 問仁한대 (중략) 子曰 “己所不欲을 勿施於人이니라.”	㉤: VIII-26과
	夫仁者는 己欲立而立人하며 己欲達而達人이니라.	㉤: VIII-26과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	㉥: IV-11과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 IX-31과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	㉥: II-5과
	學如不及이요 猶恐失之니라.	㉥: VII-24과
	溫故而知新이면 可以謂師矣니라.	㉥: VII-24과
	歲寒然後에 知松柏之後彫也니라.	㉥: VII-24과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朱子注] 學之爲言은 效也라. (중략) 習은 鳥數飛也라. 說은 喜意也라.	㉦: IX-32과	
知者는 樂水하고 仁者는 樂山이니라.	㉦: II-7과	
孔子曰 益者三友요 損者三友니라.	㉦: IV-13과	
吾는 日三省吾身하니 ‘爲人謀而不忠乎아?’와 ‘與朋友交而不信乎아?’와 ‘傳不習乎아?’니라.	㉦: IX-36과	
見賢思齊焉하며 見不賢而內自省也니라.	㉦: II-8과	

	君子는 務本이니 本立而道生하나니 孝弟也者는 其爲仁之本與인지.	㉟:VII-26과
	今之孝者는 是謂能養이니 至於犬馬하여도 皆能有養이니 不敬이면 何以別乎리오?	㉟:VII-26과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㉞:XI-31과
孟子	人性之善也는 猶水之就下也니라.	㉞:IX-31과
	天時不如地利요 地利不如人和니라.	㉞:IX-31과
	愛人者는 人恒愛之하고 敬人者는 人恒敬之니라.	㉞:IX-31과
	以五十步로 笑百步면 則何如하니잇고?	㉞:III-13과
	責善은 朋友之道也라.	㉞:IV-14과
	愛人者는 人恒愛之니라.	㉞:IV-17과
	行有不得者어든 皆反求諸己니라.	㉞:V-18과
	孟子曰 仁은 人心也요 義는 人路也니라. 舍其路而不由하며 放其心而不知求하나니 哀哉라. 人有鷄犬放이면 卽知求之하되 有放心而不知求하나니 學問之道는 無他라. 求其放心而已矣니라.	㉞:IX-32과
	“(…중략) 以五十步로 笑百步면 則何如하니잇고?” 曰 “不可하니 直不百步耳언정 是亦走也니라.” 曰 “王如知此면 則無望民之多於隣國也하소서.	㉞:VII-28과
	老吾老하여 以及人之老하며 幼吾幼하여 以及人之幼하라.	㉞:V-18과
	飲食之人은 則人賤之矣라.	㉞:IV-22과
	小는 固不可以敵大요, 寡는 固不可以敵衆이요, 弱은 固不可以敵強이니라.	㉞:IV-12과
	“以五十步로 笑百步면 則何如잇가?” “不可하니 直不百步耳언정 是亦走也니라.”	㉞:IV-13과
	大人者는 不失其赤子之心者也니라.	㉞:VI-17과
	仁은 人心也요, 義는 人路也니라. 舍其路而不由하며 放其心而不知求하나니 哀哉라!	㉞:VI-20과
	愛人者는 人恒愛之하고 敬人者는 人恒敬之니라.	㉞:V-14과
	人有鷄犬放이면 卽知求之하되 有放心而不知求하나니 學問之道는 無他라. 求其放心而已矣니라.	㉞:IX-31과
	愛人者는 人恒愛之니라.	㉞:II-5과
	君子有三樂하니 而王天下는 不與存焉이니라.	㉞:VII-25과
	其爲氣也는 至大至剛하니 以直養而無害면 則塞于天地之間이라.	㉞:VII-25과
	“叟不遠千里而來하시니 亦將有以利吾國乎잇가?” “王은 何必曰利잇고 亦有仁義而已矣니라.”	㉞:IX-33과
	愛人者는 人恒愛之하고 敬人者는 人恒敬之니라.	㉞:IV-16과
	仁은 人心也요 義는 人路也라. 舍其路而不由하며 放其心而不知求하나니 哀哉라. (중략) 學問之道는 無他요 求其放心而已矣니라.	㉞:IX-36과
未有仁而遺其親者也며 未有義而後其君者也니라.	㉞:VII-27과	
仁은 人心也요 義는 人路也니라. 舍其路而不由하며 放其心而不知求하나니 哀哉라.	㉞:VII-27과	
地利不如人和라.	㉞:IV-12과	
仁은 人心也요 義는 人路也니라. 舍其路而不由하며 放其心而不知求하나니 哀哉라. 人有鷄犬放이면 卽知求之하되 有放心而不知求하나니 學問之道는 無他라. 求其放心而已矣니라.	㉞:XI-32과	
大學	欲修其身者는 先正其心이라.	㉞:IV-13과
	苟日新이어든 日日新하고 又日新하라.	㉞:II-7과
	富潤屋하고 德潤身이라.	㉞:V-19과
	心不在焉이면 視而不見하며 聽而不聞하며 食而不知其味니라.	㉞:VI-17과
	仁者는 以財發身하고, 不仁者는 以身發財니라.	㉞:V-14과
	心不在焉이면 視而不見하며 聽而不聞하며 食而不知其味니라.	㉞:VII-25과

中庸	人一能之어든 己百之하고 人十能之어든 己千之니라.	㉔: V-14과
	人一能之어든 己百之하며 人十能之어든 己千之니라.	㉑: IV-11과 ㉒: VI-21과
	喜怒哀樂之未發을 謂之中이요 發而皆中節을 謂之和니라.	㉓: VII-25과

각 출판사 별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내 사서경문의 수록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6〉 고등학교 한문교과서(10종) 내 사서경문 수록 현황

書名	四書 經文	교과서
論語	富與貴는 是人之所欲也나 不以其道得之어든 不處也하며 貧與賤은 是人之所惡也나 不以其道得之라도 不去也니라. 君子去仁이면 惡乎成名이리오?	㉔: IX-28과
	仁者는 己欲立而立人하며 己欲達而達人이니라.	㉔: IX-28과
	仁者는 不憂하고 知者는 不惑하고 勇者는 不懼니라.	㉔: IX-28과
	志士仁人은 無求生以害仁이요 有殺身以成仁이니라.	㉔: IX-28과
	君子는 食無求飽하며 居無求安하며 敏於事而慎於言이요 就有道而正焉이면 可謂好學也니라.	㉔: IX-28과
	父母之年은 不可不知也니, 一則以喜요, 一則以懼니라.	㉕: III-9과
	子曰: “巧言令色이 鮮矣仁이니라.”	㉕: VIII-22과
	子曰: “惟仁者야 能好人하며 能惡人이니라.”	㉕: VIII-22과
	顏淵이 問仁한대, 子曰: “克己復禮爲仁이니 一日克己復禮면 天下歸仁焉하니라. 爲仁由己니 而由人乎哉아?”	㉕: VIII-22과
	子曰: “君子는 食無求飽하며 居無求安하며 敏於事而慎於言이요, 就有道而正焉이면 可謂好學也니라.”	㉕: VIII-22과
	孔子曰: “君子有三戒하니, 少之時에는 血氣未定이라 戒之在色이요, 及其壯也하여는 血氣方剛이라 戒之在鬪요 及其老也에는 血氣既衰라 戒之在得이니라.”	㉕: VIII-22과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	㉕: III-7과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愠이면 不亦君子乎아?	㉕: VIII-21과
	知之者는 不如好之者요 好之者는 不如樂之者라.	㉕: VIII-21과
	三人行에 必有我師焉이니 擇其善者而從之요 其不善者而改之니라.	㉕: VIII-21과
	子曰 “參乎아! 吾道는 一以貫之니라.” 曾子曰 “唯라.” 子出커시늘 門人이 問曰 “何謂也잇고?” 曾子曰 “夫子之道는 忠恕而已矣시니라.”	㉕: VIII-21과
	欲速則不達하고 見小利則大事不成이니라.	㉕: II-3과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愠이면 不亦君子乎아.	㉕: VII-16과
	三人行에 必有我師焉이라. 擇其善者而從之요 其不善者而改之니라.	㉕: VII-16과
	躬自厚而薄責於人이면 則遠怨矣니라.	㉕: VII-16과
	己欲立而立人하고 己欲達而達人하라.	㉕: VII-16과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	㉕: VII-16과
	季康子가 問政於孔子한대, 孔子對曰: “政者는 正也니 子帥以正이면 孰敢不正이리오?”	㉕: III-8과
	衛靈公이 問陳於孔子한대, 孔子對曰: “俎豆之事는 則嘗聞之矣어니와 軍旅之事는 未之學也라.” 하시고, 明日에 遂行하시다.	㉕: IX-24과
	在陳絶量하니 從者病하여 莫能興이러니, 子路慍見曰: “君子亦有窮乎잇가?” 子曰: “君子固窮이니 小人은 窮斯濫矣니라.”	㉕: IX-24과
	顏淵問仁한대 子曰: “克己復禮爲仁이니 一日克己復禮면 天下歸仁焉하니라 爲仁	㉕: IX-25과

	由己니 而由人乎哉아?" 顏淵曰: "請問其目하노이다." 子曰: "非禮勿視하며 非禮勿聽하며 非禮勿言하며 非禮勿動이니라."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㉔: I-2과
	學而不思則罔하고 思而不學則殆니라.	㉔: VIII-19과
	不患人之不己知오 患不知人也니라.	㉔: VIII-19과
	君子는 周而不比하고 小人은 比而不周니라.	㉔: VIII-19과
	子貢이 問政한대 子曰: "足食이요 足兵이요 民信之矣니라." 子貢曰: "必不得已而去인댄 於斯三者에 何先이니잇고?" 曰: "去兵이니라." 子貢曰: "必不得已而去인댄 於斯二者에 何先이니잇고?" 曰: "去食이니라. 自古皆有死어니와 民無信不立이니라."	㉔: VIII-19과
	吾十有五而志於學하고 三十而立하고 四十而不惑하고 五十而知天命하고 六十而耳順하고 七十而從心所欲하되 不踰矩하니라.	㉔: II-4과
	知之者는 不如好之者요 好之者는 不如樂之者니라.	㉔: II-6과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朱子注] 學之爲言은 效也라. 習은 鳥數飛也니 學之不己를 如鳥數飛也라. 說은 喜意也라. 有朋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㉔: VIII-22과
	君子는 求諸己오 小人은 求諸人이라.	㉔: VIII-22과
	由아! 誨女知之乎인저. 知之爲知之요 不知爲不知가 是知也니라.	㉔: VIII-22과
	三人行에 必有我師焉이니 擇其善者而從之요 其不善者而改之니라.	㉔: VIII-22과
	敏於事하고 而慎於言이니라.	㉔: II-10과
	邦有道에 貧且賤焉이 恥也며 邦無道에 富且貴焉이 恥也니라.	㉔: VII-31과
	丘也聞하니 "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하며 不患貧而患不安이라." 하니라.	㉔: VII-31과
	子貢이 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잇가?" 하니 子曰 "其恕乎인저. 己所不欲을 勿施於人이라." 하니라.	㉔: VII-31과
	季康子가 問政於孔子한대 孔子가 對曰 "政者는 正也라. 子帥以正이면 孰敢不正 이리오." 하니라.	㉔: VII-31과
	知之者는 不如好之者요 好之者는 不如樂之者라.	㉔: III-8과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	㉔: VIII-21과
	孰謂微生高直고? 或乞醢焉이 어늘 乞諸其隣而與之로다.	㉔: VIII-21과
	君子는 惠而不費하며 勞而不怨하며 欲而不貪하며 泰而不驕하며 威而不猛이니라.	㉔: VIII-21과
	季康子患盜하여 問於孔子한대 孔子對曰: "苟子之不欲이면 雖賞之라도 不竊하리라."	㉔: VIII-21과
	子張學干祿한대 子曰: "多聞闕疑요 慎言其餘則寡尤며 多見闕殆요 慎行其餘則寡悔니 言寡尤하며 行寡悔면 祿在其中矣니라."	㉔: VIII-21과
孟子	夫人必自侮然後에 人侮之라.	㉔: II-5과
	居天下之廣居하며 立天下之正位하며 行天下之大道하여 得志하면 與民由之하고 不得志하면 獨行其道라. 富貴도 不能淫하며 貧賤도 不能移하며 威武도 不能屈하니 此之謂大丈夫니라.	㉔: IX-29과
	生亦我所欲也며 義亦我所欲也이나 二者를 不可得兼이면 舍生而取義者也하리라.	㉔: IX-29과
	我는 善養吾'浩然之氣'하노라. (중략) 其爲氣也가 至大至剛하니 以直養而無害면 則塞于天地之間이니라. 其爲氣也가 配義與道하니 無是면 餒也니라. 是集義所生者라.	㉔: IX-29과
	天時는 不如地利요 地利는 不如人和라.	㉔: III-10과
	無恒産而有恒心者는 惟士爲能어니와 若民則無恒産이면 因無恒心이니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를 無不爲己니 及陷於罪然後에 從而刑之면 是는 罔民也라. 焉有仁人在位하여 罔民을 而可爲也리오. 是故로 明君이 制民之産하되 必使仰足以事父母하며 俯足以畜妻子하여 樂歲에 終身飽하고 凶年에 免於死亡하니 然後驅而之善이라. 故로 民之從之也輕하니이다.	㉔: VIII-23과

	孟子見梁惠王하신대 王曰 “叟不遠千里而來하시니 亦將有以利吾國乎잇가?” 孟子對曰 “王은 何必曰利잇고? 亦有仁義而已矣나이다.”	㉔:VIII-22과
	無惻隱之心이면 非人也며 無羞惡之心이면 非人也며 無辭讓之心이면 非人也며 無是非之心이면 非人也니라. 惻隱之心은 仁之端也요 羞惡之心은 義之端也요 辭讓之心은 禮之端也요 是非之心은 知之端也니라.	㉔:VIII-22과
	“或百步而後止하며 或五十步而後止하여 以五十步로 笑百步면 則何如하니잇고?” 曰: “不可하니, 直不百步耳언정 是亦走也나이다.”	㉔: I - 2과
	無恒産而有恒心者는 惟士爲能이어니와 若民則無恒産이면 因無恒心이라.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를 無不爲己니 及陷於罪然後에 從而刑之면 是는 罔民也라. 焉有仁人在位하여 罔民을 而可爲也리오. 是故로 明君이 制民之産하되 必使仰足以事父母하며 俯足以畜妻子하여 樂歲에 終身飽하고 凶年에 免於死亡하나니 然後에 驅而之善이라. 故로 民之從之也輕하니이다.	㉔:VII-17과
	孟子曰: “(중략) 夫人必自侮然後에 人이 侮之하나니라. (중략) 太甲에 曰: ‘天作孽은 猶可違어니와 自作孽은 不可活이라.’하니라.”	㉔: III - 8과
	五畝之宅에 樹之以桑이면 五十者가 可以衣帛矣며, 鷄豚狗彘之畜을 無失其時면 七十者가 可以食肉矣며, 百畝之田을 勿奪其時면 八口之家가 可以無飢矣며, 謹庠序之教하여 申之以孝悌之義면 頒白者가 不負戴於道路矣리니, 七老者가 衣帛食肉하며 黎民이 不飢不寒이오 然而不王者는 未之有也나이다.	㉔: IX - 25과
	恭者는 不侮人이요 儉者는 不奪人이라.	㉔: II - 5과
	人性之善也는 猶水之就下也나 人無有不善이오 水無有不下니라. 今夫水를 搏而躍之면 可使過頰이요 激而行之면 可使在山이나 是豈水之性哉리오?	㉔: IX - 26과
	人性之善也가 猶水之就下也나 人無有不善하며 水無有不下니라. 今夫水를 搏而躍之면 可使過頰이며 激而行之면 可使在山이어니와 是豈水之性哉리오?	㉔:VIII-20과
	孟子謂齊宣王曰: “王之臣이 有託其妻子於其友而之楚遊者가 比其反也하여 則凍餒其妻子어든 則如之何잇고?” 王曰: “棄之나이다.” 曰: “士師不能治士어든 則如之何잇고?” 王曰: “已之나이다.” 曰: “四境之內不治어든 則如之何잇고?” 王이 顧左右而言他하시다.	㉔:VIII-23과
	孟子曰 “民爲貴하고 社稷次之하고 君爲輕이라.”하니라.	㉔:VII-32과
	自反而不縮이면 雖褐寬博이라도 吾不揣焉이리오. 自反而縮이면 雖千萬人이라도 吾往矣라.	㉔:VII-32과
	君子有三樂한대 而王天下는 不與存焉이니라. 父母具存하고 兄弟無故가 一樂也요 仰不愧於天하고 俯不忤於人이 二樂也요 得天下英才하여 而教育之가 三樂也니라.	㉔:VII-32과
	孟子曰: “民爲貴하고 社稷次之하고 君爲輕이니라. 是故로 得乎丘民이 而爲天子요 得乎天子가 爲諸侯요 得乎諸侯가 爲大夫니라.”	㉔:VIII-22과
	無恒産而有恒心者는 惟士爲能이어니와 若民則無恒産이면 因無恒心이니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를 無不爲己니 及陷於罪然後에 從而刑之면 是는 罔民也라. 焉有仁人在位하여 罔民而可爲也리오? 是故로 明君이 制民之産하되 必使仰足以事父母하며 俯足以畜妻子하여 樂歲에 終身飽하고 凶年에 免於死亡하나니 然後에 驅而之善이라. 故로 民之從之也輕하니이다.	㉔:VIII-22과
大學	富潤屋하고 德潤身이니라.	㉔: III - 7과
	湯之盤銘에 曰: “苟日新이어든 日日新하고 又日新하라.”	㉔: III - 7과
	身修而后家齊하고 家齊而后國治하고 國治而后天下平이니라.	㉔: III - 7과
	大學之道는 在明明德하며 在親民하며 在止於至善이니라. 知止而后에 有定이니 定而后能靜하고 靜而后能安하고 安而后能慮하고 慮而后能得이니라.	㉔: IX - 25과
	富潤屋이요 德潤身이라.	㉔: II - 5과
中庸	富潤屋이요 德潤身이니라.	㉔: II - 7과
	莫見乎隱이요 莫顯乎微라. 故로 君子는 慎其獨也니라.	㉔: II - 10과

위와 같이 발췌한 교과서의 경문들은 다음 절에서 여러 층위에 근거하여 면밀하고 다양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 3. 수록된 四書 經文에 대한 분석

#### 1) 출전 빈도

<표> II-7 중학교 한문교과서(14종) 內 사서경문 出典別 출현 빈도

출전 교과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합
㉠	6	0	0	0	6
㉡	3	3	1	0	7
㉢	6	5	2	0	13
㉣	2	1	0	0	3
㉤	4	2	1	1	8
㉥	4	4	1	0	9
㉦	2	1	1	1	5
㉧	3	0	0	0	3
㉨	2	1	0	1	4
㉩	5	3	0	1	9
㉪	1	1	0	0	2
㉫	3	2	0	0	5
㉬	3	2	1	1	7
㉭	1	2	0	0	3
계	45	27	7	5	84

<표> II-8 고등학교 한문교과서(10종) 內 사서경문 出典別 출현 빈도

출전 교과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합
㉠	5	4	0	0	9
㉡	6	2	3	0	11
㉢	5	2	0	0	7
㉣	6	2	0	0	8
㉤	2	2	0	0	4
㉥	1	2	1	0	4
㉦	5	1	1	0	7
㉧	6	1	0	0	7
㉨	5	3	1	1	10
㉩	6	2	0	0	8
계	47	21	6	1	75

중학교 한문교과서 14종의 四書 經文 인용빈도는 총 84회,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10종의 경우는 총 75회이다. 이전에는 다뤄야 할 학습내용의 다양성, 漢文科의 時數 부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서의 경서 인용 빈도가 중학교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sup>4)</sup> 그러나 현재의 조사를 보면 고등학교가 중학교에 비해 교과서 수가 더 적은 것을 감안하고서도 고등학교 교과서의 사서경문 인용빈도가 크게 증가한 점이 돋보인다.

교과서 별 경문 출전 빈도를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교 모두에서 四書 중 가장 인용도가 높은 것은 예상대로 『論語』였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論語』의 경문이 45회,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47회 출현하였으며 『論語』는 모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점이 돋보인다. 『孟子』는 중학교 27회, 고등학교 21회로 『論語』에 비해 절반의 빈도이기는 하나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되었으며, 『大學』과 『中庸』은 현저하게 인용도가 낮았다. 특히 가장 인용도가 낮은 『中庸』은 고등학교에서는 단 1회밖에 출현하지 못하였다. 『論語』와 『孟子』의 문장이 교과서 인용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그 내용이 倫理的·敎訓的이며 孔子와 孟子가 타인을 가르치는 ‘敎授’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현대의 학교현장에서도 수업하기에 적합한 글감들이 다양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문장들이 대부분 대화체가 많고 문법적으로 깔끔하게 해석이 가능하여 文理를 키우기에 적합하다는 점, 심오한 내용을 의역을 해야 할 필요가 없고 대체적으로 직독직해를 통해 바로 문장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도 『論語』와 『孟子』의 높은 인용도를 설명할 수 있다. 반면, 대학과 중용은 그 내용이 哲理的이며 심오한 形而上의 것을 다루는 부분이 많기에 철학적인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등 교과과정 수준에서 수업하기에 적합한 문장을 발췌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심지어 敎授者 또한 문장의 개념을 설명하기 난해하다는 점이 위의 결과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교과서 별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에서는 ㉠교과서의 사서경문 인용도가 13회로 단연 앞섰고, ㉡교과서와 ㉢교과서가 9회로 그 뒤를 이었다. ㉠교과서는 유가경전만을 다룬 소단원이 별도로 존재함과 더불어 주제별 성어 및 격언을 다룬 단원에 사서의 문장을 斷章取義하는 형태의 구성 덕분에 많은 사서경문을 수록할 수 있었으리라 파악된다. ㉡교과서 또한 주제별 성어와 함께 여러 단원에 걸쳐 사서의 문장을 수록하였으며, ㉢교과서도 斷章取義하였을 뿐 아니라 유가경전만을 다룬 대단원 속에 <공자>와 <맹자>라는 소단원이 따로 존재하였다. 한편 ㉣교과서는 오로지 『논어』에서만 여러 단원에 걸쳐 6회나 인용한 점이 돋보이며, ㉤교과서도 논어에서만 3회를 인용하였다. 반면 ㉥교과서는 사서경문 인용도가 2회로 제일 낮았는데, 그 이유는 斷章取義하지 않고 <공자>와 <맹자>라는 소단원에서 각각 한 문장씩만 선택하여 인용하는

4) 김용재, 「중·고교 한문교과서에서의 ‘經書’ 교육에 관한 발전적 제언」, 『한문고전연구』 제27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287면.

구성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㉔교과서, ㉕교과서, ㉖교과서는 四書의 모든 책에서 경문을 골고루 인용하여 수록한 점이 돋보였다. 중학교의 경우, 교과서 別 사서경문 출현빈도 합계의 분포차가 고등학교에 비해 비교적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㉕교과서의 사서경문 인용도가 11회로 가장 높았고, 9회를 인용한 ㉔교과서가 그 뒤를 이었다. ㉕교과서는 주제별 소단원에 맞게 사서의 문장을 斷章取義하였고, 유가경전을 다른 대단원 안에 공자와 맹자를 다른 소단원이 있었기에 사서경문 인용도가 높았을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대학』에서 3회나 인용한 점이 돋보인다. ㉔교과서 역시 斷章取義하였고, <논어>와 <맹자>라는 소단원이 따로 존재하였다. 반면, ㉔교과서와 ㉖교과서는 사서경문 인용도가 4회로 제일 낮았는데, 그 이유는 두 교과서 모두 백가사상과 성현의 가르침을 다른 소단원에 장문을 한 편씩 수록하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었다. 四書 중 하나의 책에서만 문장을 인용한 교과서는 없었으나, 네 편의 모든 책에서 골고루 문장을 인용하여 수록한 교과서는 ㉕교과서뿐이었다. 『大學』과 『中庸』에서 교과서에 인용할만한 글감을 발췌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중 최적의 글감을 선별하여 학생들에게 四書의 경문을 골고루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교과서 집필진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는 았으나 바람직한 주제와 다양한 학습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어 수업하기에 적절한 사서경문을 조사하였다.

〈표〉 II-9 교과서에 수록해볼만한 사서 경문 소개 5)

출전	經文	학습요소
『孟子』	“老而無妻曰鰥, 老而無夫曰寡, 老而無子曰獨, 幼而無父曰孤, 此四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 “宋人, 有閔其苗之不長而揠之者, 芒芒然歸, 謂其人曰: “今日, 病矣, 予助苗長矣.” 其子, 趨而往視之, 苗則槁矣.” “古之爲市者, 以其所有, 易其所無者, 有司者治之耳, 有賤丈夫焉, 必求龍斷而登之, 以左右望而罔市利, 人皆以爲賤. 故從而征之, 征商, 自此 賤丈夫始矣.”	사서에서 유래한 성어 (鰥寡孤獨, 助長, 壟斷)
	“吾聞出於幽谷, 遷于喬木者, 未聞下喬木而入於幽谷者.”	히사의 쓰임 (於, 于) 교육적 주제 (改過遷善)
	“愛人不親, 反其仁, 治人不治, 反其智, 禮人不答, 反其敬.”	문장의 수사 (대우) 교육적 주제 (反求諸己)
	“孟子曰人有恒言, 皆曰天下國家, 天下之本, 在國, 國之本, 在家, 家之本, 在身.”	문장의 수사 (대우) 교육적 주제 (根本의 순서)

5) 수업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한 문장이 굉장히 많고, 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장 인용도가 높은 『논어』의 문장은 굳이 제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제외하였다.

	“自暴者，不可與有言也。自棄者，不可與有爲也。言非禮儀，謂之自暴也。吾身不能居仁由義，謂之自棄也。”	한자의 여러 가지 쓰임(非) 사서에서 유래한 어휘 (自暴自棄)
	“曾子養曾皙，必有酒肉，將徹，必請所與，問有餘，必曰有，曾皙死，曾元養曾子，必有酒肉，將徹，不請所與，問有餘，曰亡矣，將以復進也。此所謂養口體者，若曾子則可謂養志也。” “食而弗愛，豕交之也。愛而不敬，獸畜之也。”	교육적 주제 (진정한孝와敬)
	“仁之實，事親是也。義之實，從兄是也。” “仁人之於弟也，不藏怒焉，不宿怨焉，親愛之而已矣”	교육적 주제 (兄弟와의友愛)
	“萬章問曰 敢問友。孟子曰 不挾長，不挾貴，不挾兄弟而友。友也者，友其德也，不可以有挾也。”	교육적 주제 (친구를 사귀는道)
	“有天爵者，有人爵者。仁義忠信樂善不倦，此天爵也。公卿大夫，此人爵也。古之人 修其天爵而人爵從之。今之人 修其天爵，以要人爵，既得人爵，而棄其天爵，則惑之甚者也，終亦必亡而已矣。”	교육적 주제 (인간의 내면은輕視한 채, 외면적인 출세와 성공을重視하는 가치관 비판)
	“孟子曰，孔子登東山而小魯，登泰山而小天下，故觀於海者，難爲水，遊於聖人之門者，難爲言。(中略)流水之爲物也，不盈科不行，君子之志於道也，不成章不達。” “於不可已而已者，無所不已，於所厚者薄，無所不薄也。其進銳者，其退速。”	교육적 주제 (學問의 방법)
『大學』	“物有本末，事有終始，知所先後，則近道矣。” “君子先慎乎德，有德此有人，有人此有土，有土此有財，有財此有用。德者本也，財者末也，外本內末，爭民施奪。”	단어의 짜임 (병렬) 문장의 수사 (대우, 연쇄) 교육적 주제 (本末의 이해)
	“誠於中，形於外。故君子必慎其獨也。”	교육적 주제 (慎獨)
	“好而知其惡，惡而知其美者，天下鮮矣。”	문장의 수사(대우) 한자의 여러 가지 쓰임(惡)
	“一家仁，一國興仁，一家讓，一國興讓，一人貪戾，一國作亂。”	문장의 수사(대우) 교육적 주제 (本의 중요성)
	“君子，有諸己而後，求諸人，無諸己而後，非諸人，所藏乎身，不恕，而能喻諸人者，未之有也。”	교육적 주제 (推己及人)
	“君子有大道，必忠信以得之，驕泰以失之。”	교육적 주제 (忠信)
『中庸』	“君子，素其位而行，不願乎其外。素富貴，行乎富貴，素貧賤，行乎貧賤，素夷狄，行乎夷狄，素患難，行乎患難，君子無入而不自得焉。”	문장의 수사 (대우) 단어의 짜임 (병렬) 교육적 주제 (發而中節)
	“君子之道，辟如行遠必自邇，辟如登高必自卑。”	사서에서 유래한 성어 (登高自卑)
	“仁者，人也，親親爲大。義者，宜也，尊賢爲大。”	문장의 수사 (대우) 한자의 여러 가지 쓰임(親)
	“好學近乎知，力行近乎仁，知恥近乎勇。”	문장의 수사 (대우) 교육적 주제 (知仁勇-達德의 이해)
	“博學之，審問之，慎思之，明辨之，篤行之。”	교육적 주제 (學問의 방법)

## 2) 학습목표 분석

학습목표는 구체적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행동적인 지표이며<sup>6)</sup>, 학습목표의 설정은 모든 수업설계의 가장 첫 순서가 된다. 학습목표의 성취 여부가 학습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다. 교사가 수업을 설계할 때 직접 독창적인 학습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목표가 교사의 수업설계의 큰 지표가 된다. 결국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목표는 수업구성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학생들의 학습 방향성을 재고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 사서경문을 다룬 단원에 제시된 학습목표의 형태와 그 적절성을 분석하는 작업은 사서수업의 방향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학습목표의 진술 형태는 진술의 구성에 따라 ‘항목식 진술’, ‘서술식 진술’로 분류되며, 진술의 표현 방식에 따라 ‘포괄 진술표현’, ‘상세 진술표현’으로 분류된다. 항목식 진술은 각 항목별 핵심 단어나 요점으로 진술된 경우이며, 서술식 진술은 한 문장으로 기술하는 경우이다.

〈예〉 항목식 진술구성 :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 평서문의 특징  
 서술식 진술구성 : 樂의 여러 가지 음과 뜻을 알 수 있다.  
 평서문의 특징을 이해한다.

포괄 진술표현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동사가 사용되어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이다. 상세 진술표현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동사로 진술하여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이다.

〈예〉 포괄 진술표현 - 안다. 이해한다. 감상한다. 태도를 갖는다. 함양한다.  
 상세 진술표현 - 쓸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sup>7)</sup>

학습목표는 구체적인 행동명사를 사용하여 상세하게 서술되어야 하나, 교육과정 자체에 정의적인 교육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한문과의 특성상 행동적 용어와 정의적 용어를 적절하게 결합하여 학습목표를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8)</sup>

현행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사서경문을 다룬 단원에 제시된 학습목표 진술현황을 세 가지

6) 김정하, 「중학교 한문 교과서 학습목표 분석-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0, 1면.  
 7) 박재숙, 「학교교육과정에 제시된 학년교과목표 진술 형태 분석」,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6, 13면. (김정하, 위의 논문, 18~19면에서 재인용)  
 8) 신덕수, 「경전교육의 지향성 탐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3, 21면 참조.

층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에 ①「교육과정 영역」 통계, ②「진술 형태」 통계를 제시하여 바람직한 점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본문에 실린 경문과의 적절성을 알아보았다.

① 교육과정 영역 통계

<표> II-10 교육과정 영역에 따른 중학교 사서경문 단위 학습목표 통계 (14종)

교과서 교육과정 영역	독해		문화		한문지식		
	읽기	이해	한자문화	언어생활과 한자문화	한자	어휘	문장
㉠	0	0	2	0	0	3	1
㉡	2	6	2	0	3	0	2
㉢	2	3	5	1	0	1	4
㉣	0	2	0	1	0	3	1
㉤	1	5	3	0	3	3	0
㉥	1	2	0	0	1	0	0
㉦	1	0	2	0	1	1	0
㉧	2	1	2	0	0	1	0
㉨	1	0	2	0	0	0	1
㉩	1	3	4	0	3	2	0
㉪	1	1	2	0	0	1	2
㉫	4	1	2	0	5	3	3
㉬	0	2	2	0	3	4	1
㉭	1	1	3	0	0	3	1
합계	17	27	31	2	19	25	16

<표 II-11> 교육과정 영역에 따른 고등학교 사서경문 단위 학습목표 통계 (10종)

교과서 교육과정 영역	독해		문화		한문지식		
	읽기	이해	한자문화	언어생활과 한자문화	한자	어휘	문장
㉮	0	2	2	0	1	0	1
㉯	0	4	1	0	1	0	5
㉺	0	2	3	0	0	1	3
㉻	1	0	3	1	1	1	1
㉼	1	3	2	0	0	1	2
㉽	0	4	1	0	0	2	3
㉾	0	3	2	1	1	1	2
㊱	0	2	0	1	1	4	2
㊲	0	7	0	0	1	4	0
㊳	0	2	2	0	1	2	1
합계	2	29	16	3	7	16	20

중학교의 경우, 사서경문 단원의 학습목표는 ‘한자문화’ 영역에 관한 진술이 가장 많았고, ‘이해’ 영역에 관한 진술이 그 다음이었다. 그 이유는 사서의 문장이 儒敎文化圈의 특성을 가득 담고 있는 만큼 ‘문화 교육’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으며, 문장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사서경문 수업의 기본 토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한문지식’ 영역에 포함된 중영역 ‘한자’, ‘어휘’, ‘문장’에 관한 진술이 고루 많다는 사실을 통해 많은 교과서들이 사서경문을 이용한 문법 학습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서경문이 일명 ‘文理’가 생길 수 있는 최적의 문장들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문법규칙을 정확하게 지킨 모범적인 문장이며, 까다롭지 않은 낱글자들과 문장상의 대우, 비유적·점층적인 수식이 많이 쓰인 문장들이기에 문법적 지식에 관한 학습의 성취를 이루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와는 달리 ‘이해’ 영역에 관한 진술이 29회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한자문화’ 영역이었다. 이것은 고등학교 과정의 특성 상 이론과 지식 주입 위주의 수업이 대부분이므로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문화 읽기자료 및 문화 학습의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으로 파악된다. ‘한문지식’ 영역에 있어서도 중영역 ‘한자’에 관한 진술이 ‘어휘’, ‘문장’에 비해 제일 낮은 수치인 7회를 기록한 것은,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기본적인 ‘한자’ 학습을 달성했으므로 고등학교에서는 더 심화된 영역의 학습에 치중하자는 의도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읽기’ 영역에 관한 진술은 모든 영역을 통틀어 제일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문수업, 특히 사서교육의 첫 발판은 ‘읽기’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나 다름없다. 表意文字인 한문은 ‘읽기’ 학습 과정에서 이미 독해의 절반이 시작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한문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학습자는 낱글자 안에 숨어 있는 한자의 의미를 어느 정도 감지해낼 수 있고, 또한 끊어 읽기 과정에서 문장의 대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9)</sup> 따라서 한문과 학습목표의 진술에 있어서 ‘읽기’ 영역에 관한 진술부족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언어생활과 한자문화’ 영역에 관한 진술이 각각 2회, 3회라는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언어생활과 한자문화’ 영역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습목표나 교수·학습활동의 개발은 낯설고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사서의 심오한 사상이나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한자 어휘가 많음을 고려할 때, ‘언어생활과 한자문화’ 영역은 경서와 밀접하게 연결 지을 수 있으며, 경서를 활용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학습목표의 진술 역시 계속하여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9) 김용재, 「중·고교 한문교과서에서의 ‘經書’ 교육에 관한 발전적 제언」, 『한문고전연구』 제27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288면.

② 진술형태 통계

〈표 II-12〉 중·고등학교 학습목표 진술형태 통계

진술구성	중학교	고등학교	진술표현	중학교	고등학교
항목식	0	16	포괄표현	102	79
서술식	130	76	상세표현	28	13
합계	130	92	합계	130	92

먼저 진술구성을 살펴보면, 중학교는 모든 교과서가 사서경문 단원의 학습목표를 서술식 구성으로 진술하였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㉞교과서와 ㉟교과서가 다음과 같은 항목식 구성으로 학습목표를 진술하였다.

- 문장의 교훈 • 문장 성분의 도치 (㉞:II-5과)
- 공자의 사상 •惡의 쓰임 (㉞:IX-28과)
- 맹자의 사상 • 비유법 (㉞:IX-29과)
- ‘나이’를 나타내는 성어 • ‘于’의 쓰임 (㉟:II-4과)
- ‘노력’과 관련된 성어 • ‘之’의 쓰임 • 연쇄법과 점층법 (㉟:II-6과)
- ‘說’, ‘樂’의 여러 가지 음과 뜻 • 비유법 • 공자의 사상 이해 (㉟:VIII-22과)
- ‘則’의 쓰임 • 맹자의 사상 이해 (㉟:VIII-23과)

위의 학습목표는 항목식 구성이기는 하지만 모두 본문의 내용에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교수·학습활동 또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였다. 그러나 학습목표를 진술할 때에는 가급적 항목식 구성 대신 서술식 구성으로 진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자가 학습의 방향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학습 성과를 확인하려면 먼저 학습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진술표현을 보면, 중·고등학교 모두 학습목표를 진술할 때에 포괄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80%에 육박했다. 학습목표에 가장 많이 쓰인 행위 동사는 ‘안다’, ‘이해한다’, ‘기른다’와 같은 용어들이었다. 비록 한문이 정의적인 용어를 사용한 학습목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과목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포괄표현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측정할 수 없는 추상적인 학습목표는 학습자가 스스로의 학습 성과를 확인하는 데에 곤란함을 줄 수 있으며, 교사 또한 학습목표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의 지표를 작성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학습목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행위 동사를 사용한 서술식 구성으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편, 교과서의 학습목표 진술을 살펴보고 도출해 낸 문제점은 교육과정에 기술된 교육목표를 그대로 진술한 경우가 모든 교과서에서 너무나 빈번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선인들의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㉞:XI-31과)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㉞:XI-31과)
- 선인들의 지혜를 내면화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파악하여, 궁지와 주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㉞:III-8과)
- 유가 경전과 제자백가의 글을 읽고 사상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㉞:VIII-21과)
-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 수 있다. (㉞:VIII-21과)

교과서의 학습목표가 교육과정의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지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교육과정의 목표를 그대로 진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과정의 목표는 학습목표의 상위 개념답게 포괄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학습목표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지향하되, 그것을 잘게 쪼개어 최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經文과의 적절성

학습목표는 그 자체로도 구체적이고 올바른 방향성을 내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본문에 실린 사서경문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얼마나 적절한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분석해보았다.

중학교의 ㉞교과서는 학습목표가 상세하면서도 다양한 영역을 두루 진술하고 있으며 본문 문장과의 조화가 적절하여 주목할 만 하였다. 특히 “愛人者는 人恒愛之니라.”,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는 문장이 담긴 17과에서는 두 문장이 다 명령문이며, ‘타인을 향한 배려’를 다루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명령문의 특징을 알고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남을 배려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알고 계승할 수 있다.”라고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진술된 목표가 비교적 구체적이며 경문과의 매치가 훌륭하다. ㉞교과서 역시 학습목표가 올바르게 진술된 교과서 중 하나였는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知之者는 不如好之者요 好之者는 不如樂之者니라.”라는 경문에 맞게 “乎, 不如의 쓰임을 알 수 있다.”, “평서문의 특징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 “학문(學問)에 관한 글을 읽고, 그 속에 담긴 교훈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구별할 수 있다.’와 ‘찾을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행동 명사를 사용하였으며 교육과정의 세 영역 ‘어휘’, ‘문장’, ‘이해’를 두루 충족하는 목표라는 점이 훌륭하다.

반면 ㉞교과서는 ㉞교과서와 같은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知之者는 不如好之者하고 好之者는 不如樂之者니라.”의 문장이 담긴 12과에서 “而의 쓰임을 안다.”, “주술목 구조를 안

다.”라는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는데, 본문이 배움을 주제로 하는 뜻 깊은 문장들임에도 불구하고 ‘한문지식’ 영역에 치우친 목표만을 진술하였으며, 정작 ‘而’의 쓰임과 주술목구조에 관한 교수·학습활동 부분은 미미한 점이 아쉬웠다. 또한 ㉔교과서는 『논어』의 溫故知新과 殺身成仁 문장을 다룬 10과에서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구절·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 두 목표는 문장을 이룬 어구만 다를 뿐, 실상은 ‘문장의 의미 파악’이라는 똑같은 맥락의 목표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㉔교과서와 ㉕교과서가 학습목표를 충실하게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㉕교과서는 『大學』의 三綱領과 『論語』의 克己復禮 章을 본문에 실어놓은 25과에서 “勿의 쓰임을 익혀 문장 풀이에 활용할 수 있다.”, “문장의 수사법을 익혀 문장 풀이에 활용할 수 있다.”, “대학과 논어의 문장을 풀이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강한 금지사인 ‘勿’의 학습을 통해 克己復禮 章의 관건이 되는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과 같은 강경한 명령문의 어조를 알 수 있게 하며, 三綱領 章을 통한 연쇄법의 학습 및 四書 속 名文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어휘’, ‘문장’, ‘이해’의 세 영역을 두루 충족하는 목표가 되었다.

반면, ㉔교과서는 경문을 다룬 단원인 7과, 21과, 22과에 모두 “선인들의 지혜를 내면화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라는 학습목표를 남발하고 있는데, 본문 문장이 저마다의 특별한 의미와 주제가 담긴 경문들이므로 많은 학습요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음절의 변화도 없이 똑같은 학습목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㉔교과서 또한 논어와 맹자의 문장을 다룬 24과, 25과에서 “유가의 경전에 담긴 내용의 특징과 지은이의 의도 말하기”,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지식 이해하기”라는 두 개의 학습목표를 똑같이 반복하였다. 교과서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학습목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실태가 많은데, 각각의 경문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목표 진술이 절실히 필요하다.

### 3) 글감 분석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사서의 수많은 문장들 가운데 어떠한 글감을 선택하였는지, 그 글감이 얼마나 적절한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수록하였는지를 분석해보며, 諸 문제점을 도출해 보도록 한다.

#### ① 난이도

한문교과에 대한 학습자들의 본격적인 어려움은 한자가 여럿 모여 문장을 이루기 시작하는

단문을 배울 때부터 시작되며, 그 문장이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문일 때 학습자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 결국 사서경문을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첫 발판은 단계별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글감을 선별하는 작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사서경문의 길이, 내용 수준, 한자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난이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중학교의 ㉠교과서와 ㉡교과서에 수록된 『맹자』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仁은 人心也요 義는 人路也니라. 舍其路而不由하며 放其心而不知求하나니 哀哉라. 人有 鷄犬放이면 卽知求之하되 有放心而不知求하나니 學問之道는 無他라. 求其放心而已矣니라.”

이 문장의 경우 비록 교과서의 후반부 단원에 배치되어 분량이 늘어난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중학교 수준에서 소화하기에는 벽찬 분량이므로 수업 이전부터 학습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문법상의 어려움이 없어 해석은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어도 그 내용이 심오하고 추상적이어서 학습자가 문장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교과서에 실린 『맹자』의 “其爲氣也는 至大至剛하니 以直養而無害면 則塞于天地之間이라.”는 문장은 浩然之氣 章으로 맹자의 장엄한 기상을 함축하고 있는 문장이나, 剛과 塞은 한문교 육용 기초한자 범위 외에 있는 한자이며, 내용 또한 철리적이고 추상적이므로 중학교 수준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교과서의 “喜怒哀樂之未發을 謂之中이요 發而皆中節을 謂之和니라.”는 중용의 문장 또한 분량이 부담감 없고 한자의 난이도도 적절하나, 성인 학습자들도 어려움을 겪는心性에 관한 내용이므로 중학교 학습자들에게는 추상적이고 어려운 문장이 될 수 있다.

다음은 고등학교 ㉢교과서, ㉣교과서, ㉤교과서에 수록된 『맹자』의 문장이다.

無恒産而有恒心者는 惟士爲能이어나와 若民則無恒産이면 因無恒心이니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를 無不爲己니 及陷於罪然後에 從而刑之면 是는 罔民也라. 焉有仁人在位하여 罔民을 而可爲也리오. 是故로 明君이 制民之産하되 必使仰足以事父母하며 俯足以畜妻子하여 樂歲에 終身飽하고 凶年에 免於死亡하나니 然後驅而之善이라. 故로 民之從之也 輕하니이다.

위의 문장은 王道政治를 다룬 문장으로 해석이 용이하고 유익한 학습요소가 많은 名文이나, 고등학교 과정임을 감안할지라도 한 경문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다. 아무리 훌륭하고 해석하기 용이한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끝없는 한자와 해석을 연속적으로 접하다보면 학습자들은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 이런 이야기식의 문장은 국문으로 서술하여 나가다가 핵심이 되는 부분만을 한문 원문으로 제시한다거나<sup>10)</sup>, 중간 부분을 생략한 후 ‘중략’ 표기를 하는 방법으로 그 해결점

10) 김은주, 「고등학교 『漢文 I』 교과서 內 ‘經書’·‘諸子書’ 영역 분석: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을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㉞교과서에 수록된 『맹자』의 문장이다.

五畝之宅에 樹之以桑이면 五十者가 可以衣帛矣며, 鷄豚狗彘之畜을 無失其時면 七十者  
가 可以食肉矣며, 百畝之田을 勿奪其時면 八口之家가 可以無飢矣며, 謹庠序之教하여  
申之以孝悌之義면 頒白者가 不負戴於道路矣리니, 七老者가 衣帛食肉하며 黎民이 不飢  
不寒이오 然而不王者는 未之有也니이다.

이 문장 역시 『맹자』 「梁惠王 上」篇에서 왕도정치를 다룬 문장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명문  
이나, 한자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학습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歲, 庠, 悌, 頒, 戴, 帛, 黎 무  
려 7개의 한자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범위 밖에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도 전체적으로 한자의  
난이도가 높다. 학습자들은 무엇보다도 ‘한자’ 자체를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기에, 고난도의  
한자로 이루어진 문장은 학습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교과서를 분석하며 도출해 낸 큰 문제점은 경서 단원의 분량이 너무나도 길다는 점  
이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여러 곳의 경문들을 斷章取義하여 하나의 소단원을 이루는 구성법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짧고 긴 여러 문장들을 한꺼번에 수록하다보니 한 단원의 분량이 방대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물론 교사가 수업을 조직할 때 여러 차시로 나누어 수업할 수 있지만,  
한 단원으로 오래 수업할 경우 계속해서 끊기는 흐름으로 인하여 학습자들의 의욕 저하와 지루  
함을 유발할 수 있기에 우려가 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사서경문 단원은 그 분량  
조절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 ② 懸吐의 표기 현황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한문의 기본 과정이라고 일컬어지던 四書を 읽을 때 吐를 달아서  
읽고 암기하는 학습방법을 채택하여 사용해왔다. 이렇게 초기 한문 학습에서 고유의 토를 사용  
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전통으로 굳어져 왔으며, 이는 곧 현대에까지 영향을 미쳐 지금  
의 한문교과서는 현토한 문장을 수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토가 우리 고유의  
독법이자, 한문의 해석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효과적인 학습법임을 증명한 셈이다.<sup>11)</sup>

2009 개정 교육과정에도 현토학습의 방향성은 ‘읽기’영역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39면 참조.  
11) 송병렬, 「현토 교육의 유용성과 토의 문법적 성격」, 『한문교육연구』 13권 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9.

[I-읽기-(3)] 토의 구실에 유의하여 글을 끊어 읽을 수 있다.

한문으로 된 옛글들은 대부분 단어, 구절, 문장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붙여 쓰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글을 읽을 때는 문장과 문장 사이 및 문장 내의 구절과 구절 사이를 적당하게 끊어 읽었으니, 이것을 구두(句讀)라고 한다. …中略… 한문의 끊어 읽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권점(圈點)’, ‘띄어쓰기’, ‘구결(口訣)’, ‘현토(懸吐)’, ‘구두법(句讀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현토(懸吐)’와 ‘구두법(句讀法)’이다. 현토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한문을 읽을 때 사용했던 방법이다. 곧 문장의 구절과 구절 사이 및 문장이 완결되는 자리에 붙이는, 우리말로 된 조사나 어미를 토(吐)라고 하고, 이처럼 토를 다는 것을 ‘현토(懸吐)’라고 한다. 토는 한문의 뜻을 어느 정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문법의 기능도 부분적으로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단, 현토하여 읽기는 현토를 이용하여 읽는 데 중점을 두어, 이미 현토되어 있는 글을 토의 구실에 유의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한다. 토의 종류는 워낙 많고 또 현대 국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조사나 어미가 토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글에서 실제로 사용된 토에 대해서만 그 구실을 이해하도록 하여, 현토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현토의 원리를 지나치게 따지지 않도록 한다.

교육과정은 懸吐의 종류가 워낙 많기도 하고, 또 현대 국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아 학습자들에게 낯선 조사나 어미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sup>12)</sup>, 본문에 등장하는 현토를 제외하고는 현토의 원리를 지나치게 깊이 설명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토’에는 사실 정답이 없으며 독자가 편의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에<sup>13)</sup>, 각각의 교과서에 중복된 서경문을 수록할 때 토씨 하나 다르지 않는 통일된 현토의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같은 문장이지만 현토가 다를 때, 그 다름의 수준이 사소한 음절의 차이<sup>14)</sup>로 치부하며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면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현토 현황을 살펴본 뒤, 중복 인용문장 가운데 현토가 다르게 표기되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분석하였다.

①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 (㉑,㉒,㉓,㉔,㉕,㉖,㉗) 己所不欲을 勿施於人이나라. (㉘) 己所不欲을 勿施於人이라. (㉙)
②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㉚,㉛,㉜) 有朋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㉝,㉞)

12) 교과서는 古語 투의 토를 최대한 현대어로 바꾸어 사용하였으나, 교과서에서 자주 쓰이는 ‘……있고’, ‘……있가’, ‘……진댄’, ‘……인댄’, ‘……아?’와 같은 어미의 토는 여전히 학습자들에게 생소함을 느끼게 한다.

13) 김용재, 「중·고교 한문교과서에서의 ‘經書’ 교육에 관한 발전적 제언」, 『한문고전연구』 제27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291면.

14) 예를 들어 ㉑교과서는 “知之者는 不如好之者하고 好之者는 不如樂之者니라.”로 현토하였고, ㉒교과서는 “知之者는 不如好之者요 好之者는 不如樂之者니라.”로 현토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현토의 다름이 ‘……하고’, ‘……요’라는 사소한 음절의 차이일 뿐이므로 크게 문제 삼을 것이 없다.

③	<p>天時不如地利요 地利不如人和니라. (㉞)          天時는 不如地利요 地利는 不如人和니라. (㉟)</p>
④	<p>季康子가 問政於孔子한대, 孔子對曰: “政者는 正也니 子帥以正이면 孰敢不正이리오?” (㉠)          季康子가 問政於孔子한대 孔子가 對曰 “政者는 正也라. 子帥以正이면 孰敢不正이리오.” 하니라. (㉡)</p>
⑤	<p>人性之善也는 猶水之就下也니 人無有不善이요 水無有不下니라. 今 夫水를 搏而躍之면 可使過顙이요 激而行之면 可使在山이냐 是豈水之性哉리오? (㉢)          人性之善也가 猶水之就下也니 人無有不善하며 水無有不下니라. 今 夫水를 搏而躍之면 可使過顙이며 激而行之면 可使在山이어나 是豈水之性哉리오? (㉣)</p>
⑥	<p>“以五十步로 笑百步면 則何如하니잇고?” 曰 “不可하니 直不百步耳 언정 是亦走也니라.” (㉤,㉥)          “以五十步로 笑百步면 則何如잇가?” “不可하니 直不百步耳언정 是亦走也니라.” (㉦)</p>

①의 위 문장은 ‘…하라’라는 어미가 토로 사용되어 명령문의 어조가 강하게 느껴지는데 반해, 아래 문장은 ‘…이니라’와 ‘…이라’라는 어미로 현토되어 평서문의 어조가 느껴진다. “己所不欲, 勿施於人”은 勿이라는 금지사를 사용한 명령문의 유형을 갖춘 문장이므로 ‘…하라’의 토를 사용하는 것이 문장의 특징을 더욱 살린 것이라 판단된다.

②의 경우, 위 문장은 ‘有朋’과 ‘自遠方來’ 사이에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어 끊어 읽기가 가능하게 하였으나 아래 문장은 그렇지 않다. 이는 사소한 끊어 읽기의 차이로 볼 수 있지만, 이 문장이 『논어』 「學而」 편의 첫 문장으로 널리 알려진 名文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유명하고 친숙한 문장일수록 현토의 통일은 더욱 필요하다. ③ 또한 같은 맥락으로 제시해 놓았다.

④의 두 중복인용 문장은 문장이 끝맺어질 때 사용된 종결어미에 차이가 있다. 아래 문장을 보면 위 문장과 달리 “政者는……孰敢不正이리오?” 뒤에 ‘하니라.’라는 토가 덧붙여져 맹자의 말을 편집자가 끝맺어주는 느낌이 들게 한다. 그러나 ‘하니라.’라는 세 글자의 어미를 더 사용하여 현토하지 않아도 충분히 말은 끝맺어졌기에 굳이 덧붙일 필요는 없다.

⑤의 문장들은 『맹자』 중 성선설에 대한 주장인데, 이 역시 널리 알려진 名文이나 위 문장과 아래 문장에 표기된 현토가 많이 다름을 발견하였다. 한 두 개 정도의 차이는 감안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전체적으로 현토가 다르게 표기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의 통일

이 필요하다.

⑥에 제시된 중복인용 문장에서 첫 문단은 각각 ‘…하니잇고?’와 ‘…잇가?’로 현토되었다. 두 어미가 모두 현대의 학습자들에게 생소한 것들인데, 이런 생소한 현토의 사용이 교과서별로 다르기까지 하다면 학습혼선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 또한 두 번째 문단은 각각 ‘…니이다.’와 ‘…니라.’라는 토가 사용되었는데, ‘…니이다.’는 경어체이며 ‘…니라.’는 평어체이다. 이 문장의 주인공인 梁惠王이 앞서 맹자에게 ‘叟(어르신)’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높은 바 있음을 고려할 때, 되도록 경어체의 현토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개 중학교 교과서의 경문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똑같이 수록된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처럼 학습자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사서경문을 고등학교 진학 후 다시 배우는 상황이 왔을 때, 현토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중복인용 문장의 경우, 가급적 현토를 통일하고자 하는 집필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업 안에서 사서경문을 다룰 때, 학습자들이 현토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암기하는 일이 없도록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현토는 그저 문장의 풀이를 돕기 위한 우리나라 고유의 독법이며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학습요소가 아님을 周知시켜야 한다.

### ③ 중복된 경문

다음의 표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 중복 수록된 사서경문과, 중복 횟수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어』 「學而」 編의 첫 문장인 “學而時習之…”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틀어 총 9회로 중복횟수가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뒤를 이어 『논어』의 “己所不欲, 勿施於人.”이 중·고등학교에서 총 8회나 수록되었다. 『대학』과 『중용』 문장의 경우, 앞서 교과서 내 출전별 출현빈도<sup>15)</sup>를 조사할 때 그 인용도가 현저하게 낮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 그마저도 중복 수록이 대부분임을 통해 글감의 부족을 절감하였다.

〈표 II-13〉 중학교 한문교과서 내 중복 수록된 사서경문 (14종)

경서	경문	횟수
논어	•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6
	•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2
	• 己所不欲, 勿施於人.	5
	• 見利思義, 見危授命.	2

15) 본고, 20면 <표 II-7> <표 II-8>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知者樂水, 仁者樂山.</li> <li>• 三人行, 必有我師焉.</li> </ul>	4 2
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愛人者 人恒愛之.</li> <li>• 愛人者 人恒愛之, 敬人者 人恒敬之.</li> <li>• 仁, 人心也, 義, 人路也. 舍其路而不由, 放其心而不知求, 哀哉!</li> <li>• 孟子曰 仁 人心也, 義 人路也. 舍其路而不由, 放其心而不知求 哀哉! 人有鷄犬放即知求之, 有放心而不知求, 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 而已矣.</li> </ul>	3 2 2 2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li> </ul>	2
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li> </ul>	3

〈표 II-14〉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內 중복 수록된 사서경문 (10종)

경서	경문	횟수
논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慎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己所不欲, 勿施於人.</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季康子問政於孔子, 孔子對曰 "政者, 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li> </ul>	2
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無恒産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己, 及陷於罪然後, 從而刑之, 是, 罔民也. 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 是故, 明君制民之産, 必使仰足以事父母, 俯足以畜妻子, 樂歲終身飽, 凶年免於死亡, 然後驅而之善. 故民之從之 也輕.</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人無有不善, 水無有不下. 今夫水, 搏而躍之, 可使過顙, 激而行之, 可使在山, 是豈水之性哉?</li> </ul>	2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富潤屋, 德潤身.</li> </ul>	3

교과서에 중복 수록된 위 경문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해석이 매우 용이한 문장들이라는 점이다. 대부분 난이도가 높지 않은 친숙한 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절間 대우가 아주 잘 되어 깔끔하게 해석되는 문장들이다. 이는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수업하기 적절한, 환영받는 문장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문법적 학습요소가 많다는 점이다. '주술', '주술목'과 같은 문장의 구조가 뚜렷이 드러나며, 연쇄, 비유, 비교, 대우 등의 수사법이 사용되어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내용을 성취하기에 훌륭한 문장들이다. 셋째,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이 뚜렷하다. 교과서가 경문을 수록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하나의 소단원에 특정한 주제를 명시한 후 그 주제에 맞는 글감들을 여러 곳에서 斷章取義하는 구성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내포된 주제와 교훈이 뚜렷한 경문들은 소단원을 구성할 때 인기 있게 인용될 수밖에 없다.

이 밖에 출전을 四書에 두기는 하였으나 문장이 아닌 성어형식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 중 『맹자』에서 유래한 ‘五十步百步’는 가장 높은 빈도로 수록되었으며, 『논어』의 문장에서 유래한 ‘三省吾身’, ‘溫故知新’, 『맹자』의 浩然章에 나오는 ‘助長’ 등이 성어로 수록되어 있었다. 특히 ㉠교과서는 『대학』의 八條目<sup>16)</sup>과 『맹자』의 五倫<sup>17)</sup>을 문장 없이 단어로만 나열하여 소단원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문이 아닌 성어형식을 수록한 것은, 원문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핵심 단어만을 제시하는 것이 학습 성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집필진의 생각이 담겼으리라 파악된다. 실제로 사서에서 유래한 성어의 지도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언어생활과 한자문화’ 영역의 학습에도 도움이 되며, 학습자들의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글감을 전부 분석하면서 도출해낸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교과서에 수록되는 글감들은 눈에 띄는 변화 없이 매년 중복되어 실린다는 것이었다. 기존에 수록되던 사서경문들만 계속하여 실리고, 새롭고 참신한 학습요소를 가진 경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문 교과서의 집필 기준은 그 내용의 선정 및 수준과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오로지 집필자의 재량에 좌우된다.<sup>18)</sup> 따라서 교과서를 대하는 학습자들이 교육적인 주제와 다양한 학습요소를 내포한 사서경문을 최대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글감 선정을 위한 집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 ④ 교수학습 활동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교과서 사서경문 단원의 교수학습활동을 몇 가지 기준점을 토대로 분석해보도록 한다. 본고의 목적은 사서경문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으므로, 현행 교과서가 사서의 문장에서 어떠한 학습요소를 추출하였는지, 학습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적절한지를 분석하는 작업은 교과서 분석의 여러 층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과서의 교수학습활동을 분석하며 도출해낸 기준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교과서가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한문과 교육과정을 보면 “교수학습 자료는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sup>19)</sup> 따라서 교과서 안에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이 얼마나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특히, 사서경문은 독해가 가장 기본이 되는 만큼, 학습자 중심의 독해활동이 잘 구현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는 14종의 한문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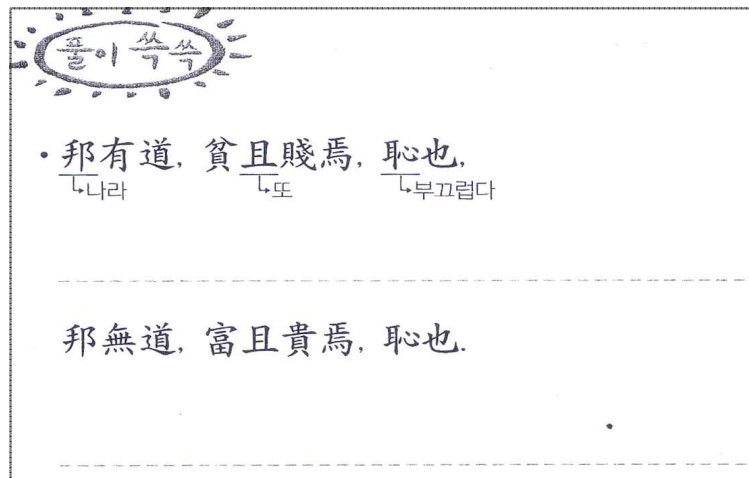
16) 『大學』: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17) 『孟子』 「滕文公 上」: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18) 신덕수, 「경전교육의 지향성 탐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3, 19면.

1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2011, 35면, 47면.

중 어느 것도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독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놓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교과서가 본문의 풀이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의 독해력 신장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학교 과정이 한문교과를 처음 접하는 단계임을 감안할지라도, 풀이 도중 산발적으로 빈칸을 제시하는 등의 장치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직접 독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학습자 중심의 독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㉔, ㉕, ㉖, ㉗교과서는 주요 어구에만 풀이를 제시하여, 이미 풀이된 구절과 비슷한 문법구조를 가진 구절 또는 충분히 소화 가능한 난이도를 가진 구절은 학습자가 직접 독해할 수밖에 없게끔 구성해 놓았다. ㉘교과서는 유일하게 학습자 중심의 독해활동을 가장 잘 구현하였다.



교과서 상에 어떠한 풀이도 제시하지 않고, 수업 도중 교사가 제공하는 풀이를 학습자가 직접 받아 적도록 한 것은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구절마다 한자의 활용과 문법적 특징을 이해장치로 제공하여 학습자의 주도적인 독해를 최대한 도와 주고 있다.<sup>20)</sup>

둘째, 교수학습활동과 경문의 적절성이다. 사서의 문장들은 저마다의 주제와 특징, 최적의 학습요소들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교수학습활동은 경문들의 그러한 특성을 잘 살려야 하며, 경문의 주요한 학습요소들을 성취하기에 적절한 구성이어야 한다. 경문과 관련하여 적절치 못한 교수학습활동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주범이다. 예를 들어 중학교의 ㉙교과서는 『논어』의 “知者樂水, 仁者樂山” 문장을 수록하였는데, 분명 다양한 학습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20) 진재교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장원교육, 2013, 161면.

여러 학습영역 성취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문장 바르게 끊어 읽기’ 학습만을 위해 활용되었다.<sup>21)</sup>

## 通 내용 꿰뚫기

**문장 바르게 끊어 읽기**

(1) 붙여 읽기 知者樂水仁者樂山

(2) 구두 표시하여 읽기 知者, 樂水, 仁者, 樂山.

(3) 현토하여 읽기 知者是 樂水하고 仁者是 樂山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 물을 좋아하고 ✓ 어진 사람은 ✓ 산을 좋아한다.

樂 ① (락) 즐겁다.  
② (악) 음악.  
③ (요) 좋아하다.

반면, ㉞교과서는 똑같은 경문을 놓고 문장을 이루는 주요한자의 음과 뜻, ‘樂’의 여러 가지 쓰임을 익힐 수 있는 학습활동을 제공하였다.<sup>22)</sup> 이는 경문이 가진 중요한 학습요소를 교수학습 활동에 적절히 구현한 예가 된다.

▶ 아래 □ 안 글자의 음과 뜻을 그림에서 찾아 써 보자.

▶ 본문에 쓰인 한자 또는 단어와 관련하여 다음의 활동을 해 보자.

▶ 다음 사전에서 보인 ‘樂’ 자의 음과 뜻을 참고하여 빈칸에 알맞은 음을 써 보자.

知者, 樂水, 仁者, 樂山.

□

□

① 音樂: 음 □

② 快樂: 쾌 □

③ 樂園: □ 원

④ 樂山樂水: □ 산 □

21) 심경호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대교, 2013, 90면.

22) 박성규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두산동아, 2013, 37, 38면.

또한 교과서마다 사서경문 단원에 실린 각각의 읽기자료가 있다. 이러한 읽기자료들이 경문과 얼마나 매치가 되는지도 중요하다. 교수학습활동에 경문과 관련이 없는 읽기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괜한 학습의 가중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경우 “자기반성”을 주제로 『논어』의 “吾日三省吾身”과 『맹자』의 “行有不得者, 皆反求諸己”를 수록한 소단원에서 ‘신동 김시습’에 관한 읽기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단원의 주제와는 동떨어진 학습 자료를 제시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반면, 고등학교 ㉡교과서가 “欲速則不達”과 관련하여 제시한 읽기자료<sup>23)</sup>는 이 문장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현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의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특징을 잘 살려, 빠름이 중시되는 현대사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다.

**같이 보기**

**혼자 빨리 가기를 원하는가? 함께 멀리 가기를 원하는가?**

奔走하게 살아가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속도는 중요한 경쟁력 중의 하나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 危殆로워지지 않으려면 항상 빠르게 어떤 일을 해내야만 한다. 그러기에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餘暇 시간의 휴식도 게으름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삶에서 더 중요한 가치도 잊게 만들었다. 앞만 보고 속도를 높여 달려갔기에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자기 성찰,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할 겨를도 없다. 또한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더 큰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생각은 하지 못하게 되었다.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 대상을 자세히 보지 못한다. 천천히 대상을 관찰하다 보면 관심을 갖게 돼서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다. 빨리 가기를 원하는가, 멀리 가기를 원하는가, 혼자 가려는가, 함께 가려는가?

**진정한 경쟁은 무엇인가?**

경쟁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가? 경쟁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했지만 무엇이 진정한 경쟁이고 발전인지에 대해 一顧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를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경쟁은 타자와의 경쟁을 통해 강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이 아닌 克己와 忍耐를 통해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것이다.

23) 신표섭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대학서림, 2013, 41면.

이처럼 경문과 적절하게 매치되는 읽기자료는 문장의 이해도와 학습자의 사고력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중학교의 ㉓교과서는 각 단원마다 ‘성어 배움터’를 통해 성어를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는데, 이 때 제시되는 성어들이 경문의 주제와 연관되는 성어가 아님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경문과 적절히 매치되는 성어를 학습활동으로 제공하는 것이 학습의 연계와 학습자들의 흥미증진에도 바람직하다.

셋째, 경문에 관한 이해장치를 충분히 제공하는가의 문제이다. 경문은 저마다의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경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충분한 이해장치는 학습 성취에 있어서 큰 관건이 된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교수학습활동 가운데 ‘이해와 감상’과 같은 코너를 통하여 경문에 대한 이해를 충실히 돕고 있었다. 그러나 중학교의 ㉑교과서는 경문 내용에 관한 설명과 학습활동이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반면, ㉒교과서는 가장 훌륭하게 이해장치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㉒교과서는 경문 내용과 관련된 글을 본문 하단에 동시에 수록하는 구성 방식을 사용하였는데<sup>24)</sup>, 이 때 수록된 글들은 경문의 내용을 쉽게 풀이하거나 현대의 상황을 예시로 들어줌으로써 학습자들의 이해를 최대한으로 돕고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知者는 樂水하고 仁者는 樂山이니라. “논어”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되어 가는 원리를 잘 알아서 막힘이 없이 두루두루 통한다. 마치 흐르는 물과 같다. 그래서 물을 좋아한다. 어진 사람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바른 도리를 便安하게 지키면서도 中心이 단단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무거운 산과 같다. 그래서 산을 좋아한다.

이해와 감상 물은 맑게 흘러 먼 곳에 이르고, 산은 크고 묵직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베푸는 교육 이상의 가르침을 그 속에 품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학교 ㉔, ㉕교과서의 교수학습활동을 살펴보면 각각의 경문에 대한 이해장치라기보

24) 진재교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장원교육, 2013, 47면.

다는 소단원 전체를 뭉뚱그려 설명하여 ‘단원 이해’에 가까운 것들만 제공되고 있었다. 소단원 자체가 사서경문을 다룬 단원이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여러 곳에서 각기 다른 내용을 가진 경문들을 斷章取義한 소단원의 경우, 각각의 경문 내용에 대한 이해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였다. 반면 ㉔교과서는 이에 대한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㉔교과서의 교수학습활동을 보면 경문에 내포된 깊은 뜻과 문법적인 특징을 모두 아우르는 설명을 친절하게 제공하고 있었다.<sup>25)</sup>

己所不欲，勿施於人.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다.’라는 뜻의 易地思之와 비슷한 말이다.

· 所는 ‘所+수식어’의 구조로 쓰여 ‘~하는 바, ~하는 것’의 뜻을 나타내는 어조사이다.

· 於是 명사류 앞에서 대상의 뜻을 나타내는 개사이다.

· 위 문장은 명령문이다.

명령문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문장으로, ‘勿, 無, 請’ 등의 금지나 요청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경문의 이해를 돕는 교수학습활동이 교과서 안에 충분히 제공될 때에 이와 비례하여 학습자의 이해도와 학습 성공률 또한 수직상승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간된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를 여러 층위에 따라 분석하며, 諸문제점 및 교과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교과서를 분석하며 확인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문제점은 사서 단원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sup>26)</sup> ‘집중이수제’로 인해 한 학년에 몰아 학습하는 한문교과는 학년통합교과서 1권만을 사용하는 상황이다. 이 때 사서 단원이 후미에 배치되어 있다면, 학사일정상 수업시수 부족으로 수업에서 교과서의 뒷부분을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연유로 사서 단원을 학습하지 못한 채 학년을 마치는 학생들은 사서를 학습할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셈이 된다. 이를 방지하려면 기초적인 한자와 깔끔한 문법구조, 쉬운 내용으로 이루어진 사서 경문을 여럿 추출하여 이를 斷章取義함으로써 전반부 단원에 배치하는 구성 형식을 사용하는 것

25) 송재소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다락원, 2013, 54면.

26) 본고, 15-19면 <표 II-5> <표 II-6> 참조.

이 바람직하다.

이상으로 교과서의 사서 단원을 분석하며 한문과 교수자료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1절을 통해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경서교육의 지향점이 ‘비판적 사고력 신장’과 ‘문화교육의 달성’임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교과서가 이러한 교육과정의 지향점을 충족시켜주고 있는가에 대한 결론이 필요할 것이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가 사서 단원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을 요하는 학습활동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서 경문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문화읽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경서 교육에 결들인 문화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본 절에서 현행 교과서를 통해 본 사서 경문 현황과 학습요소 추출 및 교수학습형태를 토대로, 제도권 안에서 사서 경문이 가진 학습요소를 ‘재밌게’, ‘진부하지 않게’, 또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방향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법을 다음 장에서 제안해보도록 하겠다.

### Ⅲ. 全人的 文化人을 지향하는 실용적 교수학습법

Ⅱ장에서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사서경문 단원을 분석한 후, 교과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해보았다. 이는 사서의 지도방안에 있어서 ‘교재’라는 성격에 입각하여 접근한 것이다. Ⅲ장과 Ⅳ장에서는 실제 학교현장의 수업 중, 四書 經文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를 시도해보기로 한다.

한문이 경시되어선 안 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교과목의 성격 자체가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과목이라는 점이다. 한문에서 다루는 내용과 한문을 통해 발달 가능한 기능들이 다른 교과목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어를 통해 지도되는 교과교육 안에서 개념과 어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국어의 기본도대가 되는 한문을 배워야 한다. 한문 지식 측면 뿐 아니라 수업에서 학습하는 한문 문장의 내용과 주제에 따라 도덕, 역사, 과학, 진로 등 다양한 교과에 도움을 준다. 일선에서는 한문교과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살리며 한문교과목의 존재감을 다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 말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과 한문교과가 맞고 있는 위기를 고려한다면 한문이 가진 실용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3장에서는 ‘타 교과와의 연계가 가능한 교수법’, ‘문화교육의 달성이 가능한 교수법’의 두 가지 영역을 기준점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전인적 문화인을 지향하는 실용주의 교수학습법을 도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 1. 他교과와의 연계 가능한 교수법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배움 중심 수업’이라는 용어를 여러 번 접했을 것이다. 배움중심수업이란 지식과 기능의 학습에 그치지 않고,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활동인데, 수업 기법이나 기능이 아닌 교육과정 재구성, 평가 혁신과 더불어 총체적인 교육 활동 혁신을 지향한다.<sup>1)</sup> 이러한 ‘배움 중심 수업’이 수업혁신을 꾀하는 학교들 내부에 물밑듯이 적용됨에 따라 요즘의 수업은 옛날의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에서 많이 탈피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지향함으로 인해 타 교과와 연계·융합한 수업의 조직 또한 활성화되었다. 이는 당연히 한문교과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문과 교육과정 내 ‘교수학습계획’을 보면 “학습자

1) 장경원·이룬,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수업컨설팅 사례 연구」, 『한국HRD연구』 제8권 제3호, 중앙대학교 한국인적자원개발전략연구소, 2013, 47면.

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학년 간 및 다른 교과와의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sup>2)</sup>라고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서경문을 통해 타 교과와의 연계를 꾀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는 사서의 문장들이 가진 주제와 특성들을 고려해볼 때, 국어·도덕·진로·미술교육과 연계하여 수업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어·도덕·진로·미술교육과 연계한 사서경문 수업의 형태를 제안하고, 현행 교과서 내에서 이를 살린 교수·학습활동을 찾아 소개하도록 한다.

### 1) 국어·진로교육과의 연계

대한민국에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삶 속에서 사용하는 ‘우리말’이 바로 ‘국어’이다. 그렇게 ‘국어’라고 부르는 말 속에 한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육박한다. 따라서 국어와 한문을 완전히 二分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문을 中國의 언어라고 여기며 국어를 진흥시키고자 한문을 억압하는 현상 자체가 모순이다. 중국에서 유래한 表意文字인 한자에 우리말로 음과 뜻을 붙이고, 우리말로 읽고 쓰며, 우리말로 된 어미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한문 자체를 濫故知新하여 우리의 국어 안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인들이 언어생활 속에서 한문 지식의 부족으로 겪는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맞춤법을 틀리는 것<sup>3)</sup>은 물론, 단어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대학생들의 경우 國漢文이 併記된 가치 있는 학업자료들은 손도 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국어과와 연계한 한문수업은 오히려 언어생활 속 한문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서 수업은 국어과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 사서에서 유래한 성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 생활 속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성어 가운데에는 사서에 연원을 둔 성어가 굉장히 많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총괄목표의 ‘나’항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및 문법 탐구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춘다.”<sup>4)</sup>는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성어의 학습은 국어생활 향유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인 셈이다. 이를 뒷받침해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2011, 15면, 46면.

3) 실제로 채널A 뉴스특보에서 ‘洗腦’교육을 ‘쇠뇌교육’이라고 오용하여 방송한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장래희망(將來希望의 오용), 마마잃은중천공(男兒一言重千金의 오용) 등 SNS에서 비롯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는 맞춤법 실수가 많다. (이연섭, 「한글맞춤법」, 경기일보, 2015년 4월 26일자 보도문.)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국어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2015, 35면.

〈표〉 III-1 2015 개정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쓰기〉영역 성취기준<sup>5)</sup>

[9국03-07]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이 성취기준은 다양한 표현의 종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속담, 관용표현, 격언, 명언, 창의적인 발상을 통한 참신한 표현을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속담, 관용표현, 격언, 명언 등을 제시하여 그 의미를 알아보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맞는 것을 찾아 인용하여 표현해 보도록 한다. 또한 창의적인 발상을 바탕으로 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참신하게 표현해보도록 한다. …後略

한자성어는 위 교육과정에 제시된 ‘관용 표현’에 속하므로 성어를 학습하고 이를 실생활에 인용한다면 국어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사서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김용재는 成語의 교수법에 대한 논의에서 四書에서 유래한 성어를 조사하여 제시한 바 있는데,<sup>6)</sup> 본고는 그것을 참고하여 사서에서 유래한 성어를 학습유형별로 나눠 보았다.

〈표〉 III-2 四書에서 유래한 成語

①	孤獨, 似而非, 作心三日, 自暴自棄, 助長, 壟斷, 膾炙, 戰戰兢兢, 大丈夫
②	聞一知十, 克己復禮, 後生可畏, 不恥下問, 殺身成仁, 登高自卑, 切磋琢磨, 五十步百步
③	志學, 而立, 不惑, 知天命, 耳順, 從心

①의 성어들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수도 없이 접하지만 그 유래가 사서인 줄을 알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는 한자 성어라는 사실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유형의 성어는 신문기사나 책, TV 등에서 활용된 예시를 보여준 뒤 한자의 음·뜻과 그 유래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단순히 우리말 단어에 가깝다고 생각한 말이 사실 사서에서 유래한 한자 성어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언어생활 속에 깊이 녹아있는 한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할 수 있다. 또한 사용도 높은 성어들이기 그 의미와 유래를 정확히 이해하여 효과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할 수 있다. ②의 성어들은 학생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한자 성어들이지만 사서에서 유래한 줄은 알지 못하는 것들이다. 특히 聞一知十의 경우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라는, 우리말로 풀이된 속담의 형태가 학생들에게 더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논어』에서 유래한 성어라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성어의 의미가 더욱 새롭게 와 닿을 수 있다. ③은 『논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이를 지칭하는 어휘들인데,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가끔 접하긴 했으나 몇 살의 나이를 지칭하는지,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이처럼 경서의 사상과 문화가 깃든 성어를 학습한다면, 한자문화권 안에 속한

5)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국어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2015, 48면, 49면.

6) 김용재, 「四書에서 유래하는 成語에 대한 중·고교 ‘漢文科’에서의 효율적인 교수법」, 『교육연구』 제60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4, 63면.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다질 수 있으며 일상 언어의 향유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사서에서 유래한 성어를 가르친 후, 심화학습으로 성어를 활용한 글짓기 활동을 진행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국어 연계 수업이 될 것이다. 이는 한문과 교수·학습방법 중 ‘언어활용법’<sup>7)</sup>을 이용한 것으로, 사서에서 유래한 성어를 적절히 활용하여 일기나 다짐문 등의 글짓기를 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이 성어의 뜻을 이해한 정도를 파악하여 평가의 지표 또는 다음 수업의 피드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언어능력의 향상을 이룰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두 번째로 진로교육과 연계한 수업을 다루도록 하겠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탐색하고 장래희망을 정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진로계획이 명확하지 않기에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목표의식이 불분명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직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진로교과와 연계한 사서경문 수업은 위와 같은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사서학습을 통한 진로 지도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015 개정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사서교육과 진로교육과의 효율적인 융합을 모색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진로교육의 목표 중 “직업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과 진취적 의식을 갖도록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역량을 기른다.”<sup>8)</sup>라는 항목은,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향상시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3 2015 개정 중학교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일과 직업세계 이해’ 영역 성취기준<sup>9)</sup>

[9진로02-05] 직업인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이해할 수 있다.  
직업인으로서 건전한 직업윤리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언론매체 등에서 공공기관 및 개인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 등 부정적인 소식을 듣는 중학생들에게 건전한 직업인상을 정립하는 것은 ‘진로와 직업’ 과목의 의무이자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전한 직업인 모델 찾기 등을 통해 올바른 직업윤리를 형성하는 것은 미래 성공적인 직업인이 될 수 있는 자산임을 명시한다.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 기기를 접하며 TV와 인터넷에 길들여지는 현대의 학생들은 자기개발서나 역사서, 위인전과는 친숙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 자신의 삶에 멘토로 삼을 만한 인물을 찾지 못한다. 즉, 멘토를 통해 도전의식을 갖게 될 기회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이 꿈꾸는

7)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15면, 2011, 34면.

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18), 2015, 42면.

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18), 2015, 46면.

진로에 대한 뚜렷한 계획과 바람직한 덕목을 탐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꿈’과 ‘끼’를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필요한 태도와 덕목을 아는 것은 중요한 진로탐색과정이다. 사서학습, 특히 『논어』의 학습을 통해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법이 있다. 바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공자의 제자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공자와 매우 가까웠거나 직접 가르침을 전수받은 제자들은 77명 정도인데, 각 분야에서 필요한 덕목을 갖추어 크게 성공했거나, 두고두고 칭송받았던 제자들이 있다. 교사는 이를 현대의 직업군과 연관시켜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역량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그 예로 대표적인 몇 명의 인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萬事의 근본은 ‘德行’ : ‘顔回’와 ‘曾參’

안회는 평생토록 덕행과 학문에 힘을 쏟아 공자가 가장 큰 사랑을 쏟았던 제자이다. 그는 자신의 장점과 공로를 자랑하지 않으면서,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고 안빈낙도하였다. 또한 형편없는 식사에도 만족하고 진리탐구에 정진하면서 근심을 잊어 스승인 공자로부터 유일하게 仁을 실천한 賢者라는 칭송을 받는다.<sup>10)</sup> 증삼은 孔門十哲에 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공자에게 “아둔하다”는 지적까지 받았지만, 오늘날까지 덕행과 학문으로 가장 크게 이름을 날리는 인물이다.<sup>11)</sup> 그는 하루에 세 가지로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였으며, 부친에 대해 육체적인 봉양 뿐 아니라 정신적인 봉양까지 완벽하게 실천할 정도로 뉘뉘이가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점이다. 이 부분 때문에 현대의 학생들은 안회와 증삼을 본받기를 꺼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사의 근본은 덕행이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고귀한 직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인성이 바르지 못하고 덕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사회의 害惡을 끼칠 수 있다. 어떠한 진로분야든 그에 걸맞은 윤리의식과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올바른 인성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안회와 증삼, 두 인물을 통해 학생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② 政治의 비결 : 子路

공자는 자로를 冉有와 함께 정치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갖추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자로가 공자의 제자 중 정치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원칙에 있다. 첫째, 좋은 말을 들으면 반드시 실천하였다. 자로는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인 결단력과 용맹함을 십분 활용하여 훌륭한 가르침을 반드시 실천하였다. 두 번째,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쳤다. 자로는 자신의 약점과 잘못에 대한 지적을 기꺼이 받아들여 고치려고 했기에 돋보이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

10) 김덕균, 『공문의 사람들』, 논형, 2004, 28면.

11) 고전연구회, 『2천 년을 기억하는 스승과 제자』, 포럼, 2006, 42면.

었다.<sup>12)</sup> 국회의원 또는 정당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자로의 이런 태도를 본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③ 비즈니스맨 : 子貢

자공은 엄청난 巨富로 노나라에서 스승보다 더 권세가 있던 사람이었다. 자로가 돈을 많이 벌어서 富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융통성과 지혜 때문이었다. 자공이 투자하는 종목은 언제나 크게 성장했다. 사마천의 『사기』 중 「화식열전」은 자공에 대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일을 좋아하여 때를 잘 헤아려 돈을 잘 굴렸다.”고 묘사하였다. 그만큼 자공은 재물에 있어 특출한 지혜를 발휘하였다. 그렇게 사업가로서 성장하는 그에게는 남다른 윤리의식이 존재했다. 첫째, 겸손함이었다. 자공은 겸손의 미덕을 갖추어 자기보다 높다고 아첨하지 않았고, 자신보다 낮다고 빠가지 않아 자연스레 타인에게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둘째, 현란한 화술이다. 그의 화술은 인간심리를 꿰뚫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상대를 속이는 대신 정당한 명분과 실리를 논리 정연하게 펼치는 언변에 많은 이들을 매료시킬 수 있었다. 자공의 이야기는 사업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하다.<sup>13)</sup>

### ④ 최고 리더로 세울만한 자 : 仲弓

공자는 중궁을 두고 “임금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평한 바 있는데, 공자가 ‘임금감’이라고 뽑은 제자는 중궁이 유일하다. 자공이 중궁에 대해 내린 평을 보면 중궁이 군주감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가난해도 공경함을 잃지 않고, 신하를 부릴 때는 귀한 손님을 대하듯 하고, 자신의 노여움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집요하게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大戴禮記』 「衛將軍文子」)” 이것이 바로 최고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한 인품이다.<sup>14)</sup> 대통령이나 CEO를 꿈꾸는 학생은 중궁의 이러한 태도를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

### ⑤接客의 대가 : 公西華

공자는 공서화에 대해 고귀한 인사들을 품격 있게 맞이하는 예의를 갖춘 인물이라고 말했다. 최고급 호텔로비에서 고위층 인사를 안내하는 품격과 예절을 갖춘 사람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자공은 공서화에 대해 “뜻이 통달하고 예를 좋아하고 두 군주가 서로 마주 대할 때에 맞이하여 예를 집행하는데, 단정하고 정숙하게 예의를 갖추었다.(『大戴禮記』 「衛將軍文子」)”고 평했다. 이렇게 공서화는 손님을 맞는 품격이 고상하였기 때문에 공자의 심부름도 자주 다녔다.

12) 고전연구회, 『2천 년을 기억하는 스승과 제자』, 포럼, 2006, 33-36면 참조.

13) 김덕균, 『공문의 사람들』, 논형, 2004, 64-89면 참조.

14) 고전연구회, 『2천 년을 기억하는 스승과 제자』, 포럼, 2006, 92-93면 참조.

공서화의 외모는 품격 있는 외교사절로 손색이 없었고, 예약에 대해 사전 숙지하여 사신으로서 부족함 없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sup>15)</sup> 외교관이나 보좌관, 또는 손님을 상대해야 하는 영업직을 꿈꾸는 학생들은 공서화의 덕목을 본받을 수 있을 것이다.

以上으로 사서와 진로교육 간의 효과적인 융합을 모색해보았다. 앞서 제시한 예는 사서 중 『논어』와 크게 관련이 있으므로, 『논어』를 다룬 단원에서 활용하기에 효과적이다. 제자들의 長短에 관한 공자의 평가 제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원문에 수록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업 안에서 교사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관건이 된다. 교사의 재량껏 다양한 사서의 인물을 소개하여 학생들의 멘토 설정에 도움을 주고, 각 직업군에서 필요한 직업윤리를 이해하게 한다면 사서교육의 실용성을 진로교육 측면에서도 확연히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 2) 국어·진로교육과의 연계를 적용한 수업지도

국어·진로교육과의 연계를 적용한 중학교 사서경문 수업의 교수·학습지도안을 구성하였다. 이때 구성한 지도안은 논어의 문장을 수록한 한 과의 2차시 수업이다. 전시인 1차시에서 이미 본문에 수록된 사서경문의 한자와 문법, 문장의 해석학습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였다.

〈표〉 III-4 국어·진로교육과의 연계를 적용한 사서경문 수업 지도안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전시학습복습</li> <li>◆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천적 재능보다 꾸준한 노력이 성공을 만든다는 내용의 &lt;1만 시간의 법칙&gt; 동영상 시청</li> </ul> </li> <li>◆ 학습목표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문과 관련된 한자 성어를 말할 수 있다.</li> <li>- 노력에 관한 논어의 문장을 읽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내면화한다.</li> <li>- 논어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직업윤리를 이해할 수 있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전시 본문을 읽고 해석한다.</li> <li>• 동영상을 시청한다.</li>   <li>• 학습목표를 인지한다.</li> </ul>	7분	웹기반 중심 학습법	교과서, 동영상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문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gt;</li> <li>&lt;學如不及이요 猶恐失之니라.&gt;</li> <li>- 독음 및 해석을 크게 읽는다.</li> <li>- 학생들에게 문장의 의미를 추측해보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 독음을 읽고 해석한다.</li> <li>• 문장의 의미에 대해 자유롭게 이</li> </ul>			

15) 김덕균, 『공문의 사람들』, 논형, 2004, 287-288면 참조.

	<p>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예를 통해 본문 문장의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다.</li> </ul> <p>◆ 성어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의 주제와 관련된 성어(志學)을 소개하며, 15세에는 배움에 뜻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li> <li>- 『논어』 속 나이를 나타내는 다른 성어들을 차례로 소개한다.</li> </ul> <p>◆ 공자의 제자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자의 제자 중 장점을 살려 특정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소개한다.</li> <li>- 현대의 직업군과 연결하여 각 직업군 별 필요한 덕목과 직업윤리를 배운다.</li> </ul> <p>◆ 글짓기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장래희망’, ‘롤모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덕목과 노력’에 대한 글짓기.</li> </ul>	<p>야기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문장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li> <li>• 성어의 의미를 본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한다.</li> <li>• 성어를 학습하며 나이별로 성취해야 할 덕목을 이해한다.</li> <li>• 각 분야별 두각을 나타낸 공자의 제자들이 가진 장점과 덕목을 경청한다.</li> <li>• 관심있는 분야에 필요한 직업윤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한다.</li> <li>• 제시된 문항에 대해 성의 있는 글짓기를 한다. 특히 본시에서 학습한 문장을 글에 적절히 활용하려고 노력한다.</li> </ul>	33분	강의법, 문답법, 가치 탐구 학습법, 교과 연계 학습법	교과서, PPT, 활동지
정리 및 평가	<p>◆ 확인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인학습 풀게 하고 질문하기</li> <li>- 질문받기</li> </ul> <p>◆ 차시학습예고 및 끝인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인학습 풀고 질문에 답한다.</li> <li>• 모르는 내용을 질문한다.</li> <li>• 인사</li> </ul>	5분	평가, 마무리	교과서, 활동지

### 3) 도덕·미술교육과의 연계

현 세대는 물질만능주의, 인터넷과 스마트 문화의 악영향, 집단 따돌림, 이기주의, 어른 공경 문화의 쇠퇴 등 여러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사회문제에 가장 크게 휩쓸릴 위험이 있는 계층이 바로 중고등학교 학습자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한문이 ‘도덕’교과와 연계한 인성교육에 특별히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더구나 사서경문을 통한 학습은 그 문장들이 가진 주제와 특성들을 고려해볼 때, 도덕교육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를 도덕과의 교육과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표〉 III-5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총괄목표’<sup>16)</sup>

(2) 자신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삶의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근간으로 삼는 가치의 차원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실천적인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는 자신을 둘러싼 도덕 현상에 대한 탐구와 내면의 도덕성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일상적 실천을 포함하는 도덕함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구체화한다.

1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2015, 131면.

〈표〉 III-6 2015 개정 고등학교 ‘고전과 윤리’ 교육과정의 ‘목표’<sup>17)</sup>

고등학교 ‘고전과 윤리’에서는 생활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동·서양의 고전들과 직접 마주하게 함으로써 ‘삶의 의미’ 또는 ‘더 나은 삶’에 대해 도덕적으로 탐구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다.…後略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덕과는 ‘윤리적 성찰’을 삶을 통해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다. ‘고전과 윤리’과목은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에서 특히 공자의 핵심사상인 ‘仁’의 성찰과 실천을 명시하였다.<sup>18)</sup>

이를 토대로 四書教育과 道德教育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한 지도법을 모색해본다면, ‘孝’와 ‘仁’, ‘배려’, ‘정직’, ‘자기반성’ 등 여러 人性的 教育要素가 담긴 사서경문을 수업한 뒤, 자기반성 또는 앞으로의 다짐 등을 논술해보는 학습활동이 가능하다. 사서경문은 대부분의 문장이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성을 내면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주제와 교훈이 담긴 문장들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사서 속에 담긴 윤리와 도덕성으로 현 시대를 개관하고 자신을 반성하며 이를 내면화하여 삶 속에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은 주입식·외재적 인성교육에서 탈피한 능동적·내재적 인성교육이 되는 것이다. 이는 도덕교육이 강조하는 ‘도덕성의 실천’과도 맞물린다.


중학교의 ©교과서는 논술을 통한 인성학습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sup>19)</sup>

**우리들의 三省 吾身 만들기**


다음은 중자가 말한 ‘三省 吾身’의 내용입니다.



남을 위하여 충실하게 일했는가?



친구들과 사귄 때 믿음을 지켰는가?



배운 것을 잘 익혔는가?

생활 속에서 날마다 성찰해야 할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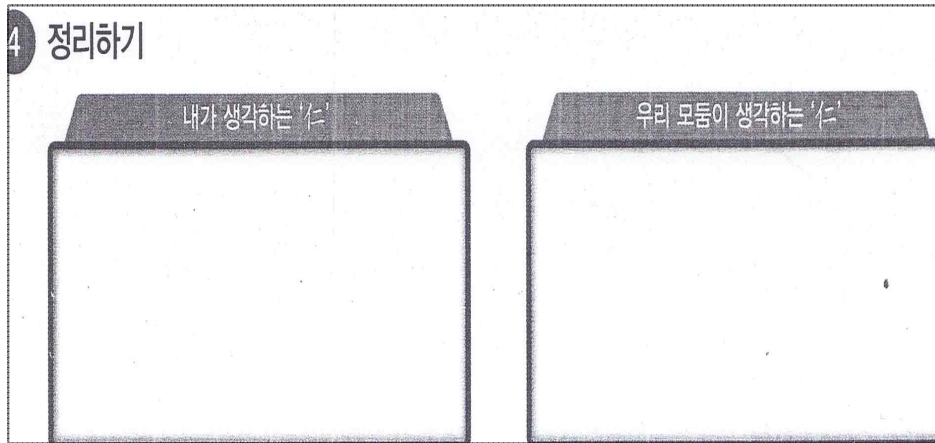
1.

17)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고전과 윤리 교육과정』 제 2015-74호, 2015, 347면.

1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고전과 윤리 교육과정』 제 2015-74호, 2015, 348면.

19) 심경호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대교, 2013, 141면.

『논어』의 ‘三省吾身’을 토대로 매일 자신을 성찰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자기반성을 유도하였다. 또한 ‘仁’의 사전적 정의를 제시하여 친숙함을 주고, 『논어』에서 공자와 제자의 문답으로 등장하는 ‘仁’의 여러 가지 개념을 보여준 뒤 모둠원들이 서로 ‘仁’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sup>20)</sup>



㉠교과서는 학습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의 군자 지수를 측정해보는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sup>21)</sup>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흥미를 느끼게 될 뿐 아니라 각각의 항목들을 통해서 ‘君子’ 개념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스스로를 반성해봄으로써 인성계발에 유의한 경험을 가지게 된다.

**재미난 활동** - 나의 군자 지수는?

다음은 ㉠과 관련된 말이다. 자신과 비교하여 해당하는 만큼 색을 칠해 보자

• 의리(義理)가 있다.	☆☆☆☆☆
• 마음이 평안하고 너그럽다.	☆☆☆☆☆
• 관대하고 교만하지 않다.	☆☆☆☆☆
• 남을 돕되 보답을 구하지 않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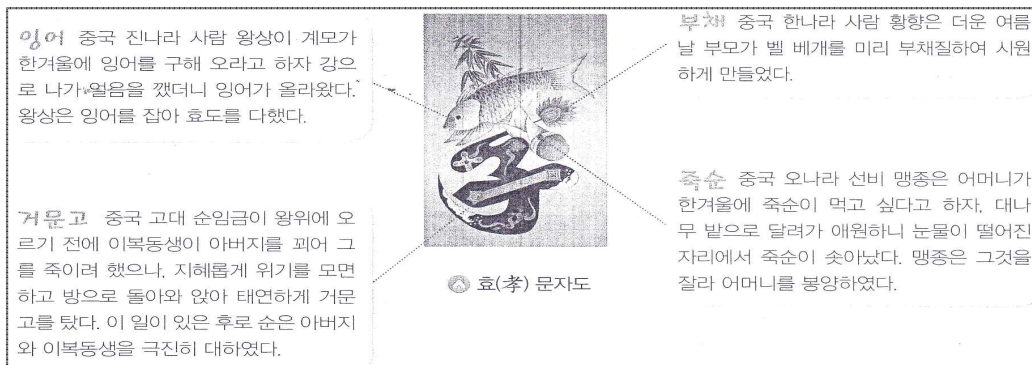
사서경문 단원을 마친 후에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인성교육 학습법으로는 ‘좌우명 만들기’ 또는 ‘잠(箴) 짓기’ 활동이 있다. 좌우명(座右銘)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자리 오른쪽에 놓고 명심할 내용’이라는 뜻인데, 늘 가까이 두고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언행을 경계하는 짧

20) 심경호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대교, 2013, 265면.  
 21) 김연중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교학사, 2013, 219면.

은 말을 가리킬 때 좌우명이라 이름 붙인다. 잠(箴)은 ‘대나무 죽(竹)’과 ‘모두 함(咸)’을 합한 글자로, 옷을 꿰매 때 사용하는 대바늘을 뜻하나, 사람도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깊고 터진 곳을 꿰매야 하기에 ‘경계하다’라는 뜻이 담기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깊은 교훈이 담긴 짙막한 말이나 늘 가까이 두고 새기고 싶은 말을 箴言이라 하였는데<sup>22)</sup> 훗날 箴銘類라는 문체가 따로 생겨날 만큼 先人들은 자신을 성찰하는 글귀를 짓는 일에 힘썼다. 이를 통해 볼 때 좌우명 또는 箴을 만드는 활동은 자기성찰 및 인성계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 학습자들은 이러한 활동을 접해볼 기회가 흔치 않다. 따라서 사서의 문장 여러 개를 학습한 뒤 배운 문장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좌우명이나 箴, 더 나아가 급훈을 만들고 그 이유 및 다짐을 설명해보는 활동은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다음은 미술교육과의 연계방안 다뤄보겠다. 앞서 국어·진로·도덕교육과 연계한 한문수업을 다룬 바 있지만, 더 나아가 한문수업을 예체능 교과와도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의 예술적 창의력을 자극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교과와의 연계는 주목할 만하다. 또한 그림그리기와 같은 미술 활동은 학습자들의 높은 흥미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한문교과 뿐 아니라 전 교과에서 애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고는 한문교과만이 활용 가능한, 특히 사서경문 수업에 특화된 그림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곧 ‘문자도(文字圖) 그리기’ 활동이다. 아래 그림이 바로 교과서에서 인용한 대표적인 ‘孝 문자도’이다.<sup>23)</sup>



‘文字圖’란 民書의 한 종류로 한자에 그 글자의 의미를 형상화하여 그린 그림이다. 다시 말하면 글자의 의미와 관계있는 고사나 설화의 내용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글자 속에 그려 넣어 서체를 구성한 것이다.

22) 정민 외,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휴머니스트, 2011.  
 23) 심경호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대교, 2013, 132면.

사서경문 수업에서 문자도를 활용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사서 속의 주된 개념 “仁·義·禮·智·信” 다섯 글자를 이용하여 문자도를 그려보게 하는 것이다. 이 때 학습자들에게 글자의 의미를 각자 생각하게 하고, 그 의미를 나타내는 각각의 상징물들로 문자를 이루게 해야 한다. 또한 왜 그 상징물들을 이용하여 글자를 만들었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文字圖 그리기 활동이 한문과 뿐 아니라 미술교육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학습활동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III-7 2015 개정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표현’영역 성취기준<sup>24)</sup>

- [12미01-01] 다양한 발상 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 [12미01-02] 조형 요소와 원리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2미01-04] 주제와 표현 의도, 재료와 표현 방법, 매체, 표현 과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상징물을 이용하여 서체를 구성해야 하는 文字圖는 학습자의 창의적인 발상을 요하며, 그림을 이루는 상징물들을 다채롭게 응용하고 매치해야 한다. 또한 표현의도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미술과가 추구하는 방향을 내포하고 있다.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기발한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文字圖는 차츰 그 학습효과를 인정받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四書와 美術教育의 융합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바로 『五倫行實圖』이다. 대개 미술에서 ‘이야기’를 그려낸 것, 다시 말해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따른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서양의 산물인 聖書畫가 언급되어 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오률행실도』 역시 교육과 문화가 결합되면서 “문화의 이미지화”를 이루어 낸 소중한 예술적 산물이다. 『오률행실도』란 정조 21년(1797) 무너져 내리는 인륜의 실천을 교육적으로 확충하여 왕도정치를 행하기 위해, 세종대에 편찬된 『三綱行實圖』와 『二倫行實圖』 두 서적을 합하여 수정을 加해 간행한 그림 서적이다.<sup>25)</sup> 그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孝子, 忠臣, 烈女, 兄弟, 朋友, 師弟간에 모범이 될 만한 행실을 모아 글로 기록하고, 조선의 대표적 화가인 金弘道의 화풍이 깃든 그림을 덧붙였다는 것이 특징이다.<sup>26)</sup> 따라서 『오률행실도』의 학습을 통해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중 ‘감상’영역에 기술된 “미술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미술 문화에 대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기른다.”<sup>27)</sup>는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유교적 윤리관에 따라 편찬된 그림 서적이므로,

2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2015, 795면.  
 25) 정영, 「『오률행실도』의 교육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31권, 원광대학교, 2003, 234면 참조.  
 26) 정영, 위의 논문, 234면, 237면 참조.

사서경문 수업에서 본문과 연결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만한 그림 자료가 풍부하다는 것은 당연히 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시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에 제시된 【그림 1】<sup>28)</sup>은 조선왕조 때의 효자 유석진이 아버지의 惡疾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무명지를 자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림 2】<sup>29)</sup>는 고려시대의 때의 효자 누백이 호랑이에 물려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어린 나이임에도 자신보다 덩치가 큰 호랑이의 머리를 도끼로 내려찍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1】 石珍斷指



【그림 2】 婁伯捕虎

다음 【그림 3】<sup>30)</sup>은 조선시대 때 스승과 아버지를 똑같이 공경하였던 윤은보라는 사람의 덕행이 그려진 그림이다.

27)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2015, 276면.  
 28) 『五倫行實圖』 중 「石珍斷指」, 김홍도, 1797년, 종이에 채색, 22x15cm, 호암미술관.  
 29) 『五倫行實圖』 중 「婁伯捕虎」, 김홍도, 1797년, 종이에 채색, 22x15cm, 호암미술관.  
 30) 『五倫行實圖』 중 「殷保感鳥」, 김홍도, 1797년, 종이에 채색, 22x15cm, 호암미술관.



【그림 3】 殷保感鳥

스승이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나자, 윤은보는 부모님께 허락을 맡아 스승님의 무덤 곁에 여막을 짓고 밤낮으로 제사를 올렸다. 그러다가 윤은보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 윤은보는 집에 돌아가 약을 달여 올리면서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하다가 아버지가 완쾌되자 다시 스승의 무덤 곁으로 달려갔다. 결국 아버지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윤은보는 아버지 곁에 여막을 짓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바람이 불어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세워둔 제사상의 쉼이 날아가 버렸는데 며칠 뒤 윤은보의 효심에 감동한 까마귀가 향합을 찾아 물어다 주었다는 이야기<sup>31)</sup>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앞서 소개된 그림 이외에도 『오륜행실도』에는 유교적 윤리관에 비추어 덕행이 뛰어난 인물 150여명 정도의 행실도가 그려져 있다. 따라서 수업에서 다루는 사서경문의 주제와 연결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행실도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 학생들이 현 시대에 실천할 수 있는 효행과 덕행을 생각해보고 직접 현대적인 행실도를 그려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는 미술과에서 정립한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하여 효과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교육목표<sup>32)</sup>와도 부합하는 활동으로써, 사서와 미술교육의 바람직하게 융합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4) 도덕·미술교육과의 연계를 적용한 수업지도

도덕·미술교육과의 연계를 적용한 고등학교 사서경문 수업의 교수·학습지도안을 구성하였다. 이 역시 2차시 수업의 지도안이다. 전시인 1차시에서 이미 본문에 실린 사서경문의 한자와 문법, 해석학습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였다.

31)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3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2015, 273면.

〈표 III-8〉 도덕·미술교육과의 연계를 적용한 사서경문 수업 지도안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전시학습복습</li> <li>◆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하고 반성하기</li> </ul> </li> <li>〈易地思之의 자세란? 孝道란?〉</li> <li>◆ 학습목표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문을 통해 선인들의 이타심과 孝 사상을 이해한다.</li> <li>- 문자도를 그려보며 仁과 孝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안을 탐색해본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전시 본문을 읽고 해석한다.</li> <li>• 경청한다.</li>   <li>• 학습목표를 인지한다.</li> </ul>	5분	문답법	교과서, PPT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문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仁者는 己欲立而立人하며 己欲達而達人이나라.〉</li> <li>〈父母之年은 不可不知也니, 一則以喜요, 一則以懼니라.〉</li> <li>- 다양한 일화와 예를 곁들인 설명을 통해 문장의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다.</li> </ul> </li> <li>◆ 학습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지를 나누어준다.</li> </ul> </li> <li>① 〈문자도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자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예시를 보여준다.</li> <li>- 仁과 孝 중 하나의 한자를 골라 문자도를 그려보게 한다.</li> </ul> </li> <li>② 〈실천행동 탐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仁과 孝의 행동이 무엇이 있을지 탐색하도록 유도한다.</li> <li>- 탐색한 실천행동을 글로 작성하게 한다.</li> <li>- 교실을 순회하며 문자도와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다.</li> </ul> </li> <li>◆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완성한 문자도를 직접 소개하고 설명하게 한다.</li> <li>- 학생이 작성한 仁과 孝의 실천행동을 발표하게 한다.</li> <li>- 학생들의 발표에 칭찬과 피드백을 제공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문장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li>   <li>• 활동지를 받고 미술도구를 준비한다.</li> <li>• 설명을 경청하고 예시에 주의집중한다.</li> <li>• 仁과 孝 중 하나의 한자를 고른 뒤 문자도를 그린다.</li>   <li>• 자신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仁과 孝의 행동이 무엇이 있을지를 깊이 생각한다.</li> <li>• 생각을 정리하며 글로 작성한다.</li> <li>• 모르는 부분은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질문한다.</li>   <li>• 친구들에게 자신이 완성한 문자도를 소개하고 설명한다.</li> <li>• 작성한 글을 발표한다.</li>   <li>• 친구들의 발표를 경청한다.</li> </ul>	40분	강의법, 그림을 활용한 학습법, 문제 중심 학습법, 가치 탐구 학습법	교과서, PPT, 활동지, 색연필, 싸인펜 등 미술 도구
평가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활동 결과물에 대한 평가정보를 설명하고 결과물을 걷는다.</li> </ul> </li> <li>◆ 차시학습예고 및 끝인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물을 제출한다.</li>   <li>• 인사</li> </ul>	5분	마무리	교과서, 활동지

이상으로 국어·도덕·진로·미술교육과의 연계가 가능한 사서경문 교수·학습법을 모색해보았다. 경문의 주제를 살려 다양한 교과와 연계한 수업은 그렇지 않은 수업에 비해 학습자들의 높은 흥미를 유발하며, 한 번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발달 영역을 자극할 수 있다. 혹 한문의 입지가 좁아져가는 마당에 한문만이 가진 고유한 성격을 멀리하고 다른 교과와의 융합을 꾀해야 되겠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타 교과와 연계함으로써, 한문과가 이처럼 다양한 수업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 한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 2. 문화교육 성취 지향의 교수법

‘儒學’은 동아시아의 중세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문화·교육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사상이었으며,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가 급속히 현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한자 문화권 내에 뿌리 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교 사상에 근본을 둔 사서 또한 동아시아의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아래 형성되어 한자 문화권의 문화 상식 및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경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서에 대한 이해는 한자 문화권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sup>33)</sup>

실제로 한문은 교과가 가진 특수한 성격 상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에 가장 적합한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육과정만 살펴봐도 한문교과가 문화교육에 강점이 있다는 사실을 뚜렷이 알 수 있다. 한문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보면 다섯 개의 항목 가운데 두 개 항목이 문화교육을 뚜렷이 언급하고 있으며<sup>34)</sup>, 내용체계에서도 ‘문화’가 당당히 대영역으로 우뚝 섰다는 점이 앞선 진술에 대한 충분한 傍證이 된다. 따라서 한문교과를 통한 문화교육은 수업 현장에서도 차츰 더 강조되어야 하며, 그 중 사서를 기반으로 한 문화교육은 그 형태와 소재가 매우 무궁무진하므로 이에 대한 교재집필진 및 교사들의 끊임없는 계발이 필요하다. 본고는 주변 사례 떠올리기, 전통문화의 활용의 세 가지를 문화교육의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주변 사례 떠올리기

33) 신덕수, 「경전교육의 지향성 탐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3, 53면 참조.

3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2011, 4면 : “한문 과목의 목표” 중 ‘라’, ‘마’ 참조.

우선 교육과정 내에서 문화영역에 포함된 “한자문화”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한다.

〈표〉 III-9 2009 개정 공통 교육과정 <한자문화>영역에 기술된 내용<sup>35)</sup>

(1) 선인들의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우리의 선인들은 수천 년 동안 생활 속의 정서, 지혜, 사상 등을 한문으로 기록해 놓았다. … 中略 … 우리 민족의 풍부한 전통문화 가운데 학습자의 정서에 맞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정선하여 이를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한다.

〈표〉 III-10 2009 개정 교육과정 “한문 I” <한자문화>영역에 기술된 내용<sup>36)</sup>

(1) 선인들의 지혜를 내면화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파악하여, 궁지와 주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한문 기록 속에는 현대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간 소외, 물질 만능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환경 문제 등)에서 초래된 가치관의 혼란 및 인간성의 상실을 치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한문을 학습할 때에는 학습자의 감각에 맞으면서도 실천 가능한 내용을 정선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 後略 …

공통 교육과정의 내용을 기술한 첫 번째 표를 보면 “학습자의 정서에 맞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정선”하라고 하였으며, “한문 I” 교육과정의 내용을 기술한 두 번째 표에서도 “학습자의 감각에 맞으면서도 실천 가능한 내용을 정선”하라고 제시한다. 이를 통해서 도출해 낸 본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서경문 학습을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문이 현 시대와 동떨어진 구시대적인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킴을 통해 학생들의 공감대와 실천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도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친근한 사례를 풍부히 제공하며, 더 나아가 학생들이 직접 주변에서의 사례를 떠올려 보게 한다면 사서를 통한 효과적인 문화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논어』의 ‘殺身成仁’이 현 시대와 동떨어진 불가능한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유학생 故이수현씨 이야기, 연평해전 때 전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바친 청년들, 세월호 사건 당시 친구를 구하기 위해 앞장서다가 희생된 이들의 사례를 통해 殺身成仁의 위대한 정신을 현대에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할 수 있다. 또한 “人一能之, 己百之”와 같은 努力에 관한 문장을 학습할 때에는 각고의 노력으로 성공의 반열에 오른 스포츠 스타 및 유명인들의 사례를 통해 학습자들이 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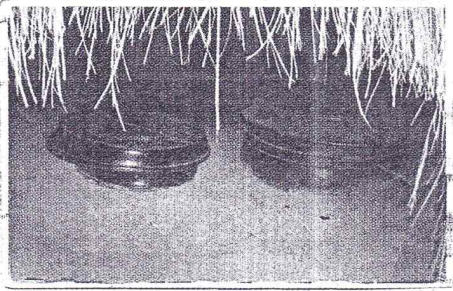
35)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2011, 10면.

3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2011, 2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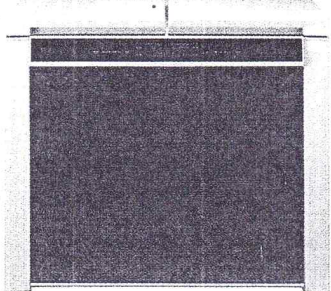
의 의미를 계승하고자 다짐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맹자』의 “老吾老, 以及人之老. 幼吾幼, 以及人之幼.”와 같은 문장을 다룰 때에는 공공장소에서의 어른 공경,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각종 기부 등 다양한 사회 美談을 제시한 뒤, 학생들에게 문장에 담긴 정신을 직접 실천해볼만한 방안을 찾아보게끔 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도 이처럼 경문에 관한 주변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 학습활동을 찾을 수 있었다. 중학교 ⑥교과서는 ‘溫故知新’의 예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직접 또 다른 예를 찾아보는 활동을 단원 도입부분에 제공하였다.<sup>37)</sup> ‘溫故知新’ 문장은 학생들에게는 익숙하긴 하지만 그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장이다. 따라서 ‘溫故知新’이 무엇인지에 관한 예를 제공한다면, 더군다나 그 예가 우리나라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문장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과 동시에 문화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효과적이다.

☛ 우리 주변에서 옛것[故]을 잘 익히고[溫] 살펴서 새로운 것[新]을 알아낸[知] 예를 찾아보자.



조상들은 김장을 하면 땅을 파고 김장독을 묻어 일정한 저온에서 김치를 익히고 저장하여 좋은 맛을 유지하였다.



요즘에는 김장독의 보관 원리를 이용해 김치에 맞는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김치 냉장고를 개발하였다.

사서경문을 통한 문화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서 속 문장에 담긴 깊은 의미와 교훈을 일상생활의 예를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여 학습자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흥미롭고 친근한 예가 가득한 경문수업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경전에 대해서 ‘어렵고 따분한 것’이라는 거부감을 가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더욱 쉽게 이해하게 하며, 더 나아가 개개인의 인생에서 뜻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와 동시에 교사가 ‘사서경문은 수 천 년 전 선인들의 가르침이지만, 지금 시대와도 전혀 동떨어지지 않는 것’임을 인지시킨다면, 굳이 어렵고 철학적인 학습과정이 없어도 경전에 담긴 사상이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 녹아

37) 박성규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두산동아, 2013, 76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수준에만 도달해도 ‘한문교육’의 정 의적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사례를 활용한 수업지도

『논어』의 ‘배움’을 주제로 한 문장들을 본문으로 삼아 주변 사례를 활용한 중학교 사서경문 수업의 교수·학습지도안을 구성하였다. 전시인 1차시에서 이미 본문의 한자와 문법, 해석학습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였으며, 아래에 제시된 것은 2차시 수업의 지도안이다.

〈표〉 III-11 사례를 활용한 사서경문 수업 지도안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 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전시학습복습</li> <li>◆ 동기유발 〈나의 공부습관은 어떤 유형?〉 - 황소독심형, 벼락치기형, 과목취약형, 학원중독형, 무념무상형을 제시하고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공부습관을 파악하고 반성하게 한다.</li> <li>◆ 학습목표확인 - 경문의 의미와 그에 관한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 배움에 관한 선인들의 자세를 계승하여 실천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전시 본문을 읽고 해석한다.</li> <li>•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자신의 공부습관이 어떤 유형인지를 생각한다.</li> <li>• 학습목표를 인지한다.</li> </ul>	5분	강의법, 문답법	교과서, PPT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문학습 1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 핵심단어인 習의 짜임과 개념을 설명한다. (習→새가 날갯짓을 익혀나가는 것) - 경문과 관련된 익숙하고 친근한 사례를 제공하여 문장의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다. • 사례① 자전거 연습 : 페달밟기→핸들조정→중심잡기→단거리 달리기→장거리 달리기→달리기의 과정을 익혀나가 결국 공원의 가로수 길을 뽕뽕 달릴 수 있게 됐을 때의 기쁨 • 사례② 영어공부 : 알파벳암송→단어외우기→문장만들기의 과정을 익혀나가 결국 외국인과의 소통이 가능해졌을 때의 기쁨 - 학생들이 직접 문장과 관련된 주변 사례를 제시하게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설명을 경청한다.</li> <li>• 교사가 제공하는 사례와 경문을 관련지어보며 문장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li> <li>• 교사가 앞서 제시한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이 직접 문장과 관</li> </ul>		강의법,	

	<p>◆ 본문학습 2          &lt;學而不思則罔하고 思而不學則殆니라.&gt;          - 경문과 관련된 익숙하고 친근한 사례를 제공하여 문장의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다.          • 사례① 學而不思則罔          : 미국에서 성공한 식당을 한국에서 그대로 벤치마킹→실패→한국의 특성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          • 사례② 思而不學則殆          : 似而非 종교의 예→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정불변의 진리로 여김→독불장군→병에 걸린 신자를 놓고 잘못된 해결방법을 사용          - 학생들이 직접 문장과 관련된 주변 사례를 제시하게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p>	<p>관련 사례를 찾아 발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가 제공하는 사례와 경문을 관련지어보며 문장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li> <li>교사가 앞서 제시한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이 직접 문장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 발표한다.</li> </ul>	35분	<p>사례 활용 학습법,          문제 중심 학습법,          문답법</p>	<p>교과서,          노트,          PPT</p>
평가 및 정리	<p>◆ 확인학습          - 확인학습 풀게 하고 질문하기          - 질문받기          ◆ 차시학습예고 및 끝인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인학습 풀고 질문에 답한다.</li> <li>모르는 내용을 질문한다.</li> <li>인사</li> </ul>	5분	평가, 마무리	교과서

### 3) 전통문화의 활용

얼마 전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경복궁을 관람할 때, 무자격 중국인 가이드가 “경복궁 교태전은 왕비가 교태를 부렸던 곳이다.”라고 하며 폄하적인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된 적 있다. 이는 “교태전”이라는 명칭이 어떠한 한자로 구성되었는지를 몰랐거나 무시한 점, 전통 문화재에 깃든 뿌리 깊은 유교문화에 관심이 없었던 점에서 비롯된 실수이다. 문화에 대한 無知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릇된 지식을 심어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역사의 왜곡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더욱더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서 수업 안에서 전통문화를 다름을 통해 그 가치를 이해하게 하는 교수 학습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다룬 ‘주변 사례 떠올리기’가 간접적으로 다가가는 문화교육의 방편이라면, 이번에는 상당히 직접적인 문화교육인 셈이다. 전통문화를 활용한 수업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유교사상에 뿌리를 둔 전통문화재를 활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유교적 가치관을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갔던 옛날 선비들의 생활문화를 활용하는 것이다.

#### ① 전통 유교문화재의 활용

유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 사서 수업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문화재로 다음과 같은 것들

이 있다.

첫째, 宮闕이다. 조선을 건국한 세력은 성리학에 기반을 둔 유교적 이상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기에 조선의 궁궐은 중국처럼 위압적이지도, 일본처럼 화려하지도 않다. 유교적 원칙에 의해 질서를 추구하고 백성을 근본으로 하여 하늘과 자연을 받아들이듯 자연 속에 하나가 된 건축물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 이름 하나에도 새로운 나라가 추구하는 의미를 담고자 했으며, 전각 하나, 문 하나까지도 유교의 이념과 정신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결국 궁궐에는 그 시대의 이념이 집대성되어 있는 셈이다.<sup>38)</sup> 이 때 표현한 유교의 이념은 대부분 유교경전에서 따온 것이다. 따라서 사서경문을 학습함과 동시에 궁궐의 건물에 담긴 이름을 살펴본다면 효과적인 문화교육이 될 것이다. 조선시대에 지어진 궁궐은 法宮인 경복궁과 離宮인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까지 총 5개다. 그러나 경복궁과 창덕궁을 제외한 다른 궁궐은 일제에 의해 상당 부분 훼손되어 조선왕조가 추구한 유교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경복궁과 창덕궁 건물에 담긴 이름, 예를 들면 경복궁의 光化門, 勤政殿, 交泰殿<sup>39)</sup> 등과 창덕궁의 敦化門, 仁政殿, 宣政殿<sup>40)</sup> 등의 명칭을 학습한다면 경전에 담긴 사상, 조선이 추구한 유교적 이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둘째, 成均館, 鄉校, 書院과 같은 교육기관이다. 조선조에는 국가의 통치이념인 성리학에 기반을 둔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유교적 소양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립대학인 成均館을 국가의 최고교육기관으로 운영하였다. 성균관은 유교의 성현에 대한 배향공간인 文廟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리학이 국가이념이었던 조선에서는 왕이 직접 문묘에 나아가 참배하고 성균관 유생들에게 학문을 격려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성균관 입학의 목적은 과거시험 합격이기 때문에 중요 교육 내용 또한 과거시험 준비와 관련된 것들이었다.<sup>41)</sup> 뿐만 아니라 지방에는 모든 군현에 중등교육기관인 鄉校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통해 조선이 지방민에 대한 유교윤리의 보급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음을 알 수 있다. 성균관과 향교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공간으로 明倫堂을 두었는데 ‘명륜’은 『孟子』 「滕文公」 편에 “학교를 세워 교육을 행하는 것은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또한 유난히 큰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는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해서이다.<sup>42)</sup> 서원 역시 조선조 지

38) 송명석, 『우리나라의 유교문화유산 베스트27』, 탐메이드북, 2015, 12~13면.

39) 光化門의 光化란 ‘왕도정치에 의해 덕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뜻한다. 勤政殿에는 ‘밤낮으로 부지런히 국가의 일을 살펴 백성을 보살피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왕비가 거쳐하던 交泰殿의 交泰란 ‘천지, 음양이 잘 어울려 태평을 이룬다’는 뜻으로 『주역』에 나오는 말이다. (송명석, 위의 책, 22~25면.)

40) 敦化門의 敦化란 ‘왕이 큰 덕을 베풀어 백성들을 돈독하게 교화한다’라는 뜻이다. 仁政殿, 宣政殿은 ‘어진 정치를 널리 베푼다’는 뜻으로 역시 왕도정치를 나타낸다. (송명석, 위의 책, 33~37면.)

41) 송명석, 『우리나라의 유교문화유산 베스트27』, 탐메이드북, 2015, 238~240면.

방의 士林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사학교육기관으로, 『小學』과 四書五經의 탐구를 통해 자기 수양한 院生들을 유교의 이상적 인간형인 君子로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하였다.<sup>43)</sup> 이와 같이 경전을 가르치며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을 펴던 전통 교육기관들을 사서 수업 안에서 소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學問과 배움을 주제로 한 사서의 문장들을 배운 뒤, 선조들은 어떤 기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했는지 추측하게 한다. 그런 다음 사진과 웹사이트 등 다양한 자료와 함께 전통교육기관을 소개하는 것이다. 성균관을 비롯하여 향교와 서원들은 지금도 現存하기 때문에 그 교육적 가치가 더욱 크다.

셋째, 서울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四大門이 있다. 한양을 방위하기 위해 사방에 세운 사대문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동서남북의 방향 뿐 아니라 유교의 五常, 즉 仁·義·禮·智·信의 뜻을 담았다. 도성의 북쪽 대문이었던 肅靖門<sup>44)</sup>과 남쪽 대문이었던 崇禮門, 서쪽 대문이었던 敦義門과 동쪽 대문이었던 興仁之門, 그리고 도성 안 동편의 종을 보호했던 普信閣이 그것이다.<sup>45)</sup> 이를 참고하여 五常의 도리를 다룬 사서의 문장을 배운 뒤, 四大門의 명칭을 학습해보는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사대문에도 역시 유교를 숭상했던 조선의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 사실 학생들에게는 사대문의 본래 이름이 낯설 수 있기 때문에, 한문 수업을 통하여 수없이 보고 지나가던 사대문의 본래 이름과 그 유래를 알게 된다면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② 선비문화의 활용

한문교육을 통해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그들의 사상과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시대의 이념을 몸소 실천해 나갔던 옛날 선비들의 생활상과 문화를 알아보는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서경문 수업에 있어서는 그 기준점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경서는 유교사상을 根底로 한 책이며, 선비들이 유학을 최고이념으로 정립하고 경서 속의 가치관을 토대로 살아갔던 시대는 조선시대이다. 따라서 사서경문 수업에 활용할 선비문화를 알아볼 때에는 조선시대의 선비문화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첫째로 선비들의 여가생활을 소개할 수 있다.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선비들은 과연 여가생활을 어떻게 향유했는지에 대하여 학습해보는 것이다. 선비들의 여가생활은 대부분 음악, 원예, 회

42) 송명석, 위의 책, 247~250면.

43) 송명석, 위의 책, 62~68면.

44) 숙정문의 서북쪽에는 '지혜를 넓힌다'는 뜻의 弘智門을 세우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하였다. (안재철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미래엔, 2013, 186면.)

45) 안재철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미래엔, 2013, 186면.

화, 서예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먼저 음악활동을 보면, 유교 이념의 핵심은 禮樂사상으로 인해 禮를 바로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써 樂의 실천은 선비들의 핵심적인 과업이었다. 그리하여 선비들은 修己의 음악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 때 추구했던 방법이 바로 詩歌와 彈琴의 실천이었다. 이로 인해 王道政治, 憂國愛民, 忠君節義 등의 유교적 가치관을 담은 많은 詩歌가 창작되었으며, 거문고는 선비들의 자기수양의 악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sup>46)</sup> 실제로 『蘭溪遺稿』에 수록된 「가훈십칠칙」 제11번째에는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음률가인 박연(朴堧, 1378~1458)이 “琴瑟은 正樂의 그릇으로, 예로부터 군자가 늘 곁에 두고 이것으로써 성정을 길렀으니 조용히 스스로 연주함이 옳은 것이다.”<sup>47)</sup>라고 언급하여 선비적 禮樂 문화의 기틀을 잡기도 하였다. 또한 원예활동을 살펴보면, 선비들은 화초와 꽃을 玩賞함을 통해 여가생활을 즐겼는데 특히 四君子로 통칭되는 梅蘭菊竹(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좋아하여 이들을 기르고 완상하며 자기 수양을 다짐하곤 했다. 회화활동에 있어서는 산수를 유람하며 人爲가 없는 자연의 세계를 감상한 뒤에 산수화를 그려보며 산과 물처럼 하늘의 순리를 따르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다지기도 하였다. 또한 학문을 숭상하는 가치관과 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서책을 중심으로 書架, 문구류, 가구, 화훼 등을 곁들여 그린 ‘책거리도’와 같은 정물화를 그리며 여가생활을 보내기도 하였다.<sup>48)</sup> 서예 또한 선비들의 생활상 중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이다. 경전 속에서 접한 성현들의 名言·名句를 놓고, 이를 마음 속 깊이 간직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정성껏 먹 을 갈아 붓을 잡고 한 자 한 자 써내려가는 서예활동은 선비들의 자기 수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였다. 이와 같이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선비들의 생활상을 사서 수업 안에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 ‘憂國愛民’을 주제로 한 경문을 배워보며 이와 비슷한 주제를 담은 선조들의 詩歌를 소개할 수도 있고, ‘君子’의 특성을 다룬 경문을 학습한 뒤, 梅蘭菊竹의 四君子를 제시하여 군자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다. 『논어』의 “知者樂水, 仁者樂山”를 가르쳤다면, 산수화를 자주 그렸던 선비들의 여가생활을 소개하고 것처럼 산수화를 사랑했던 이유를 유추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수업 안에서 학생들이 직접 서예를 해보는 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옛날의 학동들을 유교적 소양을 갖춘 선비로 육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전통 서당 교육을 소개하는 것이다. 서당은 향촌사회에 생활근거를 둔 士族과 백성이 주체가 되어 面·洞·里를 기본 단위로 설립한 초중등 단계의 사설 교육기관이다.<sup>49)</sup> 서당에서 가르쳤던 교육 내용과

46) 윤영해, 「朝鮮前期 士大夫 琴樂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2면.

47) 『蘭溪遺稿』, 「家訓十七則」: “... 若其琴瑟 正樂之器 自古君子 不離於側 以養性情者 靜中手自撫弄 可也.” (윤영해, 위의 논문, 45면에서 재인용)

48) 전지윤, 「유교문화가 조선후기 민화에 미친 영향-효제문자도와 책거리도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9면.

49) 최윤용, 「서당의 교육방법과 현대적 의의」, 『한문고전연구』 제17권,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343면

교육 방법은 최윤용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었다.

講讀의 교재로는 서당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千字文』, 『童蒙先習』, 『明心寶鑑』, 『小學』 등이 핵심교재였으며, 『大學』, 『論語』, 『孟子』, 『中庸』, 『詩經』, 『書經』, 『周易』 등이다. … 中略 … 書堂教育은 학습자의 개인차와 그 능력에 맞게 범위를 정하여 놓고 주로 개인적 지도방법에 의하여 학습이 이루어진 셈이다. 따라서 서당에 똑같이 입학했어도 그 능력에 따라서 교육내용도 다르고 그 진도도 달라졌다. 이와 같이 서당교육은 철저한 개별학습에 의하여 개인별 학습 진도를 점검한 것을 본다면 무학년제를 운영하였으며, 언제나 유급 월반도 가능한 체제였다. 서당에서의 교육 내용은 읽고 암송하여 문장의 뜻을 파악하는 講讀, 詩作活動인 製述, 쓰기인 習字의 三教科이며, 이밖에도 놀이 학습을 통하여 講讀外의 분야를 가르쳤다. 즉 놀이를 통해 관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념과 등급, 칭호의 상호관계, 서열, 명승고적, 풍토와 산물, 인물 등을 이해하였으며, 놀이를 통해 표현력, 집단에 대한 소속감 및 협동심과 단결력, 준법성, 애향심 등을 기르도록 했던 것이다.<sup>50)</sup>

위의 내용을 통해 서당의 교육내용이 경서를 위주로 하였던 점, 또한 가르치는 경서에도 순서가 있었던 점, 수준에 따른 개별학습으로 운영되었던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흔히 ‘서당교육’하면 떠올릴 수 있는, 훈장의 講讀을 줄줄 따라하는 딱딱한 교육방식이 아니라 놀이를 통한 정적 영역의 학습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학생들이 이러한 서당교육문화를 학습함으로써 당시 선비들의 교육에 대한 고민과 그들의 교육관을 느끼게 하는 것은 효과적인 문화교육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사극드라마나 영화, 예능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송매체에서 서당교육을 엿볼 수 있는 동영상은 학생들에게 시청하게 한 뒤, 매체에서 보이는 서당교육과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서당교육의 실제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나눠볼 수도 있다.

셋째, 선비들의 濯足 문화를 소개할 수 있다. ‘탁족’이란 『孟子』 「離婁 上」편에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갓끈을 씻을 것이요,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sup>51)</sup>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발을 물에 담가 씻는 행위로,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초탈하게 살아가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sup>52)</sup> 옛날 선비들은 여름에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바짓단을 걷어 부치고 강이나 계곡에 발을 담그곤 하였다. 이 행위는 덥다고 하여 옷을 벗고 몸을 노출시켜 물에 뛰어들 수는 없는 선비들이 나름대로의 교양과 지혜를 발휘하여 선택한 피서의 차선책이다. 또한 ‘탁족’이라는 단어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쓰임 받지 못하면 억지로 등용되기를 구하기보다는 조용히 세상을 피해 숨어드는 동양의 隱居사상이 담겨 있는 행위이기도 하다. 탁족에 관한 서효석의 연구에 따르면,

50) 최윤용, 앞의 논문, 346면, 352면.

51) 『孟子』, 「離婁 上」: 滄浪之水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

52) 서효석, 「전통문화현상으로 본 탁족의 의미와 경관 해석」,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4면 참조.

탁족의 행위에는 선비들의 이상과 상고주의 정신이 깃들어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서민의 더위를 이기는 지혜가 담겨 있으며, 탁족 행위 자체에 치유의 정신문화가 깃들어 있다고 하였다.<sup>53)</sup> 이를 사서 수업의 활용 차원에서 접근해보면, 『논어』의 “危邦不入, 亂邦不居.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의 문장, 또는 공자가 安貧樂道하는 안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담긴 문장과 같이 ‘등용되지 못하면 은거하라.’라는 공자의 사상이 담긴 경문을 학습한 뒤, 옛날 선비들의 탁족 문화와 연결하여 수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유교문화의 대표적 콘텐츠이자 지금까지도 원형이 보존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文廟祭禮’를 소개하는 것이다. ‘文廟’는 ‘文宣王廟’를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문묘제례’란 공자를 비롯하여 유교의 성현들에게 올리는 제사이다. 문묘제례는 해마다 성균관을 중심으로 봄·가을 상정일(上丁日)에 원형 재현으로서의 전통의례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釋奠大祭라고도 부른다.<sup>54)</sup> 논어의 문화콘텐츠 중 하나로 문묘제례를 고찰한 이하나의 연구에서는 문묘제례의 교육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석전은 先聖과 先師들의 학문적 업적과 인격에 대해서 존송하는 의미를 가진 의례이자 스승을 받들고 진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를 체득하게 하고자 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석전은 배움과 노력으로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유교적 전통을 기리기 위한 의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석전을 봉행한다는 것은 유교적 측면에서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sup>55)</sup>

위의 내용을 통해 문묘제례가 유교적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우리 시대의 실천적 노력이며, 따라서 상당한 문화적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문 수업, 특히 공자의 유가사상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서경문 수업에서 문묘제례의 개념에 대해 지도한다면 문화교육 측면에서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시행되는 석전대제 뿐 아니라, 각 지역의 국립국악원에서는 문묘제례악 공연을 진행하기도 한다. 학생들을 이끌고 현장에 가서 석전대제와 문묘제례악을 직접 관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문화교육이 될 수 있겠지만, 수업 시수의 부족 등으로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문묘제례의 관람’을 한문과의 방학과제로 부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상으로 전통문화를 활용한 사서 교수학습법을 제안하였다. 한문과를 통한 문화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는 때에, 현실적 여건을 타하며 이러한 형태의 수업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

53) 서효석, 위의 논문.

54) 이하나, 「논어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55면, 233면 참조.

55) 이하나, 위의 논문, 236면.

는다면 교육의 현실은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은 채 더욱더 갑갑하게 닫혀만 갈 것이다. 교사들은 어떠한 가능성이든 열어놓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문화교육의 달성을 향해 진취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4) 전통문화를 활용한 수업지도

앞서 제시한 ‘사례를 활용한 수업 지도안’<sup>56)</sup>에서와 같은 『논어』 문장들을 본문으로 삼아, 전통문화를 활용한 중학교 사서경문 수업의 교수·학습지도안을 구성하였다. 전시인 1차시에서 이미 본문의 한자와 문법, 해석학습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였으며, 아래에 제시된 것은 2차시 수업의 지도안이다.

<표> III-12 전통문화를 활용한 사서경문 수업 지도안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전시학습복습</li> <li>◆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옛 선비들이 그린 ‘책거리도’ 그림 소개</li> <li>- 선비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알 수 있는 사례를 제공</li> </ul> </li> <li>◆ 학습목표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문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li> <li>- 유교문화에 뿌리를 둔 우리나라 전통교육기관을 이해한다.</li> <li>- 전통적인 서당교육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전시 본문을 읽고 해석한다.</li> <li>• 제시된 그림에 집중하며 교사의 설명을 경청한다.</li>   <li>• 학습목표를 인지한다.</li> </ul>	7분	강의법,  그림 활용 학습법	교과서,  그림 자료,  PPT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문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li> <li>〈學而不思則罔하고 思而不學則殆니라.〉</li> <li>- 배움에 관한 선인들의 가치관을 설명하며 문장의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다.</li> </ul> </li> <li>◆ 전통문화재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조들은 어디서 공부했을까?〉</li> <li>-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전통교육기관인 서당, 서원, 향교, 성균관을 관련 사이트 및 사진자료와 함께 소개한다.</li> </ul> </li> <li>◆ 선비문화 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다.</li>   <li>• 각 전통교육기관의 명칭과 각각의 특징, 어떠한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졌는지를 기억하고, 질문을 통해 교사와 소통한다.</li> </ul>	33분	강의법,  웹기반 학습법,  문제 중심 학습법,  문답법	교과서,  인터넷,  PPT,  동영상,  사진,

56) 본고, 61면 <표 III-11> 참조.

	<p>&lt;서당교육 문화 알아보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에게 TV육아프로그램 中 서당교육체험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다.</li> <li>- 조선조 서당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통해 선비들의 교육관을 설명한다.</li> <li>- 학생들이 상상해왔던 '서당교육'과 실제 이루어진 '서당교육'의 차이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을 집중하여 시청한다.</li> <li>•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서당교육의 특징을 기억하고 선비들의 교육관에 대해 생각한다.</li> <li>• 시청한 동영상을 참고로 자신이 평소 상상하던 '서당교육'과 실제의 서당교육의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li> </ul>			노트
평가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인학습</li> <li>- 확인학습 풀게 하고 질문하기</li> <li>- 질문받기</li> <li>◆ 차시학습예고 및 끝인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인학습 풀고 질문에 답한다.</li> <li>• 모르는 내용을 질문한다.</li> <li>• 인사</li> </ul>	5분	평가, 마무리	활동지

## IV. 비판적 사고력 및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법

한문교육은 교육철학적 측면에서 볼 때 ‘主知主義’만을 내세우던 종래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主知主義’, ‘主情主義’<sup>1)</sup>를 모두 실현하기에 적합하다. 왜냐하면, 한문교육을 통해 한문지식을 두루 익히고 한자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문 고전 및 한시를 읽고 감상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인격과 정서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서와 같은 사상류 산문을 읽을 때에는 그 안에 담긴 哲理를 파악할 수 있는 사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서학습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논리력을 기르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지식의 주입만을 위주로 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의 성장을 막아왔던 主知主義 수업방식에의 탈피를 꾀하고자 한다. 따라서 수업 안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주도적으로 펼쳐가며 비판적·논리적 사고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서 교수학습법 모색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서학습을 통해서 창의·인성교육을 지향하는 방법에도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 1. 비판·논리 및 사고력 증진의 교수법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동향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시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회를 성장시키는 힘이 인간의 사고력과 창의력에 있다는 주장은 이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이슈가 되었고, 이러한 현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교육계이다. 그 결과 한문교과 또한 이러한 노선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었다.

최근 학생들이 대학의 수시 모집에 대비하여 논술 능력의 향상을 위해 이리저리 논리논술 특강을 쫓아다니는 탓에, 강의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발길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향후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평가의 유형도 필답고사가 점차 사라지고 인터뷰(면접), 對面평가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추세이므로 타인을 이해시킬 수 있는 설득력이 더욱 요구된다. 사회는 또 어떠한가? 틀에 박힌 이력서 형식 안에 누가 더 자신의 논리와 독창성을 발산하는가가 관건이 되었고, 면접에서 또한 지원자들의 논리성과 창의력을 시험해볼만한 항목들이 준비되어 있다.

1) 主知主義는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 것 중 知性이 가장 우위에 있다고 여겨, 지성이 만들어내는 조작들과 지식의 가치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훗날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기계적 암기를 유도하여 창의적 사고를 퇴색시키며, 과학 이외에 다른 것은 경시하는 세계관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主情主義는 주지주의가 빚어낸 이러한 문제점에 반발하여 생겨난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 것 중 感情과 情緒가 우위에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고자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비판적·반성적 사고력과 논리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 나날이 요구되고 있다.

보수적인 교과,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과라는 오해와 편견에 둘러싸여 있는 한문교과는 사실 학습자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교수·학습요소들이 있다. 또 한문과의 이러한 학습요소를 가장 살릴 수 있는 영역 중 하나가 경서이다. 앞서 II장에서 제시하였던 교육과정의 <이해>영역에 기술된 내용<sup>2)</sup>에는 ‘사리를 밝히거나 시비를 가려 주장의 근거를 판단할 수 있는 문체’인 說理文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사상류 산문이 설리문에 속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유가의 경전, 제자백가의 철학적 저술 등 사상을 천명하는 글로 분류된다.<sup>3)</sup> 경전과 같은 사상류 산문은 인간의 내면과 세계와의 관계, 즉 삶과 연관된 본질적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고등 사고력 진작과 정의적 발달에 유익한 한문교육의 題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한문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경전에 대한 내실 있는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단지 교과서 본문 풀이를 통한 내용 전달에 치중한 채, 정작 인성, 반성, 예의, 역사의식과 같은 경전의 사상적 측면의 학습은 결여된 실태이다. 경서 수업은 텍스트 내에 감춰진 哲理的 의미를 도출하여 학습자들에게 이를 안내하고, 반성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고는 비판적·반성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서경문을 활용한 가치토론 활동, 논술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토론 활동

최일순에 따르면 토론과 논술은 주장을 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논술은 개별적인 활동이고 토론은 다수의 참여 활동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처럼 다수가 참여하는 토론의 과정을 겪으며 자신과 다른 관점 및 타인의 비판을 통해 자신의 주장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고,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타당한 논거를 모색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한문교육의 목표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통합·분석적 사고 능력과 창의성 신장을 유도하는 현실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교육활동이 되는 셈이다.<sup>4)</sup> 이처럼 토론은 타인과 논리적 사고를 교류하며 사람을 움직이는 설득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라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학습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한문교과의 여러 영역 가운데서도 특히 사서경문을 다룬 수업은 훌륭한 가치토론이 이루어질

2) 본고, 11면, <표 II-1> 참조.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2011, 24면.

4) 최일순, 「토론과 논술을 활용한 한문과 교육방법 연구: 『孟子』 출전 본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면.

만한 주제가 굉장히 많다. 그 예로 『論語』 「子路」 18장<sup>5)</sup>에 나오는 葉公과 孔子의 문답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양을 훔친 사건’을 놓고 ‘진정한 正直이란 무엇인가?’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섭공은 양을 훔친 아버지를 고발한 자식이 정직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공자는 아버지가 양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아버지를 위하여 이를 숨겨주는 자식이 진정한 正直의 표상이라고 주장한다. ‘親親’과 ‘人情’이 없는 정직은 정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장을 놓고 학생들은 ‘가족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정직인가? 공익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정직인가?’를 놓고 열띤 가치토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교과서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孟子의 性善說에 관한 문장을 놓고도 충분히 학습자들 間의 심도 깊은 토론이 가능하다.

가끔 경문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 많아 수업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보는 관점이 있으나, 경문의 이러한 점은 오히려 학생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경문을 바라보고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다. 사서경문에서 쉽게 엿볼 수 있는 ‘임금에 대한 충성’, ‘이익보다는 仁義를 추구하는 정치’, ‘죽음을 초월한 의리와 절개’ 등의 사상은 현 시대와는 매우 동떨어져서 학습자들이 이해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 교사는 선인들의 유교사상이 무조건 옳다고 각인시키지 않고, 그러한 학생들이 품는 반감을 오히려 반감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경전에 담긴 사상을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상을 재조명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가치토론을 진행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탐구적인 학습이 될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경전교육의 큰 매력이라고 사료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孟子』 「梁惠王 上」 1장<sup>6)</sup>이다. 맹자가 利를 얻을 것을 기대하는 梁惠王에게 仁義밖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꾸짖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지만 학생들이 이러한 맹자의 생각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란 옛날에나 가능한 것이었다. 맹자가 생존하던 당시와 현대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며 富國強兵을 꿈꾸는 양혜왕이 더 바람직한 爲政者 像으로 느껴질 수 있고, 仁義를 말하는 맹자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허구적인 이상만을 좇는 정치가로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과연 어느 쪽이 나라에 필요한 위정자인가’는 아주 훌륭한 가치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다.<sup>7)</sup>

5) 『論語』 「子路」 18 : 葉公語孔子曰 吾黨有直躬者 其父攘羊 而子證之. 孔子曰 吾黨之直者 異於是 父爲子隱 子爲父隱 直在其中矣.

6) 『孟子』 「梁惠王 上」 1 : 孟子見梁惠王. 王曰 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 孟子對曰 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王曰何以利吾國 大夫曰何以利吾家 士庶人曰何以利吾身 上下交征利而國危矣.

7) 다만 맹자가 존재했던 시대의 상황과 仁義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맹자의 구체적 맥락을 교사가 복원해주지 않은 채 토론을 진행시킨다면, 맹자는 ‘바보 같은 이상주의자’가 될 위험이 있다. 맹자가 살던 시대는 육체노동자(民)와 정신노동자(군주 및 정치가)가 따로 존재했다. 농사와 생업을 통해 정치가들에게 祿俸을 제공하며 가족들을 배불려야 했던 백성의 위치에서는 利를 따질 수 있다. 그러나 나라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백성들을 仁으로 교화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군주 및 정치가들은 利보다 仁義를 앞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맹자의 생각이었다. 가치토론 전에 교사는 이러한 맥락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 2) 논술 활동

논술의 목표는 당면한 상황을 자각적으로 인식하고, 발산적 사고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인식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sup>10)</sup> 이를 토대로 논술을 활용한 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최일순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논술을 통해 학습자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성 등 고등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삶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sup>11)</sup> 논술을 통한 교육이 학습자들의 비판적·반성적 사고력 증진에 매우 효율적임을 자각하면서도, 교육 현장에서 논술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교과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문교과는 그 다루는 교육내용이 논술을 활용하기에 적절한 교과 중 하나이며, 이러한 강점을 수업 안에 효율적으로 살려야 한다. 특히 사서경문의 내용을 읽고 비판적 사고가 바탕이 된 논리논술이 이루어진다면 교육과정에서 기술된 한문교육의 목표 중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다.

논술 교육은 앞서 논의한 가치토론과도 긴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 사실 토론과 논술을 놓고 완벽하게 구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이치상 맞다. 왜냐하면 토론의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타당한 논거를 모색하게 되는데, 이것을 글로 표현하면 바로 논술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론 활동을 우선하고, 그것을 통해 얻은 다양한 지식들을 토대로 논술문을 작성하는 것은 학습효과를 진작시키기에 효과적인 학습순서가 될 것이다.<sup>12)</sup> 다만 주의할 점은 한문 수업에서 너무 어렵고 무거운 주제로 지나치게 까다로운 논술문을 요구할 경우, 이는 학습자들에게 굉장한 학습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학습자들은 차라리 토론이나 발표를 더 선호할지언정 필기구를 잡고 글을 써내려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한문으로 된 문장을 배우며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충분히 어려운데, 너무나 진지하고 어려운 논술주제까지 접하게 되면 학습자들의 의욕이 저하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길고 어려운 논술문을 요구하기보다는 쉽고 흥미로운 주제로 적당한 길이의 서술을 요하는 논술 학습이 한문 교과에 적합하다.

다음은 교과서에서 간단한 논술을 요하는 학습이 제시된 하나의 예이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맹자』의 ‘王道政治’에 관한 문장을 수록한 단원에서 “자신이 맹자라면 어떻게 왕도정치를 말할 것인지”에 관해 서술해보는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sup>13)</sup> 이는 학습자가 바람직한 정치에 대해 생각

10) 김대행 외, 『대학이 원하는 논술』, 한샘출판사, 1996. (최일순, 앞의 논문, 8면에서 재인용)

11) 최일순, 앞의 논문, 8면.

12) 최일순, 앞의 논문, 2면.

13) 박성규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동아출판, 2013, 205면.

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활동이므로 사고력과 논술능력을 신장시키기에 바람직한 활동이 될 수 있다.

**실력 다질 본문 관련 활동**

\*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음의 활동을 해 보자.

•아래는 전국 시대의 양(梁)나라 혜왕과 유세기들의 대화 장면을 설정해 본 것이다. 본문을 바탕으로 맹자가 대답했을 내용을 정리해 보자.

이 외에도 현행 한문교과서의 교수·학습활동을 살펴보면 논술을 활용한 학습의 빈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만큼 논술 교육이 한문교과 안에서 대표적인 지도방안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셈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깊은 사고와 비판적 시각을 유도하여 논술 학습이 이루어지기 적합한 글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논술 수업 현장에서 교사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도가 필요하다.

### 3) 가치토론과 논술·구술을 적용한 수업지도

『맹자』의 ‘性善說’에 관한 문장으로 가치토론과 논술 활동을 함께 적용한 고등학교 사서경문

수업의 교수·학습지도안을 구성하였다. 전시인 1차시에서 이미 본문의 한자와 문법, 해석학습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였으며, 아래에 제시된 것은 2차시 수업의 지도안이다.

〈표〉 IV-1 가치토론과 논술·구술을 적용한 사서경문 수업 지도안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전시학습복습</li> <li>◆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人性論 관점 소개하기</li> </ul>               &lt;맹자의 性善說, 순자의 性惡說, 고자의 性無善惡說&gt;             </li> <li>◆ 학습목표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맹자의 성선설을 이해한다.</li> <li>- 비판적인 시각으로 경문을 읽고 인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주장할 수 있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전시 본문을 읽고 해석한다.</li> <li>• 결정한다.</li>   <li>• 학습목표를 인지한다.</li> </ul>	7분	강의법	교과서, PPT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문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人性之善也는 猶水之就下也니 人無有不善이요 水無有不下니라. 今夫水를 搏而躍之면 可使過賴이요 激而行之면 可使在山이나 是豈水之性哉리오?&gt;</li> <li>- 본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성선설에 관한 근거(우물에 빠지려는 아이, 四端)를 보충 설명하여 문장의 이해를 심화시킨다.</li> <li>- 학생들이 비판적 관점으로 문장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li> </ul> </li> <li>◆ 가치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명씩 한 모둠을 만든다.</li> <li>- 모둠의 구성원들을 '성선설' 찬성 vs 반대 입장으로 나눈다.</li> <li>- 찬성쪽 입장과 반대쪽 입장이 번갈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게 한다. 이 때 대부분의 모둠원이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게끔 유도하며, 의견차이가 다툼으로 변하지 않도록 지도한다.</li> </ul> </li> <li>◆ 논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을 토대로 학생들이 성선설에 대한 최종적인 생각을 논리적으로 논술하게 한다.</li> <li>- 찬성입장을 대표하는 학생, 반대 입장을 대표하는 학생들이 논술문을 발표하게 한다.</li> <li>- 학생들 발표에 피드백을 제공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맹자가 주장하는 성선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li> <li>• 문장을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인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본다.</li> <li>• 모둠을 구성한다.</li> <li>• 성선설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토대로 '찬성' 또는 '반대'의 편에 선다.</li> <li>• 모둠원을 향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다. 이 때 논리적으로 주제에 접근하려고 노력하며,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경청한다.</li>   <li>• 친구들의 다른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며 성선설에 대한 자신의 최종적인 생각을 논술한다.</li> <li>• 작성한 글을 발표한다.</li> <li>• 친구들의 발표를 경청한다.</li> </ul>	40분	강의법, 가치 탐구 학습법, 토론 학습법, 논술 학습법,	교과서, 노트, PPT, 활동지
평가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치토론 및 논술에 대한 평가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물을 제출한다.</li> </ul>	3분	마무리	교과서, 활동지

정리	보를 설명하고 논술문을 걷는다. ◆ 차시학습예고 및 끝인사	• 인사			
----	-------------------------------------	------	--	--	--

## 2. 창의·인성 및 소통능력 배양의 교수학습

지식과 정보가 가치의 중심이 되고 있는 현 시대에, 사회가 학교에 기대하고 있는 교육은 바로 창의·인성교육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창의·인성교육에 대해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의 독자적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철학 및 교육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sup>14)</sup> 또한 그 추진 방안에서도 “각종 교과목별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요소들을 적극 포함하여 학력 신장과 창의·인성 교육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sup>15)</sup>한다.

이를 통해 창의성과 인성은 각각 독립적인 영역이 존재하되 서로 유기적 결합을 지닌 관계임을 추측할 수 있다.<sup>16)</sup> 창의성이 가진 여러 특성 중 유연한 사고, 정교성과 민감성, 개방성과 인내심 등은 ‘나’와 다른 ‘타인’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세상과의 소통을 통하여 세계를 민감하게 통찰하게끔 만들어 준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 개인의 내적 세계 또한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 이는 창의성의 신장을 통해 인성의 함양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창의·인성교육의 계발에 심혈을 기울여 즐거운 학교, 학생 개개인의 창조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자는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이 타인과의 ‘소통’으로부터 시작되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창의·인성교육에 ‘소통’교육을 추가하여 각 영역에 따른 사서경문 교수학습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창의교육 및 이를 적용한 수업지도

지금의 대학 입시 상황을 살펴보면, 입학사정관 전형의 비중을 대폭 늘려가는 추세인 대학의 요구에 따라 수험생의 개성과 창의력이 가득 담긴 포트폴리오가 중시되고 있다. 대학 입시 뿐 아

14)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2009.

15)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2010.

16) 이광우 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급별 창의적 체험 활동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20면 참조.

나라 특성화 고등학교의 입학에 있어서도 창의력과 지성을 갖춘 인재상이 요구될 정도이다. 학교의 노력 끝에 입시에 성공하면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학교보다도 사회에서, 기업에서 더더욱 참신한 사고를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요망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이 시대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도 지식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소교과적으로 학생 중심의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되었다. 한문과 또한 마찬가지이다.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內 ‘교수·학습계획’은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하되,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창의적인 학습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sup>17)</sup>라는 진술을 통해 한문교과가 추구하는 교수·학습법이 창의교육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사서수업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창의교육의 형태를 소개함으로써 한문과에서 추구하는 창의교육의 방향을 실천하고자 한다.

### ① 다양한 註釋 제시와 창의적 해석 유도

사서경문 가운데에는 주석가들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 문장이 많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자주 쓰이는 문장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子曰：父母在，不遠遊，遊必有方。”

이는 교과서에서 孝를 주제로 할 때 많이 수록되는 『논어』의 문장이다. 이 문장은 ‘方’을 어떻게 풀이하는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진다. 주희의 『논어집주』에서는 ‘方’을 ‘방향’이라고 풀이하면서 “이미 동쪽으로 간다고 알렸으면 감히 고쳐서 서쪽으로 가지 아니하여 부모가 반드시 내가 있는 곳을 알아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sup>18)</sup>”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하면 “遊必有方”은 “놀 때에 반드시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해석된다. 주희의 풀이에 근거한 이 해석은 현행 교과서에서도 사용되었다. 반면 정현은 ‘方’을 ‘常’으로 풀이<sup>19)</sup>하였는데, 이는 곧 ‘일정함’, ‘떳떳함’을 가리킨다. 정현의 고주에 근거하여 김용재가 문장 전체를 해석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멀리 유세하러 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멀리 유세를 떠날 경우에는 반드시 恒常된 법칙[常道]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恒常된 법칙’이란 곧 예절을 의미하므로 자식이 먼 길을 떠날 때에는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님을 생각하여 지켜야할 예를 다하라는 의미가 된다.<sup>20)</sup> 다른 예를 하나 더 보겠다.

17)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2011, 15면, 46면.

18) 주희, 『논어집주』: 如己告云之東, 卽不敢更適西, 欲親必知己之所在而無憂

19) 하안, 『논어집해』: 鄭玄曰, 方猶常也.

20) 김용재, 『『論語』古注를 통해 본 『論語』經文의 해석학적 이해[1]』, 『동양철학연구』 제59집, 동양철학

“子曰：由！誨女知之乎。知之爲知之，不知爲不知，是知也。”

『논어』의 이 문장 또한 교과서에서 學을 주제로 할 때 많이 수록되는데, 위의 끊어 읽기를 토대로 문장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유[자로]야! 너에게 안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반면 정현은 “誨女知之乎”에서 ‘知’를 ‘志[기억하다]’로 풀이하고 “誨女! 知之乎.”로 끊어 읽음으로써 “너에게 가르쳐주마! 그것을 기억해 두어라.”라는 전혀 다른 해석을 제시하였다.<sup>21)</sup> 이처럼 단어 하나의 풀이를 가지 고도, 또는 사소한 끊어 읽기의 차이에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김용재는 이러한 경문들에 대해 하나의 해석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훈고·훈석의 다양성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미 있는 주장을 펼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자는 한 글자 안에 다의적 뜻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같은 경문이라도 낱글자가 갖는 이중적 의미의 뜻풀이에 따라 해석은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어차피 고전의 해석에는 시대와 지역 또는 왕조에 따라 定答은 있을 수 있다하더라도, 正答은 없기 때문이다.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주자학 중심의 나라여서 그런지, 定答이 正答이 되었고, 그 正答은 오백 년 동안 定答이 되었다. 오직 정해놓은 답으로서의 정관사 『The 논어집주』만 존재했던 셈이다.<sup>22)</sup>

위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사서경문을 학습할 때 주자의 해석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교과서나, 학교 현장에서도 역시 사서를 가르치고 학습한다기보다는 주자의 『사서집주』를 가르치고 학습하는 셈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다양한 관점과 주석을 바탕으로 시대에 공감하는 새로운 경학을 연구하는 데에 몰입하고 있다.<sup>23)</sup> 이에 관해 언급한 일본의 저명한 학자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의 의견<sup>24)</sup>은 주목할 만하다.

『論語』는 비교적 알기 쉽고 읽기 쉬운 책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선적인 말로서, 읽으면 읽을 수록 어려워진다. 먼저 원문을 대하여 대체적인 의미는 이리이러할 것으로 상상한 후에 그것

연구회, 2009, 35면 참조.

21) 김용재, 위의 논문, 44면 참조.

22) 김용재, 「중·고교 한문교과서에서의 ‘經書’ 교육에 관한 발전적 제언」, 『한문고전연구』 제27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300면.

23) 김용재, 「『論語』古注를 통해 본 『論語』經文의 해석학적 이해[1]」, 『동양철학연구』 제59집, 동양철학연구회, 2009, 13면 참조.

24) 宮崎市定, 『論語の新しい読み方』, 岩波書店, 2000.

의 해석을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설명되어 있다. 나도 처음에는 이것이 자신의 학력부족의 탓이려니 하고 두려워하여 반성하였지만, 그 후 점점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도대체 종래의 논어해석은 언제, 누가 정한 것이며, 그것은 과연 정말로 원문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 등의 의문이였다.<sup>25)</sup>

이 말은 곧 원문에 너무 심오한 해석을 붙인 주석가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누구의 주석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문제이며, 하나의 주석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주자의 『사서집주』만을 정설로 여기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교사가 직접 경문에 담긴 훈고의 다양함과 여러 해석을 소개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틀에 박힌 한 가지 관점이 아닌 다양한 관점으로 경문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한층 더 심화된 학습으로 학생들이 직접 창의적인 해석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해석을 유도하는 방법은 그 난이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경문의 풀이는 제공하나 그 심오한 뜻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주석가가 되어 직접 추측하게 하는 방법, ② 풀이되지 않은 경문을 놓고 마음대로 해석하게 하는 방법, ③풀이도 없고 문장부호와 띄어쓰기조차 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경문을 놓고 마음대로 해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들에게 창의적인 발상을 유도해낼 수 있으며, 본인들이 추측한 의미가 실제 의미와 얼마나 근접하였는가를 비교해보며 학습한 경문이 뇌리에 깊게 간직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경문의 주석에는 正答이 없지만 그럼에도 학계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해석이 있기에, 교사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학습자들이 기계적인 독해와 암기학습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주체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해석을 통해 경문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때이다.

## ② 經文의 광고카피화

논의에 앞서 한 광고포스터를 먼저 보고자 한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은 논어의 문구를 광고카피로 활용한 L백화점의 광고포스터이다.

---

25) 엄석인, 「현대 일본에서 『논어』연구와 주석서의 경향」,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유교현대화 연찬4, 2001.



【그림 4】 L백화점의 포스터

이 광고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에 맞춰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有朋自遠方來”를 인용하며 “한중의 우정의 영원히 변치 않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중국어 문구를 게재한 것이다.

이 예시를 통해 경문을 광고의 카피로 활용하는 창의활동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운 여러 사서경문들을 놓고 이를 다양한 형태의 광고카피로 제작해볼 수 있다.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창의성이기에, 광고는 창의 교육의 방안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sup>26)</sup> 또 학생들이 경문을 카피로 활용할만한 다양한 광고주제들을 떠올린 뒤, 가장 적절한 주제를 정하는 과정 속에서 확산적사고와 수렴적사고를 동시에 활용하게 되므로 창의력 신장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다. 다만 위에 제시한 광고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광고인데, 사실 상업광고는 교육의 매체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위의 그림은 단지 경문을 광고의 카피로 활용한 예를 소개하기 위해 제시한 것일 뿐이다. 가급적 수업 안에서 비영리성·윤리성·공익성을 가진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sup>27)</sup> 또한 경문이 가진 주제를 고려해 보아도 공익광고의 카피로 사용되기에 적절한 것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6) 강민구, 「중등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한문교육」, 『한문교육연구』 제40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3, 115면.

27) 강민구, 위의 논문, 115면.

학생들이 제작할 수 있는 광고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상할 수 있다. “사람 인 [人]”이 두 개가 모여 이루어진 ‘仁’의 형성원리를 활용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 ‘공동체적 관점’을 추구하는 것이 아름다움을 역설할 수 있다. 또한 『논어』의 “君子周而不比”는 집단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광고의 카피로,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은 악플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광고의 카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대학』의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은 그 의미를 참신하게 재해석하여 ‘교실 청소에 날마다 힘쓰자.’는 내용의 웃음을 유발하는 광고를 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맹자』의 “養生喪死無憾”은, 현 시대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그 근본원인은 개선하지 않고 엉뚱한 정책만을 펼치는 정치가들을 겨냥한 공익광고의 카피로 활용될 수 있다.

### ③ ICT 활용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교육은 그 정의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으나 대부분 너무 추상적이며 廣義의 개념이었는데, 백광호의 연구에서 비로소 구체적인 개념의 정의를 살펴볼 수 있었다.

각 교과시간에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교과목의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다. 예를 들면 교육용 CD-ROM 타이틀을 이용하여 수업을 하거나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한 웹 자료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하는 형태이다.<sup>28)</sup>

ICT 활용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촉진시켜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으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sup>29)</sup> 곧, 현대의 창의적 산물인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까지도 촉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것이다.

다만, 이전까지 학교 현장에서 정보통신기기는, 제한된 공간에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향식 수업의 부교재로써, 또는 연구수업이나 참관수업에서의 이벤트성 ‘보여주기’식 수업을 위해 활용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ICT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수업에 도입하려면 학생들의 자기 주도형 참여 학습을 유도함으로써 독창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나

28) 백광호, 「한문교육에서 ICT 활용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문교육연구』 제18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84면.

29)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하우출판사, 2009.

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사서경문 수업에서의 효율적인 ICT활용의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진술하였다.

첫째, 영상매체의 활용이다. EBS ‘지식채널e’와 같은 시사교양프로그램은 그 길이가 5분 이내이며, 경문의 주제와 연결하여 관람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다. 따라서 수업의 도입부에서 동기유발에 활용되기에 굉장히 유용하다. 경문과 관련된 성어의 플래시를 찾아 감상할 수도 있다. 자기 주도형 참여 학습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학생들이 모둠을 이루어 직접 경문 주제에 관련된 역할극이나 5분 단편영화를 촬영하는 등 자신들만의 UCC를 제작하고, 이렇게 완성된 작품들을 수업시간에 관람하는 방법이 있다. 이 활동은 학생들의 고민과 노력이 깃든 창작물이 탄생한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둘째, 웹사이트의 이용이다. 웹사이트에는 수없이 많은 정보와 지식자료가 있다. 따라서 교사의 수업준비에 있어서도 웹사이트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수업 도중에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한문과의 ICT 활용방안을 다룬 임은희의 연구<sup>30)</sup>에서는 한문 수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사이트들의 목록을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참고한다면 현직 교사들에게 크게 유용할 것이다. 그 중 사서 수업에서 활용할만한 사이트로는 전통문화와 역사에 관한 풍부한 수업 자료들로 구성된 ‘이야기 한자여행(<http://www.hanja.pe.kr/index.htm>)’, 사서를 비롯한 동양고전의 동영상 강의가 구축되어 있는 ‘사이버서당(<http://www.cyberseodang.or.kr/>)’ 등이 있다. 학생과 교사 간, 학생들 간의 쌍방향 소통을 추구한다면, 교사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고 수업 자료를 게시하여 학생들의 예습 및 복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자나 맹자의 생애와 사상, 특징 등 사서를 이해하는 데에 기본이 되는 자료와 수업에서 다루지 못한 학습내용을 게시할 수도 있다.

셋째, 응용프로그램과 모바일기기의 활용이다. 수업 안에서 PPT와 Prezi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 된 지 오래이다. 따라서 학생들도 紙面을 이용해야 했던 과제 형태에서 벗어나 PPT와 같은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기기를 통한 학습도 가능하다. 학생들이 사서단원의 학습활동을 마친 후에 각각의 QR코드를 제작하여 교사에게 모바일로 보내면 교사는 개별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다. 반대로 교사가 학습자들의 성향에 맞는 보조 자료를 선택하여 이를 QR코드나 URL로 생성한 뒤 해당하는 학습자의 모바일 기기로 보내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이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의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제작과 준비에 많은 수고를 들여야 한다는 점이 교사와 학생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어 정작 학습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매체 활용의 난이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

30) 임은희, 「한문과 ICT활용 수업모형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앞서 제안한 ①‘다양한 註釋 제시와 創意的 解釋 誘導’, ②‘經文의 광고카피化’, ③‘ICT 활용’을 바탕으로 創意教育을 적용한 고등학교 사서경문 수업의 교수·학습지도안을 구성하였다. 이 수업은 경서를 다룬 한 단원 중 마지막 과 수업으로 설정하였으며, ‘경문의 광고카피化’, ‘ICT 활용’은 수행평가로 대체하였다.

〈표〉 IV-2 창의교육을 적용한 사서경문 수업 지도안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전시학습복습</li> <li>◆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경문에 대한 다양한 풀이를 사례로 제시하여, 경문의 주석에는 正筭이 없음을 설명한다.</li> </ul> </li> <li>◆ 학습목표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li> <li>- 경문 주석의 개념을 이해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전시 본문을 읽고 해석한다.</li> <li>• 교사의 설명을 경청한다.</li>   <li>• 학습목표를 인지한다.</li> </ul>	5분	강의법	PPT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의 의미 추측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서를 덮게 한 후, 본문 문장이 풀이 없이 제시된 활동지를 배부한다.</li> <li>-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하게 한다.</li> <li>- 1인1권씩 자전을 나누어준다.</li> <li>- 문장을 이루는 한자를 찾아가며 스스로 풀이하게 한다.</li> <li>- 풀이를 참고하여 모둠별로 토의를 거쳐 문장의 의미를 추측하게 한다.</li> <li>- 각 모둠은 추측한 문장의 풀이와 의미를 발표한다.</li> <li>- 풀이가 가장 근접한 모둠에게 보상한다.</li> </ul> </li> <li>◆ 본문학습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曾子曰：“吾日三省吾身：爲人謀而不忠乎？與朋友交而不信乎？傳不習乎？”〉</li> <li>- 한자 지도와 함께 본문을 해석한다.</li> <li>- 특히 “傳不習乎?”에 관한 주석가들의 다양한 해석을 소개한다.</li> </ul> </li> <li>◆ 본문학습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父母在，不遠遊，遊必有方。〉</li> <li>- 한자 지도와 함께 본문을 해석한다.</li> <li>- “遊必有方”에 관한 주석가들의 다양한 해석을 소개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지를 받는다.</li>   <li>• 자리를 모둠으로 배치한다.</li> <li>• 자전을 받는다.</li> <li>• 문장을 이루는 한자를 자전을 통해 찾아, 한자의 뜻을 토대로 문장을 풀이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원들이 서로의 풀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문장의 의미를 추측해본다.</li> <li>• 추측한 풀이와 의미를 발표한다.</li> </ul> </li> <li>• 타 모둠의 발표를 경청한다.</li>   <li>• 한자와 문장풀이를 익힌다.</li>   <li>•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어떤 해석이 타당할 것인지를 판단한다.</li>   <li>• 한자와 문장풀이를 익힌다.</li> <li>•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어떤 해석이 타당할 것인지를 판단한다.</li> </ul>	35분	강의법, 문답법, 토의 학습법, 비교 학습법, 협동 학습법, 자전 활용 학습법	교과서, PPT, 활동지, 자전
평가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원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서의 단원마무리 학습을 풀게 하여 그동안 배운 경문의 복습을 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원마무리 학습을 풀고 질문에 답한다.</li> </ul>	10분	강의법, 문답법	교과서, 활동지

	<p>도한다.</p> <p>◆ 수행평가 공지          &lt;그동안 배운 경문 중 하나를 골라          공익광고 카피 만들기&gt;          - 공익광고의 주제와 교훈, 경문을          그 광고의 카피로 활용한 이유를 적          절히 설명해야 함을 강조한다.          - 포토샵, PPT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활용이 가능하며, 결과물을 한문          과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야함을          공지한다.          - 질문받기</p> <p>◆ 차시학습예고 및 끝인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평가 안내 유인물을 숙독 한다.</li> <li>• 교사의 평가공지를 경청한다.</li> <li>• 궁금한 점을 질문한다.</li> <li>• 인사</li> </ul>			
--	---	--	--	--	--

### 3) 인성교육 및 이를 적용한 수업지도

교육의 커리큘럼은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으로 나누어지는데, 대개 이전까지는 비교과활동이 교과활동에 비해 덜 체계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교육 안에서 균형 잡힌 비교과활동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창의·인성교육을 지향하는 현 교육계는 비교과활동의 교육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대표되는 비교과활동을 중점적으로 계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문교육에서 이룩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한 인성교육의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 ① ‘知’에서 ‘行’으로의 體驗學習

교실 안에서 교과서의 텍스트만을 놓고 행해지는 전통적인 수업은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수업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익숙한 수업 형태이며 그 나름대로의 장점과 효과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높은 참여와 더불어 큰 학습효과를 낼 수 있는 창의적인 형태의 수업에 비교하여 볼 때,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진부함은 부인할 수 없다. 교사가 텍스트를 가지고 개념 위주로 강의하는 수업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실제적 수행이 없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 또한 너무나 많은 것들에 신경을 써야 하는 현대의 학생들에겐 ‘책 덮으면 그만’일 뿐, 수업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기억에 남지 않는 ‘일회용 수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를 넘어선, 교실을 벗어난 체험학습의 실현을 통해 학생들의 실제적 성장과 높은 교육 성취를 기대할 수 있다.

四書 內에는 孝道, 學業, 人性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장이 있으며, 이러한 문장들은 교과서에

도 자주 수록된다. 학생들이 사서경문을 학습할 때 단순히 교과서 텍스트를 통해 문장을 해석하고, 뜻을 이해하고,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확인학습을 풀어보는 차원을 넘어서서, 경문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보게 하는 체험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사서경문 안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제 수행으로 옮겨볼만한 구체적인 행동 묘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여타의 한문 고전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小學』, 『四字小學』, 『禮記』, 『擊蒙要訣』 등의 한문고전에서는 孝, 兄弟간의 友愛, 學業, 스승과 어른을 대하는 禮, 벗을 사귀는 道에 관한 바람직한 행동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묘사해놓은 문장이 굉장히 많다. 이렇듯 구체적 행동을 제시한 문장을 한문이나 한글로 교과서 학습란에 추가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으며,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함으로써 교사가 자신의 재량껏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수행을 체험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 예로 몇 가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孝에 관한 사서경문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 『논어』의 “子游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나, 또는 『맹자』의 ‘曾子와 曾元父子의 각기 다른 봉양 방법’을 본문으로 배웠다고 가정해본다. 위의 두 문장은 모두 敬을 강조한 문장이므로, 부모를 모시는 진정한 공경의 자세를 체험 해볼 수 있다. 교사는 교실을 벗어나 학교 내 예절실이나 여타 다목적실을 이용하여, 또는 공공기관(주민센터, 구청, 도청, 평생학습관 등) 내 교육시설을 대여하여 학습자들에게 ‘효 체험하기’ 활동을 제공한다. 또 다른 형태로 사서 수업에서 배운 예절을 경로당에서 실천해보는 활동을 방학과제로 부여할 수 있는데, 이는 학교의 필수적인 비교과활동 중 하나인 봉사활동에도 포함될 수 있어 一石二鳥인 셈이다. 학습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효도와 공경의 구체적인 자세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매일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을 입고 띠를 띠고서 부모의 침소로 나아가 기운을 낮추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더운지 추운지와 편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쭙고, 날이 어두워지면 침소에 나아가 이부자리를 정해 드리고, 따뜻한지 서늘한지를 살펴보며, 낮 동안 받들어 모실 적에는 항상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용모를 공손히 하여 응대하기를 공경히 하고, 좌우로 나아가 봉양하여 그 정성을 극진히 하며, 나가고 들어올 적에는 반드시 절하고 하직하며, 절하고 퇴어야 한다.<sup>31)</sup>

이 때 부모의 역할을 맡은 교사 앞에서 학생들이 차례로 효의 자세를 수행해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이 서로 부모와 자식 역할을 바꾸어가며 체험해보는 것도 좋다. 실제로 한복을 입고 체험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더 진지한 자세를 지닐 수 있기에 효과적이다. 교실을 벗어난 다른 공간에서 효도를 체험하고 수행해보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오래도록 잊지 못할 학습 경험을 제공하

31) 李珣, 『擊蒙要訣』: 每日未明而起, 盥櫛衣帶, 就父母寢所, 下氣怡聲, 問煖寒安否, 昏則詣寢所, 定其褥席, 察其溫涼, 日間侍奉, 常愉色婉容, 應對恭敬, 左右就養, 極盡其誠, 出入, 必拜辭拜謁.

며, 한문과의 교육목표인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을 성취하기에 효과적이다.

‘孝’의 관한 체험 뿐 아니라 인간관계 또는 교우관계에 관한 체험 역시 가능하다. 『논어』의 “三人行，必有我師焉。擇其善者而從之，其不善者而改之.” 또는 “毋友不如己者”의 문장을 본문으로 학습한다고 가정한다. 이 문장들을 통해 ‘친구를 사귀는 올바른 자세’를 학습할 수 있는데, 벗을 사귀는 도와 자세에 관한 자세한 행동지침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바른 사람을 벗하면 나 또한 저절로 바르게 되고, 사악한 사람을 따라서 사귀면 나 또한 저절로 사악해 지느니라.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지는 것은 군자가 부끄러워하는 바이다. 친구에게 잘못이 있거든 충고하여 선한 데로 인도하되, 어쩔 수 없으면 곧 그만 두어 스스로 욕됨이 없도록 하라. (중략) 면전에서 나의 잘한 것을 칭찬하면 아첨하는 사람이요, 면전에서 나의 잘못을 나무라면 굳세고 정직한 사람이니라. 친구와 더불어 사귀되 말할 때는 신실하게 하라. 말을 하였는데도 미덥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한 친구니라. (중략) 말을 삼가면 허물이 적고 행동을 삼가면 후회가 적으니라. 오로지 공부만 하고 친구가 없으면 고루하고 견문이 적으니라.<sup>32)</sup>

위와 같은 행동을 지침으로 삼아 학생들끼리 서로 역할극을 해보거나, 실제 수행에 옮겨보도록 유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친구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친구의 바르지 못한 점을 바로잡아주는 활동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학생들끼리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정신적으로 비교적 성숙한 고등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家庭學習

수업 시수가 부족하거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교실 밖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부담스럽다면, “실천 점검표”를 만들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 실천하게끔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예로부터 “밥상머리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며, 모든 교육의 시발점이다”라는 말이 있다. 人性이나 禮를 다룬 사서경문을 학교 수업에서 다루었다면, 텍스트를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것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유도해내는 것이다. 점검표의 문항 역시 사서나 한문고전에서 묘사된 행동을 참고하여 제시하며, 가정을 넘어 학교생활에 관한 문항도 세울 수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표〉 IV-3 「실천 점검표」의 例示

32) 김병헌 편역, 『정산 사자소학』, 태학사, 1998.

영역	실천내용	그렇다	보통	아니다
가정	외출하거나 귀가할 때 부모님께 알리고 인사드렸다.			
	놀 때는 그 장소나 내용을 부모님께 알렸다.			
	부모님을 대할 때 언행이 공손하였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을 불평 없이 먹었다.			
	다치거나 아파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쳤다.			
	형제, 자매와 기쁨과 고민을 나누었다.			
	형제, 자매와 음식이나 옷을 나누었다.			
	형(오빠)이나 누나(언니)에게 공손하였다.			
학교	동생이 잘못했을 때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르쳤다.			
	선생님께 모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물었다.			
	선생님이 묻거나 부르시면 공손히 대답하였다.			
	수업시간에 잤거나 장난치지 않았다.			
	선생님 앞에서 언행이 공손하고 단정하였다.			
	친구와 함께할 때 비속어와 험담을 하지 않았다.			
	친구의 장점을 말해주고 칭찬해주었다.			
	친구의 잘못된 점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었다.			

위와 같이 학생들에게 바른 생활을 제시하는 문항들로 채워진 점검표를 나누어주어 일주일 동안의 생활태도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부모님, 형제자매, 선생님, 친구들의 확인 및 서명을 받게 한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을 돌아켜보고 반성할 수 있으므로 사서경문 학습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된다.

더욱이 교육의 성취도에는 학습자 본인이 느끼는 성취 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 주변이 체감하는 성취도 및 만족도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생활 속 孝와 禮의 실천을 통하여 그의 가족구성원들을 만족시키고, 가정생활을 넘어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의 전반을 발전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는 막대한 교육의 성과를 이룩해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古典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내는 교수학습법이 되는 셈이다. 텍스트 밖에서의 체험 및 실천을 유도하는 위와 같은 방안들은 전통적 평가에서 벗어나 과정 자체를 평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한문교과’만이 가능한 통합교육이자 ‘산 교육’의 형태라고 사료된다.

앞서 제안한 것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적용한 중학교 사서경문 수업의 교수·학습지도안을 구성하였다. 전시인 1차시에 『논어』의 “子游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문장을 학습한 상태로 설정하였다. 학생들은 교실을 벗어나 학교 안 예절실이나 다목적실로 이동한 상태로, 선인들의 ‘孝와 禮節’을 직접 체험해보는 수업이다.

〈표〉 IV-4 인성교육을 적용한 사서경문 수업 지도안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p>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전시학습복습</li> <li>◆ 학습목표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인들의 孝 행실을 알고, 이를 내면화한다.</li> <li>- 孝 행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전시 본문을 읽고 해석한다.</li> <li>• 학습목표를 인지한다.</li> </ul>	<p>2분</p>	<p>강의법, 문답법</p>	<p>교과서</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인들의 孝 행실 알기 &lt;옛날 부모님을 대하던 예절은 무엇이었을까?&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을 6그룹으로 나눈다.</li> <li>- 그룹별로 체험할 상황을 제비뽑게 한다. 이 때, 뽑힌 종이에는 각 상황에 맞는 예절행동이 제시되어 있다.</li> <li>- 그룹별로 선택한 상황에 제시된 예절행동을 숙지하고 10분 동안 연습할 시간을 준다.</li> </ul> </li> <li>◆ 예절체험 &lt;知에서 行으로!&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가 부모님 역할을 맡는다.</li> <li>- 각 그룹별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연습한 예절행동을 적절히 수행하게끔 유도해낸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그룹으로 모둠을 구성한다.</li> <li>• 그룹별로 체험할 상황을 제비뽑는다.</li> <li>• 그룹별로 선택한 상황에 제시된 예절행동을 숙지하고 10분동안 서로 피드백을 제공하며 연습한다.</li> <li>• 부모 역할을 맡은 교사의 진행을 따라 각 그룹별 순서대로 연습한 예절행동을 실제로 수행해본다.</li> </ul> <p>①A그룹 : ‘아침문안 예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부모의 침소로 절하고 나아가 기운을 낮추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더운지 추운지와 편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쭙는다.</p> </div> <p>②B그룹 : ‘부모님과 대화할 때의 예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부모님의 물음에 즉시 대답하고 부모님 말씀을 머리를 숙이고 공경히 들으며 감히 눈을 마주치지 말고 앉아서 말하시면 앉아서 듣고 서서 말하시면 서서 듣는다.</p> </div> <p>③C그룹 : ‘부모님과 식사할 때의 예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음식의 차고 더움을 살피고, 반찬투정을 하지 않으며, 밥상을 물릴 때엔 줄 곳을 여쭙어보며, 남은 것이 있냐고 물으시면 “있다”고 대답하고...</p> </div> <p>④D그룹 : ‘저녁문안 예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절하고 침소에 나아가 이부</p> </div>	<p>40분</p>	<p>체험 학습법, 협동 학습법,</p>	<p>활동지</p>

	<p>- 학생들이 자신의 그룹이 아닌 타 그룹이 수행하는 예절행동을 진지하게 관찰하게끔 지도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자리를 정해 드리고, 따뜻한 지 서늘한지를 살펴보며...     </div> <p>⑤E그룹 : '부모님께서 아프실 때의 예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얼굴빛에 근심하여 걸음을 조심하며 계속 안부를 묻고 관과 띠를 벗지 않고 봉양하며 음식 잡숫는 것을 돕고 백방으로 낮게 하기를 꾀하라.     </div> <p>⑥F그룹 : '부모님께 혼날 때의 예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부모님께서 꾸짖으시거든 반성하고 원망하지 말라. 얼굴빛에 노기를 드러내지 않으며 목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div> <p>• 타 그룹이 수행하는 예절행동을 진지하게 관찰하여 각 상황에 맞는 예절을 배운다.</p>			
<p>평가 및 정리</p>	<p>◆ 과제부여 &lt;행실점검표&gt; - 가정에서의 예절행동을 제시한 점검표를 나누어주어 이를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고, 가족들의 확인을 받아오도록 지도한다. ◆ 체험실 정리정돈 및 끝인사</p>	<p>• 점검표를 받고 교사의 설명을 경청한다.  • 체험실 정리정돈 및 끝인사</p>	<p>3분</p>	<p>강의법</p>	<p>활동지</p>

### 5) 소통교육 및 이를 적용한 수업지도

사회 안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주관적인 상호 작용과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소통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33)</sup> 특히 하루에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기에는 또래집단과의 소통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다.<sup>34)</sup> 또래와의 소통은 과연 창의성과 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먼저 인성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친구들과 소통하는 삶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며, 사회생활을 할 때에 필요한 책임감, 사회성, 인내심 등의 자질을 점차 길러나가게 된다. 창의성의 관점에서는, 또래와의 소통을 통하여 '나'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자아

33) 이혜숙, 「소통중심의 창의·인성 학교환경 조성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19면.

34) 소통의 종류에는 '對사회적 소통', '세대 간 소통', '상하 간 소통', '또래 간 소통' 등이 있다. 연구자는 수업 안에서 협동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또래 간의 소통이 창의성과 인성발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본고는 소통의 여러 종류 중 '또래 간 소통'에 집중하였음을 밝혀 둔다.

를 만남으로써 사고의 영역이 확장된다. 또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친구가 생각해내는 경우, 친구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이를 배워나감으로써 창의성과 지성이 크게 발달된다. 즉 창의·인성교육은 소통에 기반을 두어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또래와의 협동과 소통에 초점을 맞춘 창의·인성교육의 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 ① ‘역할극’의 활용

演劇의 일종인 ‘역할극’ 활동은 학생으로 하여금 여러 사람들과 소통·협동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새로운 가치와 창작물을 일구어낸다. 이러한 점에서 역할극 활동이 효과적인 창의·인성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sup>35)</sup>

역할극 활동을 할 때에는 먼저 특정한 상황을 설정하여 그 상황에 맞는 대본을 각색해야 한다. 사서경문 수업에서는 이 ‘특정한 상황’이 바로 학생들이 수업에서 다룬 경문이 된다. 학생들이 경문의 내용과 주제를 얼마나 적절하게 대본에 담아내느냐가 성공적인 역할극 활동의 관건이 된다. 사서의 문장들은 대부분 인물들 간의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 학생들이 대본을 각색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글감이다.

학생들이 구성할 수 있는 역할극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경문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과 인물을 그대로 실감나게 각색하는 것이다. 강민구의 연구<sup>36)</sup>를 참고하여 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孟武伯問孝，子曰：“父母唯其疾之憂。”
- ② 子游問孝，子曰：“今之孝者，是謂能養。至於犬馬，皆能有養，不敬，何以別乎？”
- ③ 子夏問孝，子曰：“色難。有事，弟子服其勞；有酒食，先生饌，曾是以爲孝乎？”

위 문장들은 공자가 孝를 묻는 제자들에게 각기 다른 가르침을 줌으로써 맞춤형 교육을 펼친 유명한 문장들이며 교과서에서도 자주 수록된다. 공자가 같은 질문에 저렇게 다른 답변을 했다는 사실을 통해, 평소 부모님을 모심에 있어서 제자들의 취약했던 부분을 유추할 수 있다. 맹무백은 병치레가 잦아 부모님을 걱정시켰을 것이며, 자유는 부모님을 봉양함에 親狎했거나 不敬했던 적이 있을 것이고, 자하는 부모님을 앞에서 표정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을 것이

35) 강민구, 「중등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한문교육」, 『한문교육연구』 제40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3, 121면 참조.

36) 강민구, 위의 논문, 123면 참조.

다. 학생들은 각각 공자, 맹무백, 자유, 자하, 각 제자의 부모님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앞선 유추를 토대로 재미있게 대본을 각색하여 실감나는 역할극을 펼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역할극은 경문의 내용에 흥미롭게 접근하게 하며, 경문의 의미를 오래도록 잊지 않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형태는 경문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각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孝에 관한 경문을 학습했다면 학생들은 이를 風樹之嘆과 관련시켜 새롭게 등장인물과 상황을 창조하여 '부모님이 계실 때 잘하자'라는 교훈을 담은 역할극을 구성할 수 있다. "己所不欲, 勿施於人."을 놓고는 易地思之와 관련시켜 학교에서 벌어지는 따돌림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역할극을 펼칠 수 있다. 또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를 학습했다면 피아노 콩쿠르를 준비하는 세 인물을 만들어, A학생은 '知之者', B학생은 '好之者', C학생은 '樂之者'로 설정한 후 경문의 주제를 살린 역할극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三人行, 必有我師焉."을 놓고도 A학생은 '관찰자시점의 주인공', B학생은 '善者', C학생은 '不善者'로 설정하여 재미있고 참신한 상황을 만들어 역할극을 펼칠 수 있다. 경문을 현대적으로 각색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창의성을 맘껏 발휘할 수 있으며, 경문에 담긴 바람직한 가치관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내면화할 수 있다.

한편 수업시간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방학과제로 역할극 활동을 부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사서경문을 다룬 단원은 대개 교과서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으므로 하계방학이나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그룹별로 경문의 내용을 각색하여 역할극을 펼친 후 그 동영상과 과제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놀이와 게임의 활용 37)

소통에는 언어적 소통과 비언어적 소통이 있으며<sup>38)</sup>, 각각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발달영역도 다르다. 놀이와 게임을 통한 학습활동은 언어적 소통 뿐 아니라 비언어적 소통도 높은 비중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다양한 측면의 발달이 가능하다. 친구들과 신체를 이용하여 손짓, 발짓, 표정 등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민첩성, 적극성을 기를 수 있다. 특히 게임은 기본규칙을 익히고,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두뇌활동에도 좋다. 무엇보다 가장 높은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활동의 형태이기도 하다. 놀이와 게임은 최소한 2명 이상 일 때, 혹은 다수의 인원으로 팀을 구성하였을 때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협동학습의 측면에서

37) 놀이와 게임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놀이는 평화적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유희'의 성격이 강하며 친화적 행동이다. 반면 게임은 '승부'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어 '경기' 또는 '시합'의 성격이 강하다.

38) 이해숙, 앞의 논문, 19면.

도 바람직하다. 또한 학생들의 긴장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고, 무엇보다 학생 전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sup>39)</sup>

교과서에서도 게임을 이용한 참신하고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발견하여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학교 ③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 경문의 뜻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놀이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sup>40)</sup> 일명 ‘몸으로 말해요’라는 유명한 게임을 토대로 구성한 것인데 이는 학습자들의 높은 흥미를 유발할 뿐 아니라 경문의 뜻을 제대로 숙지해야만 참여 가능하므로 학습 성취에도 효과적인 활동이다.

이 밖에도 사서경문 수업에서 활용할만한 놀이와 게임의 예로는, 사서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치관들을 칠판에 나열한 뒤 경매놀이를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중시하는 가치관을 알아보는 활동, 모둠별로 마음에 드는 경문을 고른 뒤 경문을 우리말로 참신하게 바꾸어 짧은 공익광고 카피를 만들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학습자들이 광고주가 되어 심사놀이를 해보는 활동, 경문과 성어를 연결하여 학습 한 뒤 단원 마무리 시간에 교사가 제시하는 경문을 듣고 그와 관련된 성어를 맞추는 게임 등이 있다. 학습자들의 성향, 교실 내의 분위기에 따라 얼마든지 교사의 재량껏 난이도를 조절하여 다양한 놀이와 게임을 구상할 수 있다.

39) 김용재, 「四書에서 유래하는 成語에 대한 중·고교 ‘漢文科’에서의 효율적인 교수법」, 『교육연구』 제 60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4, 76면 참조.

40) 이상진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디딤돌, 2013, 69면.

앞서 제안한 역할극과 게임을 활용하여, 소통교육을 적용한 고등학교 사서경문 수업의 교수-학습지도안을 구성하였다. 이 수업은 경서를 다룬 한 단원의 학습을 마친 후, 그 동안 배운 경문들을 다시 한 번 복습해보며 심화된 활동을 하는 단원 마무리 수업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전에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하여 모둠별로 그 동안 학습한 경문을 겹치지 않게 선택하고, 선택한 경문의 주제에 맞는 5분 정도의 역할극을 준비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IV-5 소통교육을 적용한 사서경문 수업 지도안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전시학습복습</li> <li>◆ 학습목표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서 학습한 경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li> <li>- 경문에 담긴 의미를 溫故知新하여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전시 본문을 읽고 해석한다.</li> <li>• 학습목표를 인지한다.</li> </ul>	5분	강의법	교과서, PPT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원 복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동안 수업에서 다룬 경문들을 모아 그 내용과 의미를 복습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억을 상기시킨다.</li> </ul> </li> <li>◆ 역할극 실연 및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별로 준비한 역할극을 실연하게 한다.</li> <li>- 역할극을 관람하는 다른 모둠으로 하여금 '실연중인 역할극이 어떤 경문을 표현한 것인지'를 맞히게 한다.</li> <li>- 정답이 나오면, 역할극을 실연한 모둠으로 하여금 극의 의도를 설명하게 한다.</li> <li>- 교사는 차질 없이 순서대로 역할극을 진행시키며, 각 역할극마다의 피드백을 제공한다.</li> <li>- 역할극과 경문을 올바르게 연결시켜 가장 많은 정답을 맞힌 모둠에게 보상을 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동안 학습한 경문의 내용을 복습한다.</li> <li>• 모둠별로 준비한 역할극을 실연한다.</li> <li>• 관람중인 역할극이 어떤 경문을 표현한 것인지 모둠원들끼리 토의하고, 역할극이 끝나면 생각한 정답을 재빨리 외친다.</li> <li>• 다른 모둠의 설명을 경청한다.</li> <li>• 순서대로 역할극을 실연하며, 교사의 피드백을 경청한다.</li> <li>• 게임의 결과에 수긍한다. 우수한 친구들을 축하해준다.</li> </ul>	40분	토의 학습법, 협동 학습법, 강의법, 역할 놀이 학습법	교과서
평가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원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서의 단원마무리 학습을 풀게 하여 그동안 배운 경문의 복습을 유도한다.</li> <li>- 정답 확인</li> <li>- 질문받기</li> </ul> </li> <li>◆ 차시학습예고 및 끝인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원마무리 학습을 풀어본다.</li> <li>• 정답을 맞춰본다.</li> <li>• 모르는 부분을 질문한다.</li> <li>• 인사</li> </ul>	5분	강의법, 문답법	교과서

## V. 結論

예로부터 학문과 사상, 나아가 그들의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던 經書는 그것을 배우는 모든 이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할 만한 보물과 같은 책이다. 그 중에서도 四書는 世世토록 우리의 사고를 일깨워주고 크나큰 인생의 가르침을 주는 지혜의 책이다. 사서경문의 학습이야말로 한문교육에 있어서 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漢字는 누구나 가르칠 수 있지만 漢文, 특히 四書는 이에 대해 깊은 성찰을 가지고 전공한 사람만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며, 그만큼 사서경문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현행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內 사서경문을 여러 층위로 나누어 분석해보고, 현 시대에 맞는 다양한 한문과 교수학습지도법을 제시하였다.

Ⅱ장 1절에서는 현재 교육방향의 지침이 되는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경서교육지침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교육과정이 추구하고 있는 경서교육의 방향을 고찰하였다. 2절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에 따라 출간된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 內 사서경문을 모두 조사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3절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경문들을 ‘출전 빈도’, ‘학습목표’, ‘글감’, ‘교수·학습활동’의 네 가지 층위로 나누어 세밀히 분석하였다. 각 층위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출전 빈도’ 층위에서는 『大學』과 『中庸』 문장의 교과서 인용횟수가 현저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四書의 경문을 골고루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교수자료 선별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학습목표’ 분석을 통해 추상적인 행동명사를 사용한 ‘포괄식 표현’으로 진술된 학습목표가 빈번하였으며,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목표를 그대로 진술하는 경우 또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무엇보다 경문에 내포된 학습요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학습목표 진술이 필요하다.

‘글감’ 층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긴 길이, 어려운 내용, 궁벽한 한자 등을 피하여 적절한 난이도의 글감을 선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복된 인용문장의 경우에는 현토를 어느 정도는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똑같은 글감을 변화 없이 중복 수록하는 실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글감을 수록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하였다.

‘교수·학습활동’의 분석에 있어서는 ‘자기 주도적인 독해 유도 여부’, ‘경문과의 적절성’, ‘이해장치의 충분한 제공’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통하여 학습자의 독해력 신장을 위해 학습자 중심의 독해활동을 구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 경문에 담긴 학습요소와 적절하게 매치되는 교수·학습활동 및 경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Ⅲ장과 Ⅳ장은 본고의 주제가 되는 부분으로, 사서를 중심으로 한 한문과 교수학습지도법을 두 가지 지향점으로 나누어 제언하였다.

Ⅲ장의 1절과 2절에서는 ‘他교과와의 연계 가능한 교수법’, ‘문화교육 성취 지향의 교수법’을 바탕으로 四書가 가진 정의적 특성과 실용성을 살려 全人的 文化人을 양성하는 교수학습법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교육이 가진 학습요소를 다른 교과의 교육목표와 융합시켜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을 고찰하였다. 특히 사서의 문장들이 가진 주제와 특성들을 고려해볼 때, 국어·도덕·진로·미술교육과 연계하여 수업한다면 학습자들의 다양한 측면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서경문의 주제를 살려 다양한 교과와 연계한 수업은 그렇지 않은 수업에 비해 학습자들의 높은 흥미와 능동적인 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 사서경문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와 유교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인을 양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경문의 주제를 친근한 현실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더 나아가 학습자들이 직접 사례를 떠올리도록 유도하여 경문 속 사상을 실천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통문화의 학습을 통해 우리나라 사상과 문화에 根幹이 된 사서의 유교적 가치관을 이해하게 하는 지도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교사상에 뿌리를 둔 전통문화재를 활용한 수업, 유교적 가치관을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갔던 옛날 선비들의 생활문화를 활용한 수업을 소개하였다.

Ⅳ장의 1절과 2절에서는 ‘비판·논리 및 사고력 증진의 교수법’, ‘창의·인성 및 소통능력 배양의 교수학습’을 토대로 사서와 같은 사상류 산문의 특징을 살려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는 한문수업, 기존의 주입식 수업형태를 탈피한 한문과 창의·인성·소통교육을 지향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수업 안에서 교사의 주입식 강의보다는 학습자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력이 중심이 되어 수업을 주도하게끔 유도해야 한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교수·학습법으로 가치토론과 논술을 제언하였다. 사서경문 가운데에는 학습자들의 비판적 사고를 유발함으로써 훌륭한 가치토론이 진행될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다. 따라서 학생들이 상반된 가치를 놓고 벌이는 토론을 통해 논리적 사고를 교류하고 자신의 설득력을 배양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거를 글로 서술해봄으로써 논술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둘째, 현 시대가 지향하는 창의·인성 및 소통교육을 위한 사서 교수학습법을 소개하였다. 먼저 창의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주희의 해석 뿐 아니라 사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창의적인 발상을 유도하는 것, 경문을 공익광고의 카피로 활용한 제작물 창작하

게 하는 것, ICT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사서에 담긴 孝와 禮, 友愛와 같은 바람직한 인성에 주목하여, 기존의 전통적 수업에서 탈피한 실천학습을 시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생활태도 점검표를 제공함으로써 자기반성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통교육에서는 ‘또래 간 소통’의 교육적 측면에 주목하여 사서를 주제로 한 역할극, 놀이와 게임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拙稿는 중고교 사서 부문 지도법을 고찰하며 많은 선행연구와 현행 교과서를 정독하는 과정에서, 한문과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학교 차원에서 한문교육의 지향성을 설정하고 위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절감하였다. 한문과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 한문의 중요성을 인정받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사서 부문 지도법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학생들이 사서가 가진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의 문구라도 가슴 깊이 새기게 되는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

## □ 參考文獻

### 【基本資料】

- 『論語』
- 『孟子』
- 『大學』
- 『中庸』
- 『擊蒙要訣』
- 『五倫行實圖』
- 『論語集註』
- 『論語集解』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2011-361호, 2011.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3 한문』, 교육과학기술부, 2008.
-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2009.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2015.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18], 2015.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2015.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고전과 윤리 교육과정』 제 2015-74호, 2015.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2015.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제 2015-74호, 2015.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 김언중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교학사, 2013.
- 송재소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다락원, 2013.
- 심경호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대교, 2013.
- 이병주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대학서림, 2013.
- 김혈조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동화사, 2013.
- 박성규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두산동아, 2013.
- 이상진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디딤돌, 2013.
- 안재철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미래엔, 2013.

- 이동재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비상교육, 2013.
- 송영일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성림출판사, 2013.
- 김용재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와이비엠, 2013.
- 진재교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장원교육, 2013.
- 김영주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천재교과서, 2013.
- 안대회 외, 『중학교 한문 교과서』, 천재교육, 2013.
- 임완혁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교학사, 2013.
- 신태영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금성출판사, 2013.
- 송재소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다락원, 2013.
- 신표섭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대학서림, 2013.
- 박성규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동아출판, 2013.
- 이상진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동화사, 2013.
- 심경호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미래엔, 2013.
- 김용재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와이비엠, 2013.
- 진재교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장원교육, 2013.
- 안대회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천재교육, 2013.

#### 【單行本】

- 고전연구회, 『2천 년을 기억하는 스승과 제자』, 포럼, 2006.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하우출판사, 2009.
- 김대행 외, 『대학이 원하는 논술』, 한샘출판사, 1996.
- 김덕균, 『공문의 사람들』, 논형, 2004.
- 김병헌 편역, 『정산 사자소학』, 태학사, 1998.
- 노명완 譯, 『교실수업전략』, 박이정, 2002.
- 송명석, 『우리나라의 유교문화유산 베스트27』, 탐메이드북, 2015.
- 임동석, 『四書講讀』, 동서문화사, 2009.
- 전창욱, 『참여형 수업을 이끄는 창의적 교수법 47가지』, 미래와경영, 2015.
- 정민 외,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휴머니스트, 2011.
- 宮崎市定, 『論語の新しい讀み方』, 岩波書店, 2000.

### 【學位論文】

- 김은주, 「고등학교 『漢文 I』 교과서 內 ‘經書’·‘諸子書’ 영역 분석: 2007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정하, 「중학교 한문 교과서 학습목표 분석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재숙, 「학교교육과정에 제시된 학년 교과목표 진술 형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서효석, 「전통문화현상으로 본 탁족의 의미와 경관 해석」, 우석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신덕수, 「경전교육의 지향성 탐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안광윤, 「ICT活用을 통한 漢文科 興味誘發 授業模型 研究-中學校를 中心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안동규, 「漢子·漢文教育의 實態와 國家·社會的 要求 分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원윤숙,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보이는 사서경문의 내용과 효율적 지도방안」,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윤영해, 「조선전기 사대부 금악(琴樂)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미애, 「漢文科 創意的 教授法이 情意的 特性과 學業成就度에 미치는 影響」,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하나, 「논어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이혜숙, 「소통중심의 창의·인성 학교환경 조성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임은희, 「한문과 ICT활용 수업모형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전지윤, 「유교문화가 조선후기 민화에 미친 영향-효제문자도와 책거리도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최일순, 「토론과 논술을 활용한 한문과 교육방법 연구: 『孟子』 출전 본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研究論文】

- 강민구, 「중등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한문교육」, 『한문교육연구』 제40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3.
- 김병철, 「Jigsaw 모델을 활용한 한문수업 방안」, 『한자한문교육』 제34권,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4.

- 김용재, 「중·고교 漢文教科書에서의 ‘經書’ 교육에 관한 발전적 제언」, 『漢文古典研究』 제27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 김용재, 「儒教 經典教育의 필요성과 새로운 교육방법론 모색」, 『儒教思想研究』 제22집, 한국유교학회, 2005.
- 김용재, 「四書에서 유래하는 成語에 대한 중·고교 ‘漢文科’에서의 효율적인 교수법」, 『教育研究』 제60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4.
- 김용재, 「『論語』古注를 통해 본 『論語』經文의 해석학적 이해[1]」, 『동양철학연구』 제59집, 동양철학연구회, 2009.
- 백광호, 「한문교육에서 ICT 활용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문교육연구』 제18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 송병렬, 「懸吐教育의 유용성과 吐의 문법적 성격」, 『한문교육연구』 13권, 한국한문교육학회, 1999.
- 엄석인, 「현대 일본에서 『논어』연구와 주석서의 경향」,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유교현대화 연찬4, 2001.
- 이광우 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급별 창의적 체험 활동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 장경원이론,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수업컨설팅 사례 연구」, 『한국HRD연구』 제8권 제3호, 중앙대학교 한국 인적자원개발 전략연구소, 2013.
- 정 영, 「五倫行實圖의 교육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31권, 원광대학교, 2003.
- 최윤용, 「서당의 교육방법과 현대적 의의」, 『한문고전연구』 제17권,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함영대, 「經典教育 研究의 성과와 전망」, 『한문교육연구』 제37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1.

#### 【기타】

- 이연섭, 「한글맞춤법」, 경기일보, 2015년 4월 26일자 보도문.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 Abstract

### Research on Teaching–Learning Methods for the Subject of Classical Chinese of Secondary Education – Focusing on the Four Chinese Classics –

Heo Do Eun

Dept. of Chinese Classic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opose teaching–learning methods which can allow a variety of effective learning elements of the Four Chinese Classics included in the subject of Classical Chinese recompiled according to the Amended Curriculum of 2009.

Chapter II considered the identity and directionality of education of classics by inquiring about the guidelines of the education of classics included in the Amended Curriculum of 2009. The result shows that the Curriculum pays attention to the increase of critical thinking and the achievement of cultural education for students, through the education of classics. Moreover, I analyzed the classics included in the current textbook of Classical Chinese of secondary education, dividing into four categories of "entry frequency", "learning objectives", "writing materials" and "teaching–learning activities". Based on the research, I drew a conclusion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compilers to make efforts for even selection of writing materials, to state concrete learning objectives for making the best of the learning elements included in the classics, and to select writing materials with proper level of difficulty. Moreover, it is required to realize learner–centered reading comprehension activities, and to

provide reading materials related to the teaching–learning activities and the classics which appropriately apply the learning elements included in the classics.

Chapters III and IV, which belong to the key point of this study, proposed effective teaching–learning methods for the Four Chinese Classic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study.

Firstly, so as to foster a holistic cultured person based on the affective characteristics and practicality as appeared in the classics, the following methods can be conducted: i) It is by proceeding with interdisciplinary classes related to other subjects. Considering the themes and attributes of the learning of the Four Chinese Classics, it is proper to connect them with Korean, Career guidance, Ethics and Fine Arts. Therefore, I introduced diverse connection plans with each subject mentioned. ii) The learning of the Four Chinese Classics can contribute to achieving the cultural education. However, if a writing material with outstanding thoughts and culture fails to evoke a bond of sympathy with students, then the text becomes fully useless. For this reason, it is essential for teachers to provide students with abundant examples in order to create a bond of sympathy and motives for practice. For a direct method of cultural education, it will be effective if teachers introduce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and the culture of classical scholars rooted in Confucianism, by way of connecting them with some associative sentences of the Four Chinese Classics.

Secondly, through the classes of the Four Chinese Classics, the typical rote learning method can be avoided. They correspond to the following methods: i) There is a teaching method that helps to improve the critical thinking and the power of logic.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he Four Chinese Classics from critical perspective and they can improve their power of logic and the critical thinking. For the effective result, it is crucial to carry out discussions of values and essay writings. ii) The learning of the Four Chinese Classics can contribute to achieving education balanced among creativity, character and communication which are actually pursued by the current education. As for creative education plans, they can comprehend different methods, such as giving diverse annotations, inducing student–led interpretation, recreating sentences of the Four Chinese Classics as commercial copies, and applying

mutual teacher–student ICT. As for character education plans, I introduced character experience and practice checklist which are oriented to "beyond the classroom" and "beyond the text". As for the communication education,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communication with peer group is the most important type of many other communications. Consequently, this study proposes the utilization of role play, plays and games which can maximize the communication among students during the classes of the Four Chinese Classics.

The Four Chinese Classics are timeless masterpieces loved by every one, in virtue of their precious thoughts and character of the ancestors. However, in the actual chalkface field, they are normally considered as "something hard to learn" or "something complicated to teach" for both students and teachers. In sum, this study started from these problems of the reality. I hope that this study containing the proposal of effective teaching methods for the Four Chinese Classics can somewhat contribute to improving methods for those who are engaged in the educational circles of Classical Chinese.